


2-28-2002

지역사회 봉사를 통한 선교접촉점 개발과 복음전도: 위미교회를 중 심으로

Eun Chul Kang 강은철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dmin>

 Part of the [Biblical Studies Commons](#), [Christian Denominations and Sects Commons](#), and the [Christianity Commons](#)

Recommended Citation

강은철, "지역사회 봉사를 통한 선교접촉점 개발과 복음전도: 위미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플러신학대학원, 2002.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EVANGELISM THROUGH WELFARE SERVICE: WITH SPECIAL REFERENCE TO WIMI CHURCH

written by

EUN CHUL KANG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Sung Hee Lee

Moon Sang Kwon

Seyoon Kim

February 28, 2002

**EVANGELISM THROUGH WELFARE SERVICE: WITH
SPECIAL REFERENCE TO WIMI CHURCH**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EUN CHUL KANG

FEBRUARY 2002

지역사회 봉사를 통한
선교 접촉점 개발과 복음전도:위미교회를 중심으로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이성희 교수

강 은 철

2002년 2월

ABSTRACT

Evangelism Through Welfare Service
With Special Reference To WIMI Church

Eun Chul Kang
Doctor of Ministry

2002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y

This Ministry Focus Paper is to attempt to preach the gospel and missionary contact development from the social welfare service for the growth of Wimi Presbyterian church. This is located in agriculture village in JeJuDo. This village has about five thousands population. This church makes five hundreds members. The problem of rural community and church decreases gradually population. Furthermore, local inhabitants think that they don't find the need of the church and they do the negative aspects for the church. According to the situation, I am willing to change their opinion into positive thinking for the church. Judging from this point of view, The development of the missionary contact changes the negative mind into the positive mind.

This paper to cause the change studies the development of missionary contact. The outlin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is part "What is mission?" discusses the evangelism and soial responsibility about total mission. It studies biblical, historical and systematic theology about social welfare service.

Second part analyzes local community and local church for the development of the missionary contact. It will discuss how to effect the philosophy of ministry and the development of missionary contact to attain the purpose for the growth of the Wimi Church. And the practical mission contacts are presented to the local community.

Third part will be discussed the future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mission contacts. To make total welfare facilities building offers many mission contacts.

The main point of this paper is to present the development of the effective mission contacts for evangelism around Wimi Church. It is sure that this study will be contributed for the church growth.

Theological Mentor : Sung Hee Lee, Ph. D.

Moon Sang Kwon, Ph. D.

Seyoon Kim, Ph. D.

감사의 말씀

바쁜 목회생활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학문적인 일에 모든 가정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본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고 친절하게 지도해 주시고 논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지도교수인 이성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논문제안서를 제출할 때 지도해 주신 민종기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목회학 박사과정에서 목회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학문적인 배경을 가르쳐 주신 김세윤 박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논문을 쓰는 동안에 목회를 위해서 또한 논문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를 아끼지 않고 열심히 기도해 주신 어머니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옆에서 기도와 격려로 목회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아내 윤문선 사모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아빠의 지속적인 학문의 배움을 지켜보면서 언제나 좋은 모습으로 지켜봐 준 사랑스러운 딸 예원이와 아들 반석이에게도 아빠의 사랑을 전합니다.

늘 잊지 않고 논문을 빨리 쓸 수 있도록 격려해 주며 자료까지 제공해 준 장동학 목사님, 강창근 목사님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아끼지 않으셨던 학교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함께 동역하고 있는 이현중 전도사와 박정자 전도사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시고 기도로 지원해 주신 위미교회 성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이 기쁨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002년 2월

강 은 철

목 차

| | |
|--|----|
| ABSTRACT | ii |
| 감사의 말씀 | iv |
| | |
| 제 1 장 서 론 | 1 |
|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 |
| 제 2 절 접촉점에 대한 연구의 역사 | 2 |
| 제 3 절 연구의 방법과 한계 | 2 |
| | |
| 제 2 장 선교에 있어서의 접촉점인 사회봉사의 중요성 | 5 |
| 제 1 절 선교란 무엇인가? | 5 |
| 1. 전통적인 선교관 | 5 |
| 2. 사회구원에 대한 관심 | 7 |
| 3. 통전적인 선교 | 9 |
| 제 2 절 선교에 있어서의 접촉점인 사회봉사의 중요성에 대한 성경적 근거 | 11 |
| 1. 성서신학적 근거 | 11 |
| 가. 사회봉사의 구약적 근거 | 11 |
| 나. 사회봉사의 신약적 근거 | 21 |
| 2. 역사학적인 근거 | 25 |
| 가. 초대교회의 사회봉사 활동 | 25 |
| 나. 중세교회의 사회봉사 활동 | 29 |
| 다. 종교개혁기의 사회봉사 활동 | 33 |
| 라. 경건주의와 사회봉사 활동 | 36 |
| 마. 19세기의 사회봉사 활동 | 38 |
| 바. 20세기의 사회봉사 활동 | 42 |
| 3. 조직신학적인 근거 | 45 |

| | |
|--|----|
| 가.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 | 45 |
| 나. 하나님 나라에 나타난 자유와 해방 | 47 |
| 다. 몸으로 이웃을 섬기는 운동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 50 |
| 라. 십자가 아래에서의 사회봉사 | 52 |
| 마. 성경의 힘 안에서의 사회봉사 | 54 |
| 제 3 절 접촉점에 대한 신학적 해석 | 55 |
| 1. 코넬리우스 밴 틸(Cornelius Van Til)의 변증학적 해석 | 5 |
| 가. 로마 카톨릭의 접촉점에 대한 해석 | 57 |
| 나. 개혁자의 접촉점에 대한 해석 | 58 |
| 2. 목회학적 해석 | 61 |
| 가. 오늘의 교회의 목회적 위기 | 61 |
| 나. 지역사회 봉사 대한 목회적 해석 | 63 |
| 다. 접촉점 개발을 위한 목회 방향 | 65 |
| 3. 선교학적 해석 | 66 |
| 제 3 장 접촉점 개발을 위한 지역사회와 지역교회의 분석 | 72 |
| 제 1 절 제주지역 사회의 상황분석 | 72 |
| 1. 접촉점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종교, 문화적 요인들 | 73 |
| 가. 제주의 토속신앙 | 74 |
| 나. 제주의 불교 | 75 |
| 2. 접촉점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회, 문화, 환경적 요인들 | 73 |
| 제 2 절 제주 지역 교회의 상황분석 | 77 |
| 1. 제주선교의 역사 | 77 |
| 2. 제주선교의 특징 | 78 |
| 제 3 절 위미지역 사회의 상황분석 | 79 |
| 1. 제주선교의 역사 | 79 |
| 2. 사회, 문화 인류학적인 특성 | 80 |
| 가. 마을의 유래 | 80 |

| | |
|--|-----|
| 나. 민간신앙 | 80 |
| 다. 세시 풍속 | 81 |
| 라. 제사문제 | 82 |
| 3. 농업 관광자원적 특성 | 82 |
| 4. 종교적인 여건들 | 82 |
| 5. 기타 여건들 | 83 |
| 제 4 절 위미교회의 현재의 상황 | 83 |
| 1. 교회의 위치 | 83 |
| 2. 교회의 구성원 | 83 |
| 3. 교회의 상황 | 84 |
| 제 4 장 위미교회 성장을 위한 목회철학과 접촉점 개발의 관계 | 86 |
| 제 1 절 목회철학 | 86 |
| 1. 위미교회의 목회전략 | 86 |
| 가. 코이노니아(koinonia) | 86 |
| 나. 케리그마(kerygma) | 88 |
| 다. 디아노니아(dikonia) | 91 |
| 라. 말투리아(martyria) | 93 |
| 마. 예언자, 제사장, 왕, 치유자, 자유케 하는 목회 | 94 |
| 2. 위미교회 목회방침 | 95 |
| 가. 예배하는 공동체 | 95 |
| 나. 가르치는 공동체 | 95 |
| 다. 선교하는 공동체 | 96 |
| 라. 섬기는 공동체 | 96 |
| 3. 목회 표어 설정 및 구체적인 실천 사항 | 96 |
| 제 2 절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목회 접촉점의 실천과 교회위상 높이기 | 98 |
| 제 5 장 접촉점을 위한 목회전략 | 100 |

| | |
|---|-----|
| 제 1 절 지역주민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한 목회적인 전략 | 100 |
| 1. 구역예배를 통한 접촉점 개발 | 100 |
| 가. 구역의 의미 | 100 |
| 나. 구역의 중요성 | 100 |
| 다. 구역성장의 원리 | 100 |
| 라. 구역을 통한 심방 | 101 |
| 2. 남성 교구장과 남성 구역장 제도 | 102 |
| 3. 불신자를 교회로 인도하기 위한 고리 역할 | 102 |
| 제 2 절 기도 지원 그룹 | 103 |
| 1. 새벽기도회 | 103 |
| 2. 금요구역연합기도회 | 103 |
| 3. 중보기도그룹 | 103 |
| 4. 특별새벽 기도회(고난주간, 종교개혁기념주일) | 103 |
| 5. 전도요원 기도훈련 | 103 |
| 6. 여전도회 및 남녀 선교회를 통한 축호전도 위한 기도훈련 | 104 |
| 7. 교역자와 권사 위한 기도훈련 | 104 |
| 제 3 절 교회창립주일 이웃주민 초청예배 | 104 |
| 제 4 절 새신자 양육 프로그램 | 104 |
| 1. 새신자 양육의 중요성 | 104 |
| 2. 양육의 정의 | 106 |
| 3. 양육의 목표 | 106 |
| 4. 양육의 기본요소 | 107 |
| 5. 양육의 유형 | 109 |
| 가. 단기양육 | 109 |
| 나. 장기양육 | 110 |
| 제 6 장 접촉점 개발을 통한 선교 전략 | 112 |
| 제 1 절 신용협동조합 활동을 통한 접촉점 개발 | 112 |

| | |
|--|-----|
| 제 2 절 어린이집 통한 접촉점 개발 | 113 |
| 제 3 절 경로잔치 통한 접촉점 개발 | 114 |
| 제 4 절 지역주민을 위한 근린체육공원 조성 통한 접촉점 개발 | 115 |
| 제 5 절 마을 공용주차장 설치를 통한 접촉점 개발 | 115 |
| 제 6 절 병원선교를 통한 접촉점 개발 | 116 |
| 제 7 절 교도소선교를 통한 접촉점 개발 | 116 |
| | |
| 제 7 장 21세기 미래지향적인 접촉점 개발을 위한 전략 | 118 |
| 제 1 절 21세기 지역사회의 요청 | 118 |
| 1. 가정사역을 위한 요청 | 118 |
| 2. 영성적 요청 | 119 |
| 제 2 절 지역사회를 위한 종합복지관 건립 | 119 |
| 1.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 | 120 |
| 2. 청소년 공부방 운영 | 120 |
| 3. 컴퓨터 교실 운영 | 120 |
| 4.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상담소 운영 | 120 |
| 5. 노인복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120 |
| | |
| 제 8 장 결 론 | 122 |
| | |
| 참고문헌 | 125 |
| | |
| VITA | 128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우리는 지금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앞으로 전개될 21세기는 엄청난 변화의 시대가 될 것이다. 21세기에는 기술문명이 고도로 발달할 것이며 정보 시대를 맞이하여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또한 사회가 다원화되기에 이에 대한 목회적인 준비도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자의 목회 현장이 농촌의 지역사회라고 해서 이러한 변화의 바람을 거부할 수는 것이 현실이다. 도시화와 산업화로 말미암아 농촌의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고 이로 인해 농촌교회도 위기를 맞고 있다. 그 결과 농촌은 더이상 목회적인 희망이나 선교적인 비전이 없는 곳으로 생각하여 많은 목회자들이 될 수만 있으면 농촌을 떠나려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농촌교회가 절망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목회자가 지속적으로 자신의 목회 사역지를 위하여 얼마나 목회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목회를 하느냐에 따라서 농촌교회도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농촌교회가 발전하지 못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지역사람들이 절대적으로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요, 그 관심으로 말미암아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교회가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그 지역사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존재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봉사적 선교 프로그램을 통한 접촉점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지역교회와 지역사회의 막혔던 담을 허물고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교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며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 교회와 지역 주민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토록 하고 전도를 통하여 교회의 예배에 참여토록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함으로써 그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한 목회적인 대안들을 개발하고 사회봉사적인 선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이 논문을 쓰게 된 목적이다.

제 2 절 접촉점에 대한 연구의 역사

그동안 접촉점이라는 말은 개인전도의 용어로 사용되었고 연구되었다. 본 논문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접촉점이라는 용어를 지역교회와 지역사회에 막혔던 담을 허무는 차원에서 사용하려고 한다. 즉 본 논문에서 의미하는 접촉점은 교회와 사회가 만나는 자리이다. 그동안도 지역교회가 지역사회의 벽을 허물기 위하여 여러 가지 선교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하였고 그러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지만 접촉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논문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역교회와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보다 더 밀접하게 연결하는 고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목회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접촉점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연구하게 되었다.

제 3 절 연구의 방법과 한계

한국 교회가 선교 1세기 동안 급속도로 성장해 왔으나 선교 2세기를 맞이하면서 성장의 속도가 점차로 둔화되고 있다. 성장 속도가 둔화된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한국 교회의 성장 둔화를 교회가 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주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산업사회가 고도로 발달하고 첨단 기술이 발달한 정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회적인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교회가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교회가 사회로부터 냉대를 받고 외면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가 사회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목회적이고 선교적인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제공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복음적으로, 목회적으로 그리고 선교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나갈 것인가가 바로 현실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본 논문은 어떻게 하면 사회로 하여금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벗어나고 교회의 필요성을 절감케 하고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갖고 본 연구자가 섬기고 있는 위미교회를 중심으로 사회봉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교회의 필요성을 심어주며 목회적이고 선교적인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교회가 지역사회와 관계를 보다 더 원만하게 하고 막혀 있던 담을 헐기 위해서는 교회가 지역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지역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교회는 성장할 수 없다. 지난 1세기 동안 한국 교회는 성장 일변도였고 사회를 외면한 결과 이제는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지역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하지 않고 인정을 받으며 성장해 나갈 것인가? 그것은 교회가 지역사회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접촉점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달려 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지역에 믿지 않는 자들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봉사적인 프로그램과 목회적인 프로그램과 선교적인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지역사회를 효과적으로 섬길 수가 있고 접촉점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교회는 지역 신용조합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주도하고 지역 주민들과 끊임없이 접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며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통하여서 어린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학부모 학교를 개설하여 학부모와의 끊임없는 접촉을 통하여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또한 오늘날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 노인들을 위한 경로 잔치를 베풀어 지역의 노인들을 교회로 초청하여 위로하고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으며 복음 전파를 위한 접촉점을 만든다. 그리고 지역을 위한 환경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지역 주민들과 환경을 통하여 접촉점을 갖는다.

지역주민을 교회로 초청하기 위한 목회적인 프로그램은 선교 심방을 통하여 믿

지 않는 지역 주민들과 끊임없이 접촉하며 전도훈련을 통한 개인전도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도로서 지원할 수 있도록 기도 지원그룹(새벽기도회, 심야기도회, 준비기도회)을 활성화시키며 교회 창립주일에 지역의 유지들과 지역의 주민들을 초청하여 예배할 수 있는 예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을 복음화하고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기 위하여 본 논문을 준비하게 되었다. 그리고 새로 등록된 새신자들을 8주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새 신자 양육반과 기초 교리반의 과정을 통하여 교회생활에 적응하게 하며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더욱이 21세기를 향한 미래의 목회를 준비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사회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교회가 지역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는 교회로 성장해 나가고자 본 논문을 준비하게 되었다.

그러나 본 논문의 한계는 교회 하나를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적용에 한계가 있다. 장년출석 230명되는 농촌교회를 모델로 삼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분야에 대한 논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참고 논문이 부족한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이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조명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제 2 장

선교에 있어서의 접촉점인 사회봉사의 중요성

제 1 절 선교란 무엇인가?

오늘날 교회를 선교의 공동체로 이해하는 데는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선교를 유일한 선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 즉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선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선교라고 개념짓고 이해할 것인가?

선교라는 말은 원래가 성서적인 개념이 아니다. 선교(mission)는 라틴어 동사인 mittere(보내다, 또는 파견하다)라는 단어를 어원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명사인 missio는 '내보냄'(sending out)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부름을 입은 사람들(ekklesia)이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선교라는 말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그 보내는 일을 감당하며, 동시에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선교의 원칙에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구체적으로 선교를 논하게 되다면 다양한 선교의 양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선교란 여러 종류의 선교들로 이루어진 방대한 사업이며 여러 종류의 기독교인들이 타문화권에까지 미치는 다양한 활동들이기 때문이다.¹⁾

1. 전통적인 선교관

전통적으로 선교는 전도로 이해되었다. 특히 해외전도가 선교라는 의미로 별다

1) Arthur F. Glasser and Donald A. McGavran, Contemporary Theologies on Mission (Michigan: Baker Book House, 1983), 16.

른 논란 없이 이어져 왔다. 다만 근대 프로테스탄트 선교의 운동을 촉진시킨 독일 경건주의 중심의 선교운동이나 모라비안 선교가 교파의식이나 정기적인 토착교회 설립과 발전에 관심이 결여된 채 복음전파와 인간구원과 서구 교회형태의 피선교지 이식 등이 주요 선교에 활동이었다면, 19세기 중반 이후에는 교회들이 선교운동에 관여하면서 헨리 벤(Henry Venn)이나 루퍼스 앤더슨(Rufus Anderson) 등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 중심의 선교관을 정립한 것이 변화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른바 삼자원리로서 자립, 자치, 자력으로 전도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을 교회의 목표로 삼은 것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로 연결되는 전통적인 선교관이었다. 20세기 전반기의 선교관도 대체로 선교는 전도를 뜻하며 자립, 자치, 자력으로 전도하는 현지교회를 세우는 것이 선교의 최대 당면 과제였다. 1910년 에든버러 선교대회에서도 각 지역의 복음화는 그 지역교회의 책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지교회를 교회답게 형성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1928년 예루살렘대회에서도 전도는 현지교회가 주도적인 책임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해외선교운동에 교회 중심적인 개념을 강하게 부각시켰다. 1938년 탐바람 선교대회도 교회 중심적인 대회였다. 교회의 임무는 마태복음 28장 19-20절에 기록된 이른바 지상명령의 수행으로 보고 세계 복음화는 세계 속에 흩어져 있는 지역 교회들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지 교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고 전도를 통한 더 많은 교회를 세워야 되는 선교는 아직도 미완성의 사명으로 생각하였다.

전통적인 입장에서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취해지는 모든 방법과 활동들이 선교라는 개념에 포함된다. 그래서 그 당시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복음 전도였고 이러한 목표수행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들이 이용되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선교 신학적 논의들이 대두되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은 요한네스 호켄다이크(Johannes Hoekendijk)였다. 그는 선교를 “선포(proclamation), 친교(fellowship), 봉사(service)”²⁾라고 정의함으로써 복음전도를 최고의 목표에서 세 가지 동등한 중요성을 띤 목표들 가운데 하나로 만들어 놓았다. 친교나 봉사가 복음전도라는 목표를 위한 수단인 자리에서 목표 자체가 되는 자리로 탈바꿈한 것이다.

2) Ibid., 17.

이러한 선교에 대한 다양한 이해들에서 출발하여 고전적이고 성서적인 선교의 정의에 대하여 논하려고 한다. 우선 도날드 맥가브란(Donald A. McGavran)은 선교를 이렇게 정의한다.

선교란 예수그리스도에게 전혀 충성을 바치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문화적 장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그들을 일깨워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와 구주로 받아들여 그의 교회에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전도와 정의 실현을 위해서 일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일하는 것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선교의 폭은 매우 넓어진다. 단순히 복음 전파만이 아니라 교육, 문서활동, 사회활동 등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땅위에서 이루실 뜻의 성취를 위한 것이라면 모두 선교활동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중심은 어디까지나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르며 그의 교회의 일원이 되어 일하게 하는 데 있다.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의 삶의 본을 따라 살도록 하는 확고한 뜻이 없는 활동은 어떤 것이라도 선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을 거부하게 된다. 이러한 선교를 통전적 선교(holistic mission)라고 부르려고 한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사람의 구원을 말할 때 영혼의 구원이라는 말보다는 전인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며, 영혼과 육체 전체의 구원에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사회에 관심을 가질 때에도 사회 전반에 걸쳐서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이런 선교가 행해질 때 우리 사회나 인간사 전반에 걸친 개선과 발전은 당연한 귀결로 도래될 것이다.³⁾

2. 사회구원에 대한 관심

1957년 12월 28일 아프리카 가나에서 개최된 제6차 세계선교대회에서 선교는 하나님의 활동에 동참하는 것이며 그의 선교를 그와 함께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전세계가 선교의 일터이며 선교는 교회로부터 세계로 나가는 형식으로 이해되었다.

1961년 뉴델리에서 소집된 대회에서는 골로새서 1장 15-20절과 에베소서 1장 10

3) 이광순, 이용원, 선교학 개론 (재판;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18-20.

절의 성경구절에 관심을 쏟았던 대회로 '만물'이라는 말에 대한 주목과 강조가 특이하다. 선교도 만물을 지배하시는 그리스도의 주권성을 강조하여 교회, 역사, 자연 만물 전체에 대한 그리스도의 지배와 통치의 필요성을 상기시켰다. 요한네스 블로우(Johannes Blouw)의 견해가 선교에 대한 성경적인 기초를 밝히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그는 "세상에 보냄을 받지 않는 교회란 있을 수 없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선교 이외의 선교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우주적 기독교론으로 지칭되는 이 선교관은 인간구원이 하나님의 창조활동과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보고(롬 1:19-22) 그리스도의 구속은 모든 인간의 경험과 환경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므로 뉴델리대회는 기독교 선교가 범세계적이며 모든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전세계에 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같은 복음전파는 반드시 평화와 사회정의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는 것을 배제해서는 안되며 우리 시대의 현존하는 갈등들 속에서 화해를 도모하며 겸허하게 봉사하는 형태로 수행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같은 형태의 사역은 자연스럽게 평신도의 사역이 중요시되었다. 점차적으로 유동성이 많은 사회생활에서 오는 변화에 맞추어 교회는 지교회나 교구 속에 사역을 한정해서는 선교적인 책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평신도들의 자기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신력과 설득력이 요청되고 그 같은 필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봉사(*diakonia*)가 교회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강조되었다.

교회 중심의 전도에서 세계 중심의 선교로 지향하는 과정에서 후자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나타난 것이 읍살라 대회 때였다. 그 당시 미국에서는 케네디의 집권과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 목사의 민권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때였다. 그러나 케네디 형제의 암살과 킹 목사의 암살과 월남전의 악화 등으로 삽시간에 혼란기에 접어들면서 청년세대와 지성인들이 반기독교적이고 반교회적인 경향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도전에 직면한 교회는 읍살라 대회에서 강력한 사회정의와 인간성 회복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읍살라 대회는 선교의 목표를 인간화로 삼았다. 다른 시대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로 향하는 일보다 인간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구속활동의 목표라고 할 수 있으나 그때는 하나님이 인간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선교의 핵심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오늘의 근본적인 문제는 진정한 인간에 대한

문제이며 선교활동의 주요 관심은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하고 그것이 선교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화의 모델로 나사렛 예수가 제시되고 예수 같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로 이해되었다.

웁살라와 방콕 대회 이후에 두드러진 현상은 전도라는 말에 전도와 사회행동을 함께 넣어 쓰게 된 것이다. 사회봉사가 없는 전도적 노력은 부도덕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사회봉사가 없는 전도는 수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여기서 이른 바 통전적 선교이라는 개념이 꽃피게 된 것이다.

3. 통전적 선교

통전적 선교란 인간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한다. 전도란 인간 구원만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인간이 처한 상황과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가 선교적인 과제이다. 전통적인 전도가 지나치게 서구문화와 전통에 근거하여 개인 구원과 영혼구원이라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 반면, 사회적 관심과 실천력이 약하기 때문에 보완이 불가피한 것이다.

1974년 로잔 대회에서 존 스토틀(John Stott)는 전통적인 선교관을 확대시켜 선교는 전도와 사회봉사를 합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그 자체가 전도와 사회적인 책임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왜곡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음 전도와 사회적인 활동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살펴보면 다음의 세 가지가 동등하게 타당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사회 활동은 복음 전도의 결과이다. 즉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사람을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는 수단이며, 또 그들의 새로운 삶은 다른 사람을 봉사하는 가운데 나타난다. 바울은 “믿음은 사랑을 통해 역사한다”(갈 5:6)고, 야고보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약 2:8)고, 또 요한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빈핍한 형제들과 자매들을 섬기는 가운데 흘러 넘칠 것이라”(요일 3:16-18)고 하였다. 이것은 기독교적 회심과 헌신과 봉사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보다 더 나아갈 수 있다. 사회적 책임은 복음전도의 결과 그 이상이다. 사회적 책임은 복음전도의 주요 목표들 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 있는 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자신을 주셨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엡 2:10)고 하였다. 선행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선행은 우리의 구원의 필수적인 증거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동정적인 봉사가 복음전도 또는 회심의 자동적인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복음전도와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책임도 교회의 가르치는 사역에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로, 사회활동은 복음전도에 접촉점인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사회활동은 편견과 의심을 깨뜨리고, 닫힌 문을 열 수 있으며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할 수 있다. 예수님 자신은 때때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자비의 행위를 수행하였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접촉점인 다리 역할이 되었다.

셋째로, 사회활동은 복음전도의 결과와 목표로서 복음전도를 뒤따르고 복음전도의 접촉점인 다리로서 복음전도에 앞설 뿐만 아니라, 또한 복음 전도의 동반자이다. 그것들은 바지의 두 가랑이나 새의 두 날개와 같은 것이다. 이 동반 관계는 복음을 선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던 예수님의 공적 사역 가운데 분명히 나타났다. 그의 사역에는 선포와 봉사가 병행되었다. 그의 말씀은 그의 행위를 설명하였으며 그의 행위는 그의 말씀을 극화하였다. 양자는 사람들에게 대한 그의 동정의 표현이었으며 양자는 사람들에게 대한 우리의 표현이어야 한다. 양자는 또한 예수님의 주권에서 나온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를 선포하고 봉사하도록 세상으로 보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려면, 우리는 빈핍한 자들을 돌보는 가운데 그의 사랑을 나타내어야만 한다. 진실로 선포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은 매우 밀접해서 그것들은 실제로는 중복된다. 이것은 그것들이 서로 동일시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도는 사회적인 책임이 아니며 사회적인 책임이 복음 전도는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각은 상대방을 포함한다.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선포하는 것(복음 전도)은 사회적인 의미들을 갖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죄는 물론 사회적인 죄도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옛 것에 도전하는 새 사회 가운데서 의와 평화의 새로운 삶을 살 것을 요청하기

때문이다. 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는 것(사회적 책임)은 복음 전도의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사랑의 선행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진다면 복음의 시위요, 추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는 그것이 일차적으로 사회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사회적인 측면을 갖고 있으며, 반면에 사회적인 책임은 그것이 일차적으로 복음전도의 의도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복음 전도의 측면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와 사회적인 책임은 상호 구별되면서도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에 복종하는 데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관련이 있다.⁴⁾ 이렇게 복음전도와 사회적인 책임이 함께 동반되는 관계를 통전적인 선교라고 볼 수 있다.

어떻든 교회의 본질은 선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적이어야 한다. 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개방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한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냉대를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회적인 책임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책임은 사회적인 봉사로서 나타나야 한다. 지역사회 내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찾고 지역 사회가 교회에 요구하는 것을 파악하여 지역 정서와 상황에 맞는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선교적인 접촉점을 찾는 것은 지역사회를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교회가 이런 사회적인 책임인 사회적인 봉사를 잘 감당할 때 교회와 지역사회의 장벽을 허물어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교회가 지역사회에 파고 들어가는 갈 수 있는 접촉점 개발이 필요하다.

제 2 절 선교에 있어서의 접촉점인 사회봉사의 중요성에 대한 성경적 근거

1. 성서신학적인 근거

가. 사회봉사의 구약적 근거

(1) 어원적 고찰

구약성서에서 사회봉사에 대한 어원적인 고찰을 하기에 앞서서 “사회는 무엇이며, 사회봉사는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된다. 민중서관에서 펴낸 국어대사전에서 사회란 “모든 형태의 인간의 집단적 생활, 즉 자연적으로 발생한 집단과 인위적으로 특정한 이해와 목적을 갖고 만들어지는 것” 이라고 했다. 그리고 사회봉

4) John Stott,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 한화룡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86), 28-34.

사란 말의 뜻은 “사회 복지에 이바지하기 위해 힘쓰는 행위”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서로 협력하여 공동생활을 하는 인류의 집단을 구성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사회봉사라고 말할 수 있다.

아무튼 구약성서 히브리말에서 오늘 우리가 보통 쓰는 ‘사회’라는 말은 빌헬름 제니우스(Wilhelm Gesenius)가 펴낸 구약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 독일어 ‘Gemeinschaft’에 해당되는 히브리말로 ‘קָהָל’은 시편 50장 18절, 사무엘하 20장 1절, 열왕기상 12장 16절, 역대하 10장 16절, 역대상 12장 17절, 욥기 34장 8절 등을 통해서 특별한 뜻을 알 수 있다. 우선 구약성서의 이스라엘이란 독특한 형태의 사람들의 모임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이스라엘은 그 초기 출발이 혈연적이거나 지연적인 면에서라기보다는 신앙적이고 종교 의식적인 면에서 한데 묶여진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기에,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결국 신앙의 공동체 안의 일들이다. 그러므로 구약성서에서 이스라엘 사회에 관해서 알려주는 것은 신약 이후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라고 하는, 오늘날 기독교회 자체에 적용된다. 그리하여 오늘날 기독교회가 비기독교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사회를 섬기는 문제를 생각하려고 할 때 구약성서에서 이스라엘 사회에 대해 알려주는 것을 그대로 오늘에 적용하기는 힘들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사회봉사의 뿌리를 구약성서에서 찾는 길이 전혀 막힌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의 출발이 어떠했든지 간에,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회도 한 왕정국가 사회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그에 따라 종교적인 것이 그 구성원이 된 사람들의 생활의 모든 면을 결정하던 그 전과는 달리 사회생활의 분야가 차차 비종교적인 면과 좁은 의미의 종교적인 면으로 나누어지게 되어 종교에서부터 어느 정도 독립한 사회라는 실체를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리 흔하지는 않지만 구약성서에서는 이스라엘 이외의 나라나 이방 사람들에 관한 내용들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바로 오늘 기독교의 사회봉사에 연관시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편으로는 구약의 교회와 구분되는 개념으로서의 사회라는 실체가 있을 수 없다는 제한을 인식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사회, 특히 왕정 성립 이후의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과 이스라엘이 이른 바 이방세계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를 알려주는 구약성서의 부분에서 오늘날 비기독교인들도 함께 사는 사회를 기독교가 어떻게 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원칙을 찾아 낼 수 있으리라 기대하게 된다.

(2) 사회에 비길 만한 구약성서의 실체들

앞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라는 일반개념에 알맞은 구약 히브리말은 찾기가 힘들지만 그러한 사회의 여러 가지 실체들은 구약성서에도 있고 그것들을 가리키는 히브리말들도 여러 가지다.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들을 살펴 보겠다.

우선 창세기에 나오는 이른 바 '족장들'을 중심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것이 일단은 가족공동체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지만 족장들의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들과 그들의 부리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이 접촉하던 이웃 사람들까지 포함하기에 그 나름대로 하나의 작은 사회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족장들의 사회'는 아직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공동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의 사회로서 족장들과 그 직계가족들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하는 것이어서 기독교의 사회봉사의 기본정신을 찾는 데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작은 규모의 사회를 구약 히브리말로로는 'אבית אבי' 즉 '아무개의 아버지의 집'(창 12:1)이라고 한다. 이보다 조금 더 큰 것을 구약 히브리말로로는 'משפחה', 이를 개역성서에는 '족속'으로 옮기고 있다(창 24:38). 이는 넓은 의미에서의 씨족(사회)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종족'(사회), '부족'(사회)으로 볼 수 있는 사회가 있는데 이를 구약 히브리 말로는 보통 'שבט' (삿 18:19) 또는 'שטף'(수 7:1)라고 한다.⁵⁾ 개역성경에는 '지파'로 옮기고 있다.

출애굽기에 이르러 우리는 야훼 신앙을 중심으로 한데 뭉친 사람들의 모임인 이스라엘을 만나게 된다. 이 사람들의 모임은 고유명사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말고도 'שבט בנין' 즉 '야훼의 백성'이라고도 불린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בן'(수 5:8)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례를 받은 계약적인 신분으로 인해서 불려진 이름이다. 이방 나라는 보통 'אֲרָם', 즉 '열방, 이방'(렘 9:25)이라고 한다. 규

5) Roland De Vaux, 구약시대의 생활풍속, 이양구 역 (서울: 기독교서회, 1983), 26.

척상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을 복수형태인 ‘고임’으로 부르고 있다.⁶⁾ 이 낱말은 문맥에 따라서 오늘날의 국제사회를 뜻하기도 한다.

(3) 구약 히브리말에 나타나는 ‘봉사’의 뜻

‘사회’의 경우와는 달리 ‘봉사’에 해당되는 개념은 구약성서에도 여럿 찾아볼 수 있다. ‘봉사’란 말을 ‘섬김’이란 순 우리말로 바꿀 수 있다면 이는 다시 히브리말로 ‘עָבַד’가 된다. 이 ‘עָבַד’에서 섬기는 사람, 즉 종을 뜻하는 ‘עָבַד’가 나온다. 재미있는 것은, 구약성서에서 ‘섬기다’는 동사는 271번 나오는데 비해 ‘종’이라는 명사는 거의 세 배나 많은 800번이 나온다는 점이다. 또한 ‘종’이란 명사는 거의 세 번에 한번 꼴로 ‘하나님의 종’ 또는 ‘야훼의 종’이란 표현에 쓰인다.

‘עָבַד’를 우리가 ‘섬기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때 이는 구약에서 어떤 한 사람이나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한 무리의 사람들을 위해 정해진 기간이나 한평생 일함을 뜻한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이 낱말이 때로 구약에서 한 사람의 사람됨에 속하는 것의 하나로서 ‘일하다’를 뜻한다는 점이다. 일례로 창세기 2장 5절에서 ‘땅을 갈 사람’이라고 할 때 그 ‘간다’는 동사를 들 수 있다. 그러고 보면 섬김은 곧 사람이 사회 관계 가운데서 사는 한, 싫든 좋든 하게 되는 활동이요,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구약 히브리말에 ‘봉사’, ‘섬김’을 뜻하는 낱말들이 여럿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쓰이는 경우들이 구약성서의 사회봉사를 밝히는 데는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봉사의 문제를 실제적인 내용에 따라서 구약성서에서 찾아볼 수밖에 없다.

(4)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섬겼는가?

구약성서에 나타난 사회봉사를 이해하려면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선교사상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얼핏보기에 구약시대는 선교 사상의 기초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구약의 많은 부분들이 여러 이방 민족들에 대한 피나는 전쟁과 멸절에 대하여 언

6) R. Laird Harris, Gleason L. Archer, Bruce K. Waltke,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Chicago: The Moody Bible Institute, 1980), "Nation."

급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에 대한 자비나 복음에 대한 축복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 같다. 모든 이방세계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구원을 계시하는 지역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에 대한 끊임없는 유혹과 위협의 대상으로 나타나 있다. 이스라엘을 이방종교들에 의해 쉽게 유혹을 받게 되었으며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의 자기들의 우상을 열렬히 경배한 사실은 계속적인 적대적 태도와 분리의 장벽을 초래케 했다.

그러나 구약성서를 충분히 연구하면 이방나라의 장래가 중요한 관심사임이 분명하다. 구약성서가 얼마나 자주 이방인들의 장래에 대하여 논의하며 장차 그들의 소유가 될 구원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보이는가 하는 것은 놀랄 만한 사실이다. 참으로 성서는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온 세상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 세계에 미치는 것으로 전개되고 있다.⁷⁾

이스라엘이 아닌 낯선 사람들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는 적대적이고 불친절했으리라고 일방적으로 생각하기가 쉽다. 그리고 그같은 생각의 근거를 구약성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렇지만 천재지변이나 정치, 경제, 문화적인 박해 같은 인위적으로 빚어진 불행 때문에 고향을 떠나 아무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던 사람들만큼은 특별히 따뜻이 맞아주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살게 해 준다는 사실을 구약성서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회에 정착하면 그들을 가리켜 히브리말로 보통 ‘궤’이라고 한다. 우리 개역성경에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레 19:34)이나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레 16:29)이라는 식으로 옮기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을 잘 돌보아야 하는 까닭은 지난날 이스라엘 조상들이 바로 이같은 떠돌이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⁸⁾ 이스라엘 사회는 이러한 떠돌이 나그네들을 받아들인 다음 제한된 범위 안에서이지만 그들에게 상당한 권리를 인정해 주었다. 그렇지만 이들은 일반적으로 농토를 소유할 수 없고 가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가 그들을 고아나 과부에게 하듯이 그들을 도와준 것으로 여겨진다.⁹⁾

이같은 섬김은 결국 이스라엘 사회를 찾아온 이방 사람들에게 대한 것인 만큼 소극적인 섬김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실수로

7) J. H. Bavinck, 선교학 개론, 전호진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8), 32-38.

8) 창 23:4; 출 13:3; 19:34; 22:2, 20; 23:9; 신 10:9.

9) Roland De Vaux, 구약시대의 생활풍습, 139-142.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도피성 제도에 상응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족장들이 이야기가 나오는 창세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대를 이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 그들과 그들 가족들뿐 아니라 이방세계에도 복을 주셨음을 읽을 수 있다. 이는 곧 족장의 역사를 기록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학적 성향을 드러내어 주는 것이므로 이스라엘 사회 안에 이방세계에 대한 이스라엘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이방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진 그것이 오늘날 적극적인 봉사의 개념에는 미치지 않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관심이 대상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먼저 우리는 세상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창세기 12장 3절의 축복의 선포와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인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덕을 본 것에서 더 나아가서는¹⁰⁾ 그 방계 자손인 이스라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에서 이방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특히 주의 깊게 볼 것은 창세기 16장과 21장에 실린 하갈의 이야기이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서 여종 노릇을 하다가 둘째 부인이 된 매굽 여인 하갈이 당시의 비인간적인 풍습 때문에 이러한 갈등을 견디다 못해 광야로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게 되는 이 두 이야기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나님은 하갈의 하나님도 되시는 분으로 나타난다. 이같은 기록의 이면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사는 이방인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깨우치려는 뜻을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회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곧 앞서 말한 떠돌이 나그네들을 잘 대하려는 정신과 맞아떨어지는 것이기에 넓은 의미에서 비록 그 수가 적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하겠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신들의 특별한 지위에 집착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 선교의 필요성을 깨우치려는 이야기가 담긴 요나서말고도 이방세계에 대한 이스라엘의 관심을 드러내주는 본문이 예언서 가운데 더러 있다.

우선 이른바 첫 번째 '야훼의 종의 노래'인 이사야 42장 앞부분은 이 '야훼의 종'을 '이방에 공의를 베풀고, 세상에 공의를 세울 사람'으로 소개하고 마침내는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의 활동의 영역이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이방세

10) 창 30:27; 41:37-48; 47:13-26.

계까지 미침을 확실히 보여준다. 이렇게 볼 때 야훼의 종은 구약학자들 사이에는 그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많지만 그가 누구인지 간에 이방세계도 섬기는 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포로기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세계에도 관심을 두시는 분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회에 있었음을 암시한다.

다음으로 예레미야 48장 31-39절에서 우리는 이방나라 모압이 제 잘못으로 벌을 받아 겪는 괴로움에 가슴 아파하며 울부짖는 이스라엘 야훼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같은 본문이 예언서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멸망을 두고 울부짖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예레미야 12장 7-12절과 여러 가지 점에서 비슷한 이 단락은 그 배후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웃나라 사람들이 당한 고난을 보고서도 안타까워 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진 유대인들이 있었음을 생각하게 한다.

(5) 이스라엘 사회 안의 봉사

이스라엘 사회 안의 봉사를 말할 때 우리는 먼저 왕정이 시작된 다음 본격적으로 나타나 활동한 예언자들이 종교의식과 일상생활이 서로 맞아 들어가야 함을 거듭 강력하게 외친 사실을 생각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곧 이스라엘 사회 안에 봉사의 기본 바탕을 가르쳐준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한 본문의 보기로 아모스 5장 21-24절, 이사야 1장 10-17절, 예레미야 7장 1-15절을 들 수 있다. 흔히 학자들은 예언자들이 이런 본문들에서 종교의 의식을 비판하고 있다고 풀이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언자들이 사회 비판이라는 관점에서 이런 본문을 풀이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예언자들이 문제를 삼고있는 것은 종교의식이 나 사회현상 자체만은 아니다. 일상생활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종교의식은 제아무리 성대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님을 말한 것뿐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바르지 못하고서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를 수 없다는 것이다. 곧 종교의식 비판과 사회의식 비판은 서로 떼어놓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참된 일상생활이 뒤따르는 예배야말로 참된 예배임을 예언자들이 주장

한 것인데, 것처럼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생활을 그들은 '정의로운 삶'이라고 한다.¹¹⁾ 이는 곧 사회생활에서 사람을 사람으로 올바르게 섬기는 삶을 가리키는데, 이 경우 '정의'란 모든 삶에 같은 몫을 안겨주는 배분적 정의가 아니라 사회의 약자들의 약함을 채워주고 강하게 해주는 정의이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이스라엘 사회 안의 섬김은 한 마디로 약자를 위한 섬김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점을 이사야는 이사야 1장 17절에서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하였으며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7장 6절에 이와 비슷하게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한 사회에 하나님의 평화, 곧 '모든 면에서 이지러짐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샬롬'이 이루어지려면 그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지킬 힘이 없거나 약한 자들을 잘 섬기고 그들 편을 들어 그들을 치켜세워 주어야 함을 뜻한다. 그러한 사람들의 예로 떠돌이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에 정착한 사람들 말고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가 없는 어린이들과 남편이 없는 여인들과 특별한 잘못이 없이 억울하게 억눌리며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예로 든 것이다.

더욱이 예언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돕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 아버지가 없다고 해서 어린이의 권리를 누군가가 마음대로 짓밟을 때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남편이 없다고 해서 홀어머니의 권리를 빼앗거나 빼앗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재판관을 걸어서라도 그 권리를 다시 찾아주거나 잃지 않도록 도와주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죄 없이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사회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힘이 없거나 약한 사람을 잘 섬기도록 한 것은 그냥 예언자들이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제도화된 것이기도 하다. 그 같은 법이 특히 출애굽기 20장 24절-23장 12절에 한데 모여져 있는데 24장 7절을 보통 '계약의 책'이라고 부른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의 법들이, 또 이미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법들과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법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의해 한데 모아져 있는데 그 근본 흐름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 그리하여 그 첫 부분인 21장 2-11절이 곧 바로 종들의 문제를 다루는가 하면, 또한 22장

11) 사 1:17; 렘 7:5; 암 5:24.

2-20절까지는 본격적인 떠돌이 나그네들, 과부, 고아,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볼 것을 정하고 있다. 특히 출애굽기 22장 23절은 그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분으로 야훼를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법이나 가르침의 내용들을 간추려서 본다면, 종에게는 될 수 있는 대로 자유를 주되 그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보장해 주고 그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인간적인 대접을 하고(출 21:2-11), 떠돌이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는 억울하게 짓누르거나 해치지 말고(출 22:20-24), 그들이 법정에서 서게 되었을 때에는 힘이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고(사 1:17), 가난한 사람들을 고리채나 전당제도로 괴롭히지 말고(출 22:25-27), 낱곡팔이꾼들의 품삯은 날이 저물기 전에 주라(신 24:14-15; 레 19:34)는 것이다. 이는 법률적, 경제적, 문화적, 곧 인간생활 모든 면에 힘이 없거나 약한 사람을 잘 섬기는 것을 말한다. 실제 이스라엘 사회 공동체가 얼마나 실천했는지는 의문이지만 이런 봉사적 삶을 지향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제까지 우리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이스라엘 사회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애써 왔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내용을 넘어서서 보다 포괄적으로 이스라엘의 사회봉사를 한데 묶을 수 있는 표현을 우리는 예언자들이 선포한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사야 1장 1절에 “악을 미워하며 선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약성서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윤리적으로 착하고 나쁜 것을 뜻하는 개념이 아니라 사람의 삶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뜻한다는 것이다. 곧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사람의 삶을 넉넉하게, 기쁨지게, 복되게, 낮게 하는 것은 선이고 사람의 삶을 움색하게, 딱딱하게, 나쁘게, 못되게 하고 값아먹는 것은 악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사회봉사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들은 결국 오늘 우리가 기독교 사회봉사를 말할 때 먼저 교회와 사회의 연대적인 접촉점을 새롭게 발견해야 됨을 가르쳐 준다. 그런 면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구약성서의 사회봉사는 이스라엘과 이방세계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한 세상을 이룸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지난 날 이스라엘만 아는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세계를 배척했듯이 오늘 우리 기독교도 기독교만을 알고 교회밖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한다면 교회가 사회와의 연대적인 접촉점을 찾을 수가 없다. 우리는 구약성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온 낯선 이들과 이스라엘 바깥 세계에 사는 이웃들의 삶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 사회적인 연대감을 찾아내고 개발하여 하나님의 선교의 울타리 안으로 끌어 올 수 있어야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하여 전세계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구약성서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세계가 똑같은 하나의 공동운명체임을 깨닫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스라엘의 섬김을 통해 온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참된 세계로 바뀐다는 꿈을 갖고 있었다.

둘째, 히브리 사람들은 원래 자신을 현대적인 의미의 개인으로 파악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개인으로 의식하지 않았다. 개인은 전체의 한 구성원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전체의 공동체적인 개념은 그것이 씨족이든 민족이든 간에 '큰 나' 또는 '공동체적인 인격'으로서 늘 행동하는 주체였다. 이는 한 민족을 히브리말에서는 단수로 나타낸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이처럼 '나는 곧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은 나'라는 의식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을 지배하는 것이었는데 나중에 왕정이 들어서면서부터 왕 같은 개인이 두드러진 역할을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사회 전체는 개개인들이 공동체에 대해 느끼는 강력한 연대감과 그에 따른 성실한 생활로 유지된다. 그러던 것이 왕정이 끝날 무렵부터 나타나는 개인주의적 성향이포로 후기에 이르러서는 상당히 발전되어 마침내는 명목상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참 이스라엘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고난받는 의인들의 무리를 이루게 되어 하나라는 공동체성은 깨뜨려지고 만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회를 유지하고 지탱했던 것은 구성원 사이에 강력한 연대감이었다. 이러한 공동체의 기초 위에서는 사회의 문제는 곧 개인의 문제요, 개인의 문제는 곧 사회의 문제로 여겼기에, 사회봉사라는 의식이 없어도 실제적인 사회봉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곧 오늘 우리 기독교의 사회봉사에 있어서 교회와 사회가 하나라는 생각이 전제되어야 함을 뜻한다. 그리하여 '교회와 사회'라는 표현보다는 '사회 안의 교회'라는 표현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곧 신약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도 일맥 상통한다. 기독교는 세상과 따로

존재하는 종교가 아니라 세상 안의 종교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는 더이상 선교의 대상으로만 볼 수 없다. 사회는 교회적 선교의 현장이다.

셋째, 우리교회가 위치한 농촌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지역 사람들과 하나 되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인가가 교회와 사회의 연대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농촌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소외된 곳이기에 교회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교회와 사회가 연대할 수 있는 접촉점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기독교는 사회적인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의 삶을 좋게 만드는 일들을 찾아 해 나감으로써 보다 넓고 적극적인 의미의 사회봉사를 할 수 있음을 구약성서에서 배울 수 있다.

결론적으로 히브리말 'צדק'는 '일하다', '섬기다'라는 뜻이 있듯이 교회가 지역 사회를 섬기는 것은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반드시 지역사회와 연대할 수 있는 접촉점을 개발하여 지역 사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될 때 지역 주민들에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 줄 수가 있고 지역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인정받는 교회로 성장하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선교적인 차원에서 이웃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라는 봉사적이고 선교적인 준비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필요성을 빨리 인식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사회봉사의 신약적 근거

기독교 사회봉사는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회복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피조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한다. 신약성서에도 구약성서와 마찬가지로 기독교 사회봉사의 실천을 일관성 있게 강조하고 있다. 신약성서에 따르면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 고통받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인간의 타락은 인간의 역사에 고통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지만 반면에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신약성서에서의 사회봉사의 객체는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 과부, 자비를 베풀어야 할 자 등으로 구약성서와 일관되게 소외되고 열악한 처지에서 고통을 받는 자들이

다.12)

(1) 마태복음

믿는 사람들이 실천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 이웃의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마태복음에서는 특히 병든 자와 가난한 자, 주린 자, 나그네, 헐벗은 자, 옥에 갇힌 자와 같은 지극히 작은 자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더불어 영생의 조건임을 명시해 주고 있다. 또한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어떠한 자세로 실천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13)

(2) 마가복음

마가복음에서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고 더불어 가난한 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가르치시고, 예수께서 몸소 굶주린 무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먹이셨으며, 병든 자들에 대한 치유의 사역을 행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예수 자신이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천명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종의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임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14)

(3) 누가복음

예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천명하신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 굶주린 자에게 천국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자기의 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 주는 것이며 이는 심판의 날 영생을 얻는 조건 가운데 하나임을 말씀하신다. 또한 자비의 구체적인 모습을 가르쳐 주시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행악자에게도 자비를 베풀라고 명령하신다.15)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동시에 이웃 사랑을 실천할 것을 가르치고 계신다. 보다 구체적으로 성서는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영생

12) 김기원, 기독교사회복지론 (서울: 대학출판사, 1998), 72.

13) 마 6:1-4; 8:16-17; 9:35; 10:1-8; 11:5; 25:31-46.

14) 막 1:34, 40-42; 10:17-27, 43-45.

15) 눅 3:7-17; 4:18-19; 6:17-21, 30-36.

을 얻을 수 있는지를 선포하고 있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사가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묻자 예수께서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를 바라보고 가서 자비를 베푸는 자가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셨다.

(4) 요한복음

요한복음에서도 예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께서 시행하신다고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해야 한다. 여기서도 예수의 치유의 사역이 나타나고 심판의 날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임을 가르치고 계신다.¹⁶⁾

(5) 사도행전

사도행전에 따르면 사도들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은 믿는 무리들이 서로 연대하고 친교하며 자기 희생과 너그러움을 통해서 빈민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도들이 말씀에 더욱 정진하기 위해 구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요원을 선출했는데 이로 인해 집사제도가 탄생하게 된다. 집사는 구제 전담요원이요, 오늘날 기독교의 사회봉사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¹⁷⁾

(6) 로마서

로마서는 기독교 사회봉사를 행함에 있어 실제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직분을 주시고 서로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에 충실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서로 하나가 되어 이루어지길 원하고 계신다. 믿음의 형제들인 동료들을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길 서로 먼저 하며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므로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히 행하여야 한다(롬

16) 요 5:2-8; 5:24-29; 12:1-8; 13:34-35; 15:12-24.

17) 행 2:32-35; 2:44-47; 6:1-7.

12:3-13).

(7) 고린도전서

기독교 사회봉사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가운데 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한 몸에서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여러 지체를 주시었고 각 지체는 자신의 일에 충실하면서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각 지체는 각 지체가 행해야 할 기능을 연마하고 발전시켜 각자의 전문적인 영역을 개발해 나아가야 한다. 기독교 사회봉사가 주어진 은사에 보다 더 충실하고 전문적으로 행해질 때 하나님의 뜻은 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 땅에 실현될 것이다(고전 12:18-29).

(8) 고린도후서

하나님께 억지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물질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모든 일에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사 더욱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 우리의 풍성한 연보는 부족한 성도들을 섬기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고후 9:8-12).

(9) 빌립보서

기독교의 사회봉사는 겸손한 마음으로 행해야만 한다. 예수는 자기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고 종의 본체를 입으시고 인간들 사이에 들어오신 분이시다. 성육신 사건의 핵심은 예수는 인간들 가운데 오셔서 인간을 섬김으로 인간을 구속하여 참된 인간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예수는 자기를 비우신 분으로 인간의 모습을 입어 인간들과 하나가 되신 분이다. 예수는 종으로 섬기는 삶을 사셨다. 예수의 십자가의 삶은 섬기는 삶의 완성이다. 인간들 가운데서 인간을 섬기는 삶을 통하여 타락한 인간의 참 형상을 회복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갖는 기독교의 사회봉사는 예수의 이런 삶을 실천하는 것이다(빌 2:1-8).

(10) 갈라디아서

바울은 당시 기근과 정치적 억압, 착취로 인해 생겨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보살피 주고 선한 일을 행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놓치지 말고 선을 행하기를 권면하고 있다(갈 2:10; 6:9-10).

(11) 에베소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모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기독교의 사회봉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엡 5:1-2).

이상으로 볼 때 신약성서에서의 교회와 사회의 접촉점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사도들도 이러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본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열심을 다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적으로 세속 가운데서 확장되어 나갈 수가 있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교회내의 어려운 이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고통 당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사랑의 행위를 통하여 세상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

2. 역사신학적 근거

가. 초대교회 사회봉사활동

초대교회의 기독교 사회봉사활동은 이웃사랑과 봉사의 계명을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실천하는 기독교의 복음활동의 하나이다. 이 활동은 초기 기독교공동체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본래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의 부활에 근거를 두고서 예수께서 하나님나라의 완성자로 곧 오실 것을 선포하고 그 사건을 기대하며 살았던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스스로 '가난한 자', '성도' 그리고 'Ekklesia' (모임 또는 교회)라고 불렀다. 이 공동체는 기도하고 서로 권면하고 떡을 떼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모였다. 이 떡을 떼는 데서 공동체의 교제를 위한 기독교인들의 공동식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복음전도에 대한 접촉점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리스도 이후부터 1세기말까지의 기간을 사도시대라고 부른다. 사도시대는 기독교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제를 교회 내에 탄생시켰다. 임시적인 사도, 선지자, 전도자들과 영구적인 장로, 감독, 집사 등과 같은 교회의 직분을 제도화하였다.

사도라 함은 '보내어진 자 또는 사자'의 뜻을 지니고 있다. 열두 사도들과 같이 이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직접 선택받아 복음 전파와 교회조직 및 이적 시행 등의 일들을 개인적으로 위임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특별계시를 받았고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권위를 직접 부여받았으며 모든 시대의 교회에게 영감된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았다.

신약의 선지자들은 현재, 미래 혹은 과거 중 그 어느 것을 다루든지 관계없이 영감받은 진리의 보도자들로 사도 다음의 계층에 속하였다. 이들은 신약의 정경이 형성되고 훈련된 목자들이 나타나기 이전인 2세기 중반까지 교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었다.

전도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설립하였다. 그들의 주요 임무는 주로 죄인을 회개시키는 일과 회중을 모아 그들을 정착 목회자에게 맡겨주는 일이었다. 장로의 직분은 신약에서 감독, 목사, 설교자, 봉사자, 청지기, 및 사자 등으로 다양하게 묘사된다. 목사란 그리스도의 '양 떼의 목자'의 의무를 나타낸다. 감독이란 '하나님의 교회를 쳐야 하는 자'로 장로와 동일한 직분임을 여러 사실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집사는 종, 수종자 혹은 사역자의 의미를 지닌 헬라어 디아코노스(diakonos)에서 나온 말이다. 신약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기부금이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일컬어 집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초대교회는 구제사업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생활과 통합된 결과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믿는 자들에게 어려움이 닥쳤다.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 신자들이 그 지방 아람어를 사용하는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평을 하였다. 그 이유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감정이 상했기 때문이다. 공동체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곱 명의 헬라파 사람들을 집사로 임명함으로써 이 다툼은 해결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초대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은 병행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일과 어려운 이웃을 돌보기 위한 접촉점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집사로 선택하여 구제의 업무를 맡기게 되었는데 사도시대의 문헌에는 집사는 병자, 궁핍한 자, 특별한 과부, 고아, 죄인을 찾아 방문을 하고는 그들의 필요한 것을 감독에게 알리고 그들에게 교회의 구제품을 전달하였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접촉점을 만드는 일이 되었고 이러한 접촉점의 개발을 통하여 보다 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기독교의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일이 되었다.

사도 시대에는 기독교 공동체 정신 아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사도들을 가르쳤다. 사도행전 2장 42-47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2-35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줌이러라”고 하였다.

사도시대로부터 사도 이후 시기에로 이행기에 나타난 교회와 사회를 접촉하는 사회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신약성경에 이미 기록된 대로 제도화라는 특징으로 나타난다. 본래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부과되었던 봉사활동의 사명을 집사들과 여집사들이 전업으로 혹은 부직으로 맡아 하게 된다. 점점 교회 전체가 이 활동에 참여하기 보다는 교회의 감독이 봉사활동을 부여하는 자로 부각됨으로써 이런 경향이 더 짙어지게 된다. 감독이 집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랑의 현장활동을 지도했고 동방에서는 여집사들까지도 지도했다. 봉사활동을 직제로 만든 것은 바로 초기 카톨릭교회 봉사활동의 특징이었다.

콘스탄틴 황제의 기독교 개종 때부터 박해시대에 교회가 하던 사회봉사를 이제

는 기독교적이라고 지칭하는 국가가 담당하겠다고 나서게 된다. 황제는 제국의 모든 사회사업들을 이미 구조화된 조직형태와 함께 자기의 과제로 이양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사실 이때 교회와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해낸 업적은 놀랄 만한 것이었다. 교회는 비록 법적인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인 고통을 줄이고 돌보는 데 지금까지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은 인원과 물질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또한 돈과 노력을 바치는 것이 천국 가는 데 기여하는 일이라고 설교함으로써 더욱 활성화되었다. 행위를 의롭게 한다는 가르침은 사회봉사 사업을 결정적으로 고양시켰고, 마침내는 사회봉사활동이 국가의 모든 사회사업을 그 대상 영역으로 삼는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마틴 폰 투루스(Martin Von Tours)주교나 그레고르(Gregor) 대교황 같은 분들은 헌금은 하나님 앞에 큰 공덕이 된다고 강조함으로써 헌금의 종교적인 의미를 강하게 부여하였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란 개인의 소유를 포기하고 구호와 원조를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하였고, 그렇지 못한 세속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불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구별하였다.¹⁸⁾

가난과 결핍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계속되자 그동안 계속되어 왔던 개별적인 구호활동의 범위를 넘어선 병원이나 빈민 구제원 같은 기관들이 설립되었다. 봉사활동이 전문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것은 제도적 차원에서 발전적 소득이라고는 볼 수 있지만 반면에 이웃과 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구조활동의 폭이 축소된 것은 손실이었다.

당시의 유스티아누스 법전(Codex Justinanus)에는 여러 종류의 거처에 대한 예가 나타난다. 외부인의 숙소, 고아원, 병원, 양로원 등이 그 예이다. 병원은 외래적인 거처로 시작된 것으로 본래 낯선 사람들을 돌보기 위한 시설이었다. 이런 시설들은 주로 여러 자매 형제들의 봉사에 의해 조직적으로 운영되었다. 초기에는 이 시설에 의한 사회 봉사가 불안정했지만, 승려들이 사회봉사활동과 병든 사람을 돌보는 일을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하게 되면서 안정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로마제국이 망하고 제국교회가 해체되기 이전인 5세기 무렵 사회적으로 변화가 많던 시대에 이미 사회봉사활동을 담당하는 승려족이 확실하게 형성되었다. 이들은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18) 김기원, 기독교 사회복지론, 99.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이상으로 볼 때 초대교회시대에는 사회가 교회의 선교의 대상으로서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주는 장으로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교회의 대 사회적인 활동은 폐단을 낳기도 하였지만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잘 감당했다고 볼 수 있다.

나. 중세교회의 사회봉사활동

6세기말에 이르러 유럽에는 그리스 로마 문화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사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중세는 그레고리 1세(Gregorius I, 590-604)가 교황의 자리에 오르게 된 590년부터 시작된다. 당시의 전쟁과 기근은 이탈리아 전역을 휩쓸고 있었다. 대교황이라고 불리는 그레고리 1세는 앵글로색슨족을 위주로 해서 게르만족에 대한 전도를 활발히 전개하여 이들이 카톨릭교로 개종하게 됨에 따라 로마 교황은 동로마 황제에 대해 차츰 독립적인 지위를 얻게 되었다.

세계사적으로 교황제도 수립과 로마교회의 발전에 큰 영향력을 끼친 교황 그레고리우스 대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자신을 종교생활에 헌신하였으며 아버지가 죽은 후 상속된 막대한 재산 가운데 일부만을 자신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는 자선사업에 투자하여, 특히 많은 수도원을 설립하는 데 사용하였다. 그레고리우스는 로마 시내외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내놓고, 또 서방 및 동방교회의 주교와 그의 성직자들에게 호소하여 그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내어 포로들을 구출하고 빈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막대한 금액을 지출했다. 뿐만 아니라 각 주교로 하여금 이와 같은 구호의 목적을 위해서는 교회의 성스러운 기물들을 팔아도 된다고 허락하였다. 596년에는 교황 그레고리가 그의 친구이자 형제 수도사인 아우구스틴(Augustin)을 영국의 앵글로색슨족을 복음화시키기 위하여 파송하기도 하였다.

이 시대에는 공공적 구제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으며 교회가 빈곤자 보호의 유일한 기관이었다. 교구는 특히 그 지역내의 빈곤자를 보호하는 책임이 있었다. 재원은 신자들의 헌금과 영지 수입 및 생산물의 1할을 헌납하는 10분지 1세 등의 수입을 사등분하여 사교비, 승려비, 교회 수리비 그리고 빈민 구제비 등으로 분할 사용하였다. 이 구제비는 교회에서 직접 구제하거나 사원 숙박소의 보호 등에 사용하였다.

이렇게 기독교적인 사회봉사활동은 교회를 중심으로 교구(parish) 단위로 행해졌다. 교구는 하나님의 백성의 일부로서 그 나름의 목사를 가지고 있었다. 교구는 본래 1인의 목사를 중심으로 한 교회의 지역적 관할 단위이다. 교구 내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관할구역 안에서 태어나서, 세례를 받고, 결혼하고, 생활하고, 사망하고, 묻혔다. 그리고 교구세가 생기면서 교회 중심의 순수한 사회봉사활동은 정부의 구빈사업과 결부되어 반관, 반종교적 자선 및 구빈 사업으로 변신하였다.

교구는 원래 이교도의 사회에 살고 있는 기독교신도들로부터 성립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독교가 확장되어 국교로 승인되었으므로 교구와 그 사회는 더욱 더 밀접한 관계가 되었고 교회와 사회를 하나로 묶는 접착점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최초의 교구는 상호 경계를 하고 있던 사람들로 부터 형성된 상호부조의 집단이며 특히 박해시대에는 더욱 그러하였다.

843년 찰스 대제(Charles, The Great)의 서로마제국이 붕괴됨에 따라 통치권은 지방에 분할되어 이것이 근세에까지 계속되었다. 그 당시의 기독교 사회봉사활동으로는 십자군, 수도원, 기사단, 공익전당포, 집단수용시설인 구빈원과 일종의 동업조합인 길드가 있었다.

십자군운동은 잃어버린 성지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르반 2세가 계획한 운동이다. 그는 사람들을 십자군으로 지원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죄를 사면해 주었고, 죄수를 석방하여 가담하게 하였으며, 부채를 탕감해 주었고, 세금을 면제해 주었다. 그러나 이 운동은 성지회복을 위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막을 내리고 말았지만 서유럽 사회에 미친 영향은 대단했다. 십자군 원정을 지원할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봉건 세력들이 많은 땅을 팔았기 때문에 봉건 세력의 기반이 붕괴되었고 따라서 국왕권이 강화되어 중앙집권화가 촉진되었다. 또한 십자군 운동으로 다수의 주민들이 이동하게 되고 대량무역의 상업활동이 발생하게 되어 상업도시의 발달에 자극이 되었다. 이렇게 하여 십자군 운동은 중세 자선사업의 대부분의 동기가 되었다.

기사단은 모두 청빈, 순결, 복종 세 가지 종교적인 서약을 한 사람들이었다. 구호 기사단들은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위해 사회 자선활동을 위해서 종사하게 되었다. 구호기사단의 총본부는 11세기말에 예루살렘에 있는 세례요한에게 헌정된 자선 병원인 '예루살렘의 성 요한 자선병원 수도회 기사단'이었다. 구호 기사단은 구호소를

세웠는데 이 구호소는 병든 자들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지 않으면서 한편으로는 군사적 수도회가 되었다. 이러한 수도원들은 성지 순례자들과 십자군을 위한 구호를 베풀었던 본연의 임무 외에 병자들을 돌보는 일도 맡게 되었다.

중세교회의 사회봉사활동 가운데 가장 특징적이고 건설적인 것은 공익전당포로서, 즉 종교적인 금융시설이다. 이것은 중세 말에 불가피한 경우에 돈을 빌려주었던 자선기관이다. 이자를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그 당시 고리를 탐하는 것은 죄악이라는 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고율의 이자를 요구했다. 이러한 폐단을 교정하려고 하는 계획의 하나로서 적정 이율을 가지고 담보 대부하는 시설이 1198년 프라이징겐(Freisingen)에 설립되었으나 곧 소멸되고 말았다. 15세기 이태리에서는 다수의 공익 전당포가 설립되었다. 15세기 말엽 이탈리아의 프란체스코회 수사들은 경비를 위한 적은 기금만을 제공하게 하는 많은 성공적인 전당포를 세웠다. 공익 전당포의 실제적인 창설자가 되는 프란시스코 교단은 고리에 고통을 받는 영세민을 구제하는 것과 무익한 그리고 불건전한 목적을 위하여 고리업자에게 우둔한 차입을 하여 파산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베르나딘 드 펠트레(Bernardin De Feltre)는 공익전당포의 기초가 되는 3원칙을 제의하였다. 즉 대부한 금액보다 고액인 담보 물건을 기탁할 것, 기한의 지난 후 청구가 없는 담보물의 매각과 입질자에 대한 반환 및 관리비용 지변을 위한 저율의 이자 징수 등이었다. 오늘날 교회가 운영하는 금융기관인 신용조합과 유사한 것이 많다.

중세에 와서 여러 수도원이 생겨남으로 인해 고대교회의 봉사기관이었던 외부인의 숙소, 빈민 수용소, 고아원, 유아원, 양로원 등의 사업을 계승할 수 있었다. 기독교적인 수도원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청빈, 순결, 겸손, 복종을 실천해야 할 기본적인 덕목으로 삼았다. 전도를 목적으로 수행하고 그리스도가 이끄는 삶을 모방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이러한 덕행을 따르는 것이 필요했다.¹⁹⁾ 초기의 수사들은 자기들의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자신들의 노동에 의해 청빈한 삶을 살았다.

구제 기관으로 수도원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봉사'(diakonia)라는 말은 특히 6, 7세기에 수도사들이 물질로 가난한 사람을 조직적으로 돕던 수도원의 이름이었

19) 마 5:3; 6:24; 19:21.

다. 수도원 제도의 규칙 중에는 빈민에 관한 요구 및 빈궁자 구제에 대한 봉사 규정이 있었다. 수도원은 수도원 소유의 토지로부터 수입금, 기부금, 유언에 의한 기부 및 징수금으로 그 비용의 자원을 삼았다. 때때로 수도원에서는 그 입구에 오는 자에게는 누구나 구별 없이 구제를 하였으며 때때로 빈민의 가정을 방문하여 식물을 주기도 하였으며 또한 때때로 사원 숙박소 혹은 구빈원의 유지비로 충당하기도 하였다.

당시에 민중으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수도원은 프란시스(Francis) 수도단이었다. 그들은 사랑과 절대 청빈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며 돌씩 나가서 전도하고 병자를 돌보며 농부들을 도왔다. 그들은 자기들의 설교나 지식보다는 생활로서 본을 보여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였다. 프란시스는 빈곤한 생활을 중시해 빈곤이야말로 그리스도가 세상에 계실 때 생활하시고 교훈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며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 터전이라고 믿어 빈곤을 어머니, 누이라고 부르며 가장 가까운 벗으로 생활하였다. 그들은 고귀한 인격과 신앙, 위대한 사랑과 봉사로 당시 사람들에게 큰 감화를 주었다.

중세 주민들이 누렸던 자유는 근대사회의 시민들이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은 자유는 아니었다. 그들은 상인이나 수공업자들이 단결하여 도시의 지배자인 영주로부터 얻어낸 그들 자신의 자유였다. 시민들은 그들의 획득한 특권적 자유를 그들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확장하기는커녕, 이를 독점하기 위하여 배타적인 조직체를 만들었다. 이것이 곧 길드, 즉 동업조합이었다. 처음에 형성된 것은 오늘날 상공회의소와 같은 상인길드였다. 수공업자들도 처음에는 상인길드에 속하였으나 점차 상업과 수공업의 분화가 뚜렷해지면서 직종별로 수공업길드를 만들어 나갔다. 종교적인 우호단체인 종교길드도 등장하였다.

종교길드는 원래 협동하여 영혼을 구제하는 단체였다. 그들의 합의된 목적은 그 가입자를 위하여 종교적인 공덕을 구하려고 하였다. 처음에는 등불을 켜놓음과 미사를 드리는 것으로 공덕을 구했다. 그리고 그들의 자선적인 행위까지도 종교적인 사업의 일부로서 간주되고 있었다. 구제는 단순히 빈곤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행했던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구제하는 자들이 정신적인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에도 있었다.

아슈레는 종교적 우호단체를 '협동교회'라고 설명하였다. 종교적인 우호 단체는 교회와 똑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체이었으나 각자 단독으로 공덕을 이를 만큼 충분히 부유하지 않는 자에 의하여 설립된 것이다.

종교적인 길드는 초기에는 간소하여 조직적이지 않았으나 후에 이르러 구제의 종교적 공덕에 관한 교의의 영향을 받아 일정한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길드에 속하지 아니하는 개인의 구조는 교회의 시설 혹은 정부기관에 의해 행해지고 있었다.

다. 종교개혁기의 사회봉사활동

루터의 종교개혁사상은 사회봉사 면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면에서 그렇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짐을 덜어주는 면에서 그렇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용기와 자극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여기에서 부담을 덜어주었다는 것은 봉사나 구조의 행위를 하늘나라를 얻기 위한 업적의 사상에서 해방시켰다는 점이다. 루터의 믿음과 사상에 대한 분명한 구별은 믿음에는 확실성을 사랑에는 자유를 회복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로부터 그리스도에게로 돌려져야 할 것과 이웃에게 바쳐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사랑을 통해서 이웃 안에 거한다. 그는 믿음을 통해서 자신을 넘어 하나님께 이르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사랑을 통해서 다시금 자신에게로 돌아온다”고 했다. 루터는 믿음의 열매가 사랑이라고 하면서 행위의 무리한 요구나 법칙성을 경계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나 업적을 보아 의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은총의 말씀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비를 베풀어 복을 주시는 것이라고 했다.

집사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루터는 이들에게 본래적인 사명에만 충실하라고 부탁했다. 즉 집사들의 예배 시에 강단에 올라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으며, 그 대신 물질을 나누어주고, 아픈 사람을 돌아보고 결핍된 자들과 고통 당하는 이들을 찾아보라고 했다. 사회봉사를 직업적으로 담당하는 요원들의 짐을 덜기 위해 루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교회에서 이웃에 대한 도움의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터는 사실상 모든 교회가 사회봉사기관을 설치하고 국가기관의 도움 없이도 봉사의 책임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는 교회의 행정이 사회사업을 독립해서 수행하는 것까지 주장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말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교회는 사회문제를 모두 감당할 인원을 갖고 있지 못하다. 모

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날까지 국가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기독교적인 귀족층들에게 보내는 글에서 모든 지역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귀족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일을 막고, 근원적으로 구결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충고했다.

사회문제의 책임을 원칙적으로 정부에다 지우고 있는 루터의 생각을 두 가지 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종교개혁자로서 교회의 부담을 덜어주는 면이다. 교회는 모든 사회문제를 책임질 것처럼 너무나 과중한 짐을 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사회문제의 책임을 모두 국가기관에만 미루는 위험이 생길 수도 있다. 한편에서는 정치적으로 책임을 진 자들이 그 사회적인 책임도 져야 한다는 정당한 원칙을 지적하고 있지만, 다른 편에서 보면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도록 하는 면도 있었다. 루터의 이런 면은 교회의 사회봉사활동을 위해서는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종교개혁시대로의 이행은 단번에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여러 지역의 교회들에서 상이한 상황들이 전개되었다. 구시대의 사회봉사기관들이 그대로 유지되기도 했다. 새로 창립된 개신교회들은 특히 농민전쟁으로 어렵게 된 농민들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다. 사제들의 특권의식과 수도원의 부정들을 고발하고 비판함으로써 루터는 결과적으로 사회봉사의 기능을 수행하던 수도원을 없애버리게 되었다. 사회사업기관들 중에 시나 마을에 건립했던 시설들은 그대로 남게 되었다. 시의회나 마을행정기관들이 교회의 행정에 예속되지 않고 이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 교회가 경영하던 큰 기관들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개개의 도시나 마을들이 종교개혁의 편에 서게 되고 나서는 병원이나 빈민원 등을 자기의 관할하에 두게 되었다.

새로운 교회 법들이 재정되면서 사회적인 책무를 규정하는 법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예를 들면 1522년에 나온 비텐베르크 헌금 규정에 보면, 모든 예배 때엔 연보대를 돌려 헌금을 모아 빈민원에 있는 사람에게 보조해 주고, 모든 결핍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고 되어 있다. 1523년 라이스닉 구제함 규정(Leisniger Kasten Ordnung)은 그곳 시의회의 요청으로 루터가 함께 참여해서 만들었는데, 모든 부동산 기금에서 수입과 헌금들을 하나의 함에 모아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데 쓰며 열 명의 이사들이

이것을 관리하도록 규정되었다. 이 구제함의 법이 유명해지면서, 루터는 이를 빈민구제의 모델로 삼으라고 권장했으며, 이 영향으로 독일 동부의 여러 도시들에까지 파급되었다. 도시마다 인정할 만한 사회구제사업들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지만, 곧 한계가 들어 나게 되었다. 구제함에서 나온 돈만으로는 모든 빈민들을 돕는다는 게 불가능했다. 루터의 교리에서 분명했던 봉사의 가르침들이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효과적으로 실천되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개신교회들은 빈민에 대한 봉사와 함께 학교의 설립이라는 새로운 사명감을 강렬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자선사업에다가 교육사업이 덧붙여진 것이다.

교육봉사는 사실 루터가 청소년들의 교육과 인격형성을 교육의 중요한 과제로 설정한 데 근원적인 뿌리를 갖고 있다. 종교개혁 이후에 목사의 역할은 두 배로 늘어나게 되었다. 자선사업과 교육사업에 대한 교회의 업무를 감독하는 목사의 직책은 흔히 목사부인의 시간까지 바치도록 요구했다.

개혁교회의 사회 봉사활동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좀더 살펴본다면, 루터교회들이 부겐하겐의 규정을 받아들인 것처럼, 개혁교회는 부처(Butzer 1491-1551)의 봉사규정이 활용되었다. 부처는 교회의 직책들 가운데 목사, 교사, 관리자 이외에 집사(diakone)의 직책을 세웠다. 집사들은 교회 안에서 누가 가난하고 어려운지를 알아야 하고, 헌금들을 성실하게 관리해야만 했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해 줄 뿐 아니라 가능하면 일감을 얻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했다. 부처의 생각으로는 가난한 이들이 여러 개인들의 노력으로 도움을 받기보다는, 일정한 교회 집사들의 봉사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좋다고 했다. 주일 예배 때에 구제함을 놓아 헌금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주교들에게 개교회 단위가 아니라 교구 단위에서 봉사의 일을 협의할 수 있는 장로회의와 집사회의의 기구를 가지라고 권고했다.²⁰⁾

위대한 종교개혁자인 칼빈(Calvin, 1505-1564)은 특히 봉사 직책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1535년 파렐(Farel)의 영향으로 제네바의 빈민과 병자들을 위한 새로운 구호 규정이 만들어졌을 때 칼빈은 병원 등의 시설에 관해 큰 관심을 나타내었다. 칼빈은 개혁교회 안에 네 가지 직책을 재정했는데 목사, 교사, 장로, 집사였다. 집사의 시무기간은 말씀을 가르치는 다른 직책과 달리 일정한 기간으로 제한했다. 위그노

20) 이삼열 편,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 (서울: 숭실대학교 기독교사회연구소, 1992), 96-99.

(Hugenotten)들의 집사들은 교회의 지도관리까지 참여했다. 특히 독일에 있는 개혁교회의 구조가 그렇게 되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 말씀의 증거에서부터 새롭게 인식되는 과제들을 실천해 보려고 노력했다. 여기서 가난한 병자들에 대한 사랑의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도외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점점 커지고 많아지는 봉사의 요구에 대해 봉사의 사업을 감당할 새로운 힘과 조직의 필요를 느끼게 된 것은 거의 종교개혁의 말기에 와서라고 할 수 있다.

라. 경건주의와 사회봉사활동

17세기는 사실 사회봉사면에서는 무시해도 좋다. 교리의 정통성 주장들이 개혁적인 씨앗을 눌러버렸기 때문이다. 30년간의 종교전쟁은 엄청난 파괴와 고통을 초래했다. 전쟁으로 기운이 빠지고 허약해진 나라와 지역들에서는 봉사활동을 조직하기 이전에 물리적으로 재건하고 회복하는 일이 필요했다. 이때 정신적인 부흥을 부르짖으며 나타난 운동이 스펜너(Spener, 1635-1705)에 의해서 제창된 경건주의(Pietismus) 운동이다. 그는 1675년에 “경건한 소망”(Pia desideria)이라는 글에서 교회와 개인의 그리스도적 삶을 위한 개혁적인 소망들을 정리해서 프로그램으로 내놓았다. 그 글에서 그는 모든 신도들이 보편적으로 사제의 직분(Priestertum)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평신도들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하는 신앙은 사랑을 통해서 실현되어야 한다고 했다. 더욱이 그 글에는 사회적 개혁에 대한 제안들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스펜너의 신앙생활이 커다란 운동을 일으켰다는 사실이다. 처음에는 여기에 속했던 사람들은 조롱하여 경건주의자라고 불렀지만, 나중에는 존중하는 뜻으로 부르게 되었다. 이 경건주의 운동이 사회봉사의 새로운 형성과 발전의 토대가 된 것이다. 스펜너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할레(Halle)와 프랑케(Francke)이다. 그들은 사회봉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이 설치한 기관(Anstalten)들은 오늘날 사회봉사의 조직, 시설의 원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개신교의 기관 중심의 봉사활동이라고 부르는 것은 할레로부터 출발하여 프랑케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는 여러 가지 면에서 봉사활동 분야의 개척자요, 개혁자가 되었다.

‘신앙의 즐거움’이란 운동으로 그는 놀라운 발전과 번창을 이루는 사업을 벌이게

되었다. 그는 고아원을 설립했다. 의도적으로 독립적인 기관을 만들어 그곳에서 사회적이고 교육적이고 선교적인 목적을 동시에 수행하려고 했다. 특히 그는 일천 명이 넘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이들이 앞으로 독립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신교육과 직업교육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여기서는 여자아이들도 동등하게 취급되었다. 이런 광범위한 교육사업을 위해 새롭게 교육하고, 신학교육을 개선해야만 했다. 새로운 교육 방법도 시도되었는데 이론과 실천을 결합한다던가, 시각적인 교재를 쓴다던가, 위생건강을 철저히 지키게 했다.

프랑케의 희망은 그의 교육기관이 전국적으로 학교와 신학교의 모범이 되어, 그곳에서 미래의 수공업자, 상인, 의원, 목사, 군인, 법률가들을 기독교적으로 배출하여 이들이 나라의 복지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봉사활동이 기존의 상처를 치료하는 데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은 상당히 성공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할레의 경건주의 운동은 하나의 약점이 있었다. 그것은 대중적 운동이 되지 못하였고, 아카데미한 운동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그래서 프랑케의 기관활동은 많은 결핍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교회의 사회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운동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단지 프랑케의 기관이 만들어낸 문서선교와 성서연구를 통해서 교회에 자극을 주었을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프랑케는 30년 전쟁 이후에 일어난 기관 중심의 봉사활동의 선구자였다.

프랑케와 달리 진젠돌프(Zinzendorf, 1700-1760)는 사회봉사활동을 기관중심으로 조직하지 않았다. 그의 '공동체적 기관'(Anstalt der Gemainshaft)은 할레의 공동생활 기관과는 달랐다. 진젠돌프는 한때 루터가 생각했던 것처럼 '봉사적으로 행동하는 교회'(diakonisch handelnde Gemeinde)를 실현하려고 하였다. 이를 통해 교회별로 여러 가지 국내, 국외선교사업들을 추진하게 되었다. 비교적 작은 교회들도 선교봉사사업에 헌신하고 활약한 내용을 보면 그 힘과 저력이 놀랄 정도이다. 그런데 왜 이런 모델이 많은 보통 교회들에게서 실천되지 않았는가? 진젠돌프가 너무 경건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를 따르지 못한 교회들은 선교봉사활동을 할 수 없었던 데 원인이 있다.

시대적으로 일 백년쯤 지나 블룸하르트(Blumhardt, 1805-1880)가 나타나 비텐베르크의 경건주의의 대표자로 등장한다. 블룸하르트는 하나님 나라의 사상에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현실을 체험해 보려고 했다. 그는 성서에 나타난 약속들을 실현해 보

려고 하였다. 병고침 받는 것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냄으로 평가했다.

그의 아들 볼름하르트는 받볼에서 아버지의 사업을 계속했다. 그의 경건주의는 세상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연과학이나 사회주의의 긍정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그는 사회민주당에 가입했고, 주의원이 되기도 했다. 볼름하르트 부자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성취되며 현세와 내세를 포괄하는 유기적인 것이라고 믿었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과 구원의 의지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경건주의가 가진 사회봉사에 대한 지속적인 태도는 내면적인 각성이 세상에서 도피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²¹⁾ 아마도 이러한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19세기에 전개되는 많은 활동들에 필요한 힘과 저력들이 자라나게 되었던 것 같다. 19세기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회봉사시설과 사업들은 경건주의의 강력한 총동이 없이는 생길 수 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사회봉사활동의 능력이란 외면적인 개혁이 아니라 신앙의 근거에 대한 내면적인 반성에서 자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므로 신앙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은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봉사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한다.

마. 19세기의 사회봉사활동

19세기에는 청소년들과 아동을 위한 구제사업의 일환으로 최초의 근대적인 유치원이 설립되었다. 프뢰벨(Fröbel)은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치원의 방법론과 이론을 만들어 냈으며 이것은 교회나 독일지역을 넘어서 유치원 교사들을 양성하는데 중요한 바탕을 이루었다. 프뢰벨의 자극과 영향은 빅헤른에게도 크게 미쳤으며 특히 스피틀러(Spittler)와 함께 바젤에서 버려진 청소년들을 위한 구호소를 설립한 켈러(Zeller, 1779-1869)에게도 미쳤다. 프랑케와 마찬가지로 프뢰벨은 이러한 사업이 가난한 학생을 돌볼 수 있는 교사들을 양성하는 일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였다. 그리고 그는 가급적 이런 시설을 작게 유지하고 가족의 원칙을 교육의 모델로 관찰시켰으며 청소년들에게 실업교육을 실시했다.

19세기의 사회봉사는 특히 여성들이 공적 사회봉사활동에 등장하게 됨으로써 수

21) Ibid., 100-101.

적으로 커다란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선구적인 여성으로는 영국의 퀘이커 신자인 엘리자베스 프라이(Elisabeth Fry)를 들 수 있는데, 그녀는 1817년에 벌써 여성수형자를 위한 여성회를 조직하였다. 그는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절망에 빠진 수인들을 처음으로 새로운 길로 인도하려는 시도를 한 사람이었다. 여러 나라의 감옥을 개혁하려는 노력도 했다. 독일에서는 처음으로 시베킵(Amalie Siebeking)이 빈민과 병자들을 돕는 협회를 함부르크에서 조직했다. 그는 여성들의 자원봉사를 동원해서 병자들을 돌보고 방문하려는 일을 하였다.

사회봉사의 여러 분야에서 여성들을 전담직원으로 활용하는 일을 실천한 사람은 플리드너(Fliedner, 1800-1864)였다. 1833년에 그는 카이저스베르트 감옥에서 석방된 자들을 위한 사업을 시작했다. 그후에 유치원과 보모들을 위한 세미나도 열었다. 1836년에는 병원도 세웠고 개신교 간호원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도 세웠다. 이것이 카이저스베르트의 여성봉사협회가 생기게 된 효시였다. 카이저스베르트의 '어머니의 집'은 신앙과 봉사와 생활의 공동체를 이루는 중요한 모델이 되었다.

여봉사원들은 월급을 받지 않고 조그만 용돈을 받으면서 일을 했다. 공동경영을 통해서 얻은 수익으로는 '어머니의 집'의 활동과 사업에 썼다. '어머니의 집'에 살면서 일하는 여봉사원들은 철저하게 규칙과 제도를 따랐으며, 목사를 원장으로 여봉사원 한 사람을 감독으로 두고, 그들의 지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된 어느 곳에서든지 봉사활동을 실천했다.

플리드너의 영향으로 이 '어머니의 집' 모델이 독일의 여러 곳과 미국, 예루살렘, 중동지방에 까지 확산되었다. 이런 활동의 영향을 받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여성이 영국에서 병자들의 간호를 현대화시킨 플로렌스 나이팅게일(Florence Nightingale)이었다. 플리드너의 제도하에 카이저스베르트의 여봉사원의 수가 300명을 넘게 되었다. 이 운동은 오늘날까지 확산되어서 전세계 99개 '어머니의 집'들이 가입되었다.

교회전체를 사회선교(Innere Mission)의 사명으로 의식화시키는 신학적 능력을 소유했던 사람은 요한 빅헤른(Johann Wichern, 1808-1881)이었다. 그는 함부르크에서 가난한 공증인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괴팅겐과 베를린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후보생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때 막 대도시로 성장하는 고향에서 청소년

들의 비참한 생활을 보게 되었다. 사회와 격리된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서 그는 1883년에 한 고아원 같은 구호소를 설립했다. 교육의 원칙은 수용된 불우한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용서를 가르치며, 이제까지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고 신뢰를 주는 것이었다.

여성들의 봉사를 위해서는 '어머니의 집'이 중심이 되었듯이, 남성들의 봉사활동에는 빅헤른이 창립한 '형제의 집'(Brüderhaus)이 모체가 되었다. 최초의 형제의 집은 1839년에 건립되었는데 그곳에서 봉사활동의 요원들이 전문지식과 함께 인간적, 정신적 교육을 받게 되었다. 형제의 집은 빅헤른의 후예들이 계속 건립하였지만, 결코 이론적 세미나만 하는 곳이 아니라 형제적인 삶을 연습하고 실천하는 곳이었다.

1842년부터 빅헤른은 라우헨하우스로부터의 통신이라는 간행물을 통해 사회선교의 사상을 공개적으로 공표하게 되었다. 사회선교라는 새로운 활동을 통해 형식적으로만 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대중들이 교회로부터 점점 소외되고 멀어지는 현실을 극복해 보려고 하였다. 사회선교를 통해서 빅헤른은 국가와 교회가 손길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을 드러내고, 더 이상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 혁명에서 구원을 찾는데 빠지지 않도록 도우려고 했다. 그리고 바로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이 발표되는 1848년경에 빅헤른은 비텐베르크의 교회에서 유명한 연설을 한다.

여러분의 교회에 중요한 한 가지의 결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 전체가, 사회전체 즉 사회선교가 곧 나의 일이며 교회의 과제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사랑의 실천과 신앙이 같은 것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일입니다. 교회는 구원하는 사랑을 도구로 해서 믿음의 사실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살아 있는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 전적으로 자신을 드러냈듯이, 그는 하나님의 행위를 통해 선교를 하신 분입니다. 이 행위 중 가장 고귀하고 순수하며 교회적인 것은 구원의 사랑입니다.

빅헤른의 이 연설에 감명을 받아서 비텐베르크에서는 '사회선교 중앙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이 위원회가 장차 독일교회 전체의 봉사적이고 선교적인 사업과 활동들을 관리하는 중요한 기구가 되었다. 빅헤른은 그의 활동과 신학을 통해 함부르크 밖까지 널리 영향을 주었다.

이처럼 19세기 사회선교는 빅헤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가장 두드러진 모습을

이루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론적 실천 활동에서 루터의 개혁에 중요한 보완을 보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루터에게서는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점이였다. 빅헤른은 바로 이를 교회에다 강조해서 가르쳤다.

빅헤른에서 통합되어 있던 봉사 활동과 사회 행동이 스틱커(Stoecker, 1835-1909)와 나우만(Naunann, 1860-1919)에서는 분리되게 되었다. 두 사람은 모두 소외되고 버림받은 대중들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그들은 결과적으로 모두 정치에 관심을 돌렸다. 그 때문에 보수적인 교회로부터는 불신을 당하게 되었다. 개별적 인간들의 구체적인 문제와 비참함에 관심을 쏟기보다는 국민전체의 문제와 정치적 관계의 새로운 형성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빅헤른에 의해서 시작된 사회선교가 한편으로는 이렇게 정치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교회의 구조와 머물면서 교회와 사회봉사를 강하게 결합시키려는 노력이 특히 창립 세대에 와서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중에 탁월한 예가 보델슈빙(Bodelschwingh) 부자의 경우로 이들은 바로 19세기와 20세기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하다.

프리드리히 보델슈빙(Friedrich Von Bodelschwingh, 1831-1910)은 베스트팔렌의 옛 귀족가문에서 출생했다. 그는 처음에 자연과학을 공부해 농학사가 되었고 어떤 선교사의 설교에 감명을 받아 1845년 선교사가 되려고 지망했다. 그 준비를 위해서 그는 바젤과 에어랑겐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그때에 뢰에와 블롬하르트도 만나게 되었다. 그는 베를린에서 신학 수업을 마치게 되었다. 그러나 목사가 되는 일에 회의를 가졌지만 파리에 있는 통일교회 목사로 부름을 받고 목사생활을 했다. 그는 1872년에 빌레펠드에 있는 간질환자 수용소와 자그마한 봉사관의 원장으로 부임했다. 이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칭했고 '어머니의 집'은 '사렙다'라 불렀다. 이 성서적 이름을 통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이렇게 자그맣게 시작된 베델이 '자비의 도시'(Stadt der Barmherzigkeit)로 발전했다. 1903년에 보델슈빙은 주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여러 가지 법률을 제정했다. 정신박약자들을 위한 동네의 건설, 예방적 구호 활동, 주택조합 등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그는 기독교적인 국가건설의 이념은 거부했다 그래서 스틱커와는 갈등을 겪게 되었다.

그의 막내아들은 그의 뒤를 이어서 베델의 원장으로 35년간 봉직했다. 그의 재임

기간 중에 특히 베델 안의 학교들이 발전했다. 이 봉사사업은 큰 기업으로 확장되는 유혹을 물리쳤으며, 비참한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사랑을 베푸는 일을 구심점으로 삼았다. 치료의 방법은 의학과 신학을 결합하는 것이었다. 환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간주한 것이다. 그래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일하는 방식을 취했다.

1993년 보델슈빙은 독일제국 전체의 주교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히틀러의 심복 뮐러(Müller) 때문에 물러나게 되었다. 그러나 보델슈빙은 비공식적인 주교로 추앙을 받았다. 히틀러가 살 만한 가치가 없는 인생들이라고 하면서 정신병자, 박약자들을 죽였을 때 보델슈빙은 '생존할 만한 가치가 없는 생에 대한 논쟁'에 참여하여 2만-3만 명의 생명들을 건지는 역할을 했다.²²⁾

이와 같이 19세기 탁월한 인물들에서 보듯이 봉사활동은 이런 강한 집념과 의지를 통해서 추진되었다. 19세기말에 와서는 벌써 짧은 기간 동안에 다양하게 성장한 여러 봉사기관들과 활동들을 볼 수 있다. 장애자들과 환자들과 노인들, 사회적 낙오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많은 남녀 봉사요원들이 활약했다. 때로는 동네와 도시가 모두 이런 자비와 사랑의 실행 장소가 된 곳도 많았다.

19세기의 공식교회는 아직 사회문제의 의미를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사회선교부의 여러 기관들과 강력한 참여활동은 놀라운 것이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곤궁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활동을 하였다는 점에서 놀라운 것이었다. 이런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산업화와 자본주의 시대가 가진 빈곤과 결핍의 문제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적어도 이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려고 시도했다.

바. 20세기 사회봉사활동

20세기 초에 와서 사회봉사활동의 형식과 양태는 네 가지로 구분할 있다. 첫째로 교회의 직책으로서 직업적으로 수행되는 봉사활동, 둘째는 자발적인 단체나 팀, 동인들에 의해서 수행되는 봉사활동, 셋째는 여러 교회나 단체들이 연합해서 만든 사업체가 수행하는 봉사활동, 넷째는 국가와 경제분야에 정치 사회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수행되는 정치봉사활동 등이 있다.

22) 이삼열 편, 사회봉사의 실천과 신학, 102-108.

질병이나 빈곤의 원인을 극복하고자 하는 조직적인 사랑(gestaltende Liebe)과 구체적인 요구와 사람을 돕고자 하는 구호적 사랑(helfende Liebe) 사이의 긴장은 사실 상 적지 않게 있었던 것이다. 20세기 전반기에도 봉사활동의 많은 실무자들은 이런 긴장관계를, 오늘날 우리가 추측하는 것 이상으로 의식하고 있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봉사활동에도 새로운 시기가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후 독일에서의 정치적 변화들은 국가교회의 구조를 벗어나야 했던 교회조직체들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으며, 따라서 교회에서는 독립적이었던 사회선교나 사회봉사 단체들에게도 변화를 가져온 것은 교육봉사활동이었다.

청소년들과 유아들의 교육을 국가가 교회로부터 빼앗아 국가가 관장해 버렸다. 다른 편에서 전후의 여러 빈곤과 궁핍을 극복하고 돕는 데는 교회의 여러 봉사기구들의 활동이 국가로서도 몹시 고마운 일이었다. 전후 부흥기인 1920년에 와서 많은 질병과 파괴, 물가 상승과 경제 혼란 등의 상황에서 봉사활동이 해야 할 일들은 엄청나게 늘어났다.

바이말 헌법에 와서는 이런 사회적 봉사활동의 과제가 국가로 귀속되게 되었다. 사회복지부가 정부의 부처로 설치되게 되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논의와 협상 끝에 결국은 국가의 복지 사업과 민간단체의 자유로운 복지활동이 협력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사회선교 중앙위원회도 슈타인벡의 지도하에 민간 단체적인 복지사업체의 하나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제 이 사회 선교 중앙위원회는 다양한 조직체와 사회봉사 활동들을 조정하면서 국가의 사회 사업기관들이나 다른 민간 복지단체들에 대해 교회의 봉사적 선교적인 사회사업들의 특징과 장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했다. 기존의 봉사단체들을 한편으로 통합하면서, 주별로, 지역별로 연합체를 만드는 조직적인 개편작업을 또한 벌여야 했다. 사회선교는 이제 하나의 조직적인 통합기구를 가져야만 할 상황에 이르렀다.

이 시기에 또한 국제적 연대가 빈번히 이루어지게 된다. 스웨덴의 추시경인 쇠더블롬(Söderblom)이 1922년에 사회선교와 봉사의 대륙연합회를 제안했다. 멀리 아프리카 대륙의 람바레네에서는 슈바이처가 지역과 대륙의 경계를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명감으로 비참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도움을 베푸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 봉사활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더욱이 국내선교활동들도

크게 확장되었는데, 이제까지 전통교회들이 하지 못하던 많은 대중선교 사업들이 전개되었다. 특히 성서연구주간이 설치되고 선교대회, 복음화주간, 교리연구소 등의 설립되었다. 최초로 신학대학에서도 사회선교를 교회의 중요한 삶의 표현으로 취급하여, 이에 대한 강의가 설치되었다. 베를린대학에서는 사회윤리와 사회선교학연구소가 제베르크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다른 모든 기구들과 마찬가지로 사회봉사기구들도 국가사회주의의 등장으로 사상 최대의 위협을 당하게 된다. 나치국가의 모든 민간 복지사업단체들을 제거하고 나치국민복지가 독점해서 활동하려 했다. 이런 나치주의의 영향 때문에 교회의 사회봉사활동은 크게 위축되었다.

20세기 후반기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교회나 사회선교부에서도 엄청난 결핍과 곤란이 엄습해 하루하루를 견디어 나가기에 급급했다. 에큐메니칼 운동과 저항운동에 참여했던 교회지도자들은 조용히 어떻게 외부의 원조를 얻어 궁핍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했다. 세계교회협의회에 자리잡은 쇤펠트(Schönfeld)나 교회의 무국장이던 게르슈텐마이에르(Gerstenmaier)는 이미 전쟁이 끝나기 전에 구호사업을 전개할 생각을 했다. 이런 준비를 근거로 해서 부름(Wurm) 주교는 1945년 8월1일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관한 스투트가르트 선언'을 발표해 개신교회의 구호사업을 설치할 것을 호소했다. 그리고 동시에 스투트가르트 죄책고백선언이 나와 외국의 교회들에게도 대화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30여 개 국가에서 원조의 손길이 오게 되었다. 구호품들은 석탄을 가득 실은 화물차에서부터 교회건축재료, 의약품, 기독교서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들이었다. 조직과 운영관리를 잘해서도이지만, 전세계에서 파괴된 독일을 돕기 위한 물질적, 정신적 지원과 구호는 전례가 없었던 대단한 것이었다. 이러한 경험의 결과로 독일교회는 이후에 국제적인 재난구호사업이나 외국원조사업에 열을 내게도 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전통적인 사회선교기관들 밖에도 새로운 봉사기관들이 설치되었다. 물론 사회선교부에서도 '어머니의 집'들에다가 피난민을 수용한다든가 고아가 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맡는 등 전쟁으로 인한 인도적 구호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형편없는 상황이지만 병원사업이 계속되고 건물보수작업이 계속되었다. 정거장선교와 도시빈민선교가 크게 번창하였다. 많은 현금과 모금이 이 구호사업에 투입되었

다. 사회선교중앙위원회는 1945년 재조직되었다.

전후의 사회봉사사업은 조직적인 면에서 이중적인 문제를 안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사회선교부와 전후의 구호사업을 합쳐 새로운 사회봉사국을 만들게 되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역사적으로 공유했던 여러 사업들이 조직적으로 분리되는 일을 겪어야 했다. 정신적으로는 교회공동체에 머물면서 조직적으로는 사회봉사국이 독립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공식 이름은 '사회봉사국-사회선교와 구호사업'이라는 긴 명칭이 되었다.

교회의 사회봉사는 교회사적 발전과정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었다. 동독에서는 국민이 교회에서 변질하여 소수의 교회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소수의 교회, 디아스포라 속의 교회는 오히려 전적으로 타인을 위한 교회로 발전하게 된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다수자의 교회였던 때보다 훨씬 더 봉사적이고 선교적인 차원에 각성된 교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다른 면에서 소수자의 교회는 재정적이고 인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전처럼 많은 봉사자나 직원을 확보할 수 없다. 봉사요원의 숫자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20세기 후반에는 사회봉사활동에서도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기 때문에 자격 있는 요원들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봉사의 의욕이나 동기보다는 법률규정이나 전문지식을 잘 아는 것이 훌륭한 봉사자가 되는 경우가 많게 되었다. 사회봉사사업이나 활동은 그럼에도 커다란 선교적인 효과를 항상 가져온다. 교회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도 이 봉사적인 교회의 공헌만큼은 높이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선교적인 봉사가 중요하다는 요구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는 요원들에게 말씀의 증거와 실천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그래서 오교가는 말들 속에서 바른 말씀과 구원의 말씀이 증거되고 전파되도록 하는 것이 선교적 봉사의 요체가 되는 것이다.

3. 조직신학적인 근거

가.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말씀이신 하나님의 친히 이 세상에 인간의 육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하나님의 사건에 있다(요 1:14). 즉 복음의 계시성이 복음의 현장인 인

간의 사회, 역사적 자리에 들어와 역사 변혁의 주체자로서 등장하셨다는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의미한다.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시킨 것이다. 예수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이 창조자시고, 주권자이시며, 역사의 주님이시고, 인간과 만물을 회복하시는 구원의 주이심을 선언한 것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예수의 이 세상에 오심은 그로 인해 창조된 모든 피조물의 회복을 지향한다. 그의 피조물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²³⁾고 찬탄하시는 하나님은 그 피조물과 더불어 창조의 살롬을 누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서는 말씀한다. 즉 하나님은 그의 말씀으로 만드신 피조물 속에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²⁴⁾ 그러나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하신 이 창조의 살롬은 마침내 무너지고 파괴되고 말았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금 창조주로 확인하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이 창조의 살롬에 참여코자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다. 나 자신의 삶과 내 이웃과 모든 생물, 그리고 나아가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 귀속된 것임을 확인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비로소 피조물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과 역사 앞에 부름을 받은 자로서 있는 존재들이자이다.

예수의 공생애의 첫 선포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막 1:15)는 선언은 구원자로서 하나님이 인간의 삶의 자리에 들어왔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접촉점의 연결 고리가 되는 것이다. 곧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억압에서 해방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 죄인을 용서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며, 소외된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세상과 화목케 하심으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이다.²⁵⁾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시며 고난받는 한 백성을 해방시키시는 분이시고 이 세상과 화해를 선언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이 역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을 방해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 나라 운동의 훼방꾼들이자 사탄의 거짓 세력들이자이다. 그러

23) 창 1:4, 10, 12, 18, 21, 25, 31.

24) 행 17:24-29; 롬 1:20; 고전 1-21.

25) 막 2:17; 10:45; 롬 6:4-11; 고후 5:14-21.

므로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개인의 실존과 사회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는 자로 부름을 받고 있다.²⁶⁾

“때가 찼다”는 예수의 말씀이나 “때가 차매”(갈 4:4)라는 바울의 말씀은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지니는 역사의 중심성과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역사적 지평에서 역사의 주제자시며 인도자로서 인간의 역사적 자리에 참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출애굽사건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고 자기의 뜻을 행하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때에 자기의 아들을 이 고통받는 역사의 현장에 보내셔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주권을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역사적 지평 속에 열어 놓게 하고 있는 것이다.²⁷⁾ 곧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말씀과 행위를 통해서 나타났으며 그의 인격 안에서 구현되었다. 예수의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 참여 사건인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 주도의 사건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육화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복음의 사회, 역사현장화의 근거이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자와 승리자로 나서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하나님이 자기를 적대하며 높아진 모든 인간적인 권세와 능력을 파괴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을 것이다(고전 15:24)라는 선언은 예수가 증거한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개체적인 죄와 육체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개체적인 인간의 구성체인 사회와 국가의 악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적인 역사의 지평으로 확장되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사회참여의 신학적이고 성서적인 기초가 있다.

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통해서 나타난 자유와 해방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제일 먼저 구약 전승을 왜곡시키고 자신들의 집단적 이기주의에 집착하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학적 이해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그리고 마침내는 정치적인 지도자인 헤롯과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 자신의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만다. 이는 예수가 자연법적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한 데 반해, 바

26) 이삼열 편, 사회봉사의 실천과 신학, 132-134.

27) 막 1:15; 갈 4:4; 엡 1:10; 골 1:10.

리새인들은 실정법적인 법조항의 적법성에만 매달림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방해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다시 회복하는 생명운동에 그 관심을 집중시킨 반면, 예수의 적대자들은 실정법의 집행이 가져다주는 기득권적 자기 정당화에 그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예수는 구약에 언급된 안식일의 동기를 근본적으로 붙잡고 있었다.

첫째는 창세기 1, 2장에 언급되어 있는 창조신학적인 동기이다. 하나님께서는 열새 동안 그의 창조를 마치고 일곱째 날에 그의 창조행위의 기쁨 속에 들어가셔서 깊이 안식함으로 그의 창조를 기뻐하셨다(출 20:8-11). 곧 창조신학에 나타난 안식일의 개념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안식이란 하나님의 창조 살롬에 동참하라는 의미이다. 곧 이 창조의 살롬은 새 세계를 위한 정당한 창조의 역사를 행한 후에 들어갈 수 있음을 가르친다.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질서에 참여한 자만이 창조의 살롬인 안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창조의 질서란 생명의 질서요, 평화의 질서를 의미한다. 따라서 안식일이란 생명과 평화의 창조질서를 다시 회복하고 이를 나누는 삶의 자리인 것이다.

둘째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서 보다 강력한 사회적 동기가 부여되고 있다. 신명기 5장 12-15절에 의하면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고 말씀하신다. 안식일의 쉼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의 종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의 구속사업에 대한 결과로서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말씀하고 있다. 이는 해방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사물들도 함께 해당된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제 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종과 이웃을 왜 돌아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인 이해가 있다. 인간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의 긍휼을 본받아 그의 종과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가 인간에게 지워져 있다는 것이다.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 어둠과 폭력의 그늘을 물리치고 빛과 평화의 자리로 그들을 이끄신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정신을 본받아 그의 이웃에게 이런 하나님의 구

원과 해방사건을 현실화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안식일의 개념은 가축의 범주를 넘어서 삶의 터전으로 허락하신 땅을 가꾸는 것까지 해당된다(출 23:10; 25:3). 이는 계속해서 모든 자에게 자유를 선언하는 희년의 해방과 연계된다(레 25:10). 즉 한 인간의 가능성과 사회성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는 날인 것이다.

이러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선언은 오늘의 정치, 경제, 사회, 경제적 정의 실현과 더불어 한 걸음 더 나아가 생태학적 위기를 극복하는 신학적인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곧 종, 나그네, 가난한 자에 대한 이해, 고아와 과부에 대한 이해 등 주위의 연약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관심과 동시에 생명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피조물의 보존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드러나고 있다(출 23:1-12).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고통받고 있는 연약한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인간에게 깊은 관심을 두며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정법보다 우선하는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존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의 기초이다.²⁸⁾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가 안식일에 그의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 펴서 읽은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의 다음과 같은 구절이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에서 인간의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전인적인 전체적인 자유와 해방을 의미한다. 즉 인간의 당면한 영적, 육적, 사회적 삶의 총체적 구원이다.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의 용서의 선포와 무지의 깨우침과 병고침이 이와 상응하는 행위이다. 또한 예수가 관심을 둔 자들인, 당시의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소외되고 천대받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민중들은 구약의 과부와 나그네, 곧 가난한 자와 억압받는 자를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상응한다(출 23:6-9).

구약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이 보다 심판적인 경고와 함께 주어지기도 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외친다.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시고 이방인과 고아와

28) 이삼열 편, 사회봉사의 실천과 신학, 135-136.

과부를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렘 22:3).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는 유다 왕들의 완악함을 다음과 같이 고발한다. “그러나 네 눈과 네 마음은 탐함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강포를 행하려 할뿐이니라”(렘 22:17). 또한 이사야 11장 3절 이하는 이스라엘의 메시아 예언으로서 메시아는 궁핍한 자를 정의와 정직으로 다스린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 운동은, 곧 구약의 예언자들의 증거한 하나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성육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 몸으로 이웃을 섬기는 운동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이 세상과 역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건의 현장화이다. 따라서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운동을 바르게 파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봉사와 참여에 대한 입장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말씀이 성육신됨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적 참여이며 하나님의 사회행위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역사적 사회현장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할 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활동의 결정적인 장소이다. 따라서 인간과 인간이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활동이 중요한 대상이다(요 3:16). 이 세상은 어서 빨리 탈출해야 할 기피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최전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는 역사적인 하나님의 주권행위이다(막 1:15).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주권이 개인의 삶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맥락에서 세워지고 확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재자이시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운동은 하나님 이외에 모든 인간의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기존의 가치관과 질서를 우선시하는 것을 거절하는 사건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치 않은 모든 인간에게 회개를 요청하며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사건이다(막 1:14-15).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사회, 정치, 종교성이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당위성을 지닌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거짓된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죄악에서 고통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자들을 오히려 공홀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다(막 2:1). 이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에로의 인간회복운동이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인간의 육체적으로 억압된 질병에서 해방을 선언하고 치유하며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거나 사회적 권리를 회복케 하는 것이다. 예수는 치유된 나병환자에게는 모세의 법대로 제사장에게 보여 확인하고 종교 사회적인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명령하고 있다. 또한 거라사 귀신들린 자에게는 인간의 자기 정체성을 상실케 하고 억압하는 귀신을 축출하여 다시 가정으로 보내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고 가정성을 돌려 받게 한다.²⁹⁾ 즉 가정성과 종교성과 사회성이란 인간의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이기에 예수는 치유와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이것들을 회복시키고자 원했던 것이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죽음의 자리에서 인간을 살리시고 새 생명을 부어주시는 사건이다. 이를 예수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확증하고 있다. 그리고 이 운동은 예수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억눌린 자들에게 해방을, 곧 하나님의 자유케 하는 은혜의 해를 선언하는 전인적인 구원의 사건이다.

당시 예수의 죄인과 세리들과의 교제는 반체제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반종교적인 하나님의 행위였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였다. 죄인이란 당시 종교적인 범주에서 율법전승을 이어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된 종교적인 타락인을 의미했다. 그러므로 예수의 죄인들과의 친구 됨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비추어 볼 때 반종교적인 행위였다. 세리들 역시 당시 종교, 정치적인 의미에서 매국노로 배척받는 소외된 자들로서 예수의 세리와의 식탁 교제는 그러한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의 희생물에 대한 공훈과 연민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파격적인 행위로 이해되었을 것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예수의 궁극적인 관심은 그들을 인간의 죄악과 사회적인 악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었다.

예수의 삶은 정치적인 권력자들에게는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로, 종교적인 기득권자들에게는 하나님을 훼방하고 율법을 모독하는 자로 판정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그는 필연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29) 막 1:44; 5:1; 6:19.

부활하심으로 그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인간의 모든 세력을 쳐부수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심판의 자리가 되고 만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만이 참 주인이시고 참 구원자이심을 보여주기 때문이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적대하는 인간의 권세들을 향하여 도전하시며 심판하시는 자리는 곧 십자가의 자리이다. 이는 세상의 지혜자들과 권세자들을 미련케 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의 죄악을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화해의 사건이며 인간에게 생명을 선물하는 섬김의 사건이었던 것이다. 인간의 죄악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감당하셨다는 말씀이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위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하나님의 주권운동이며 참다운 인간회복의 운동이다. 따라서 진실된 복음화 운동은 참다운 인간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진정한 인간화의 운동은 하나님이 창조주, 역사의 주, 구원의 주되심을 상실한 인간의 억압과 고통 속에 뛰어난 하나님의 성육화의 사건이다. 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 사이에 접촉점을 만들어 내는 조직신학적인 기초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구체적인 역사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인가가 과제이다. 복음화된 인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신 것처럼 교회도 사회를 향하여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기 위한 접촉점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복음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라. 십자가 아래에서의 봉사

개신교의 봉사의 기초를 놓은 사람들은 봉사를 시작하려고 할 때 고통과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체적인 구원으로 나아가는 비밀은 상처는 상처에 의해서 치유된다는 사실이다. 질병과 고통 그리고 죽음을 제어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고통에 자기를 내어 맡김으로써, 죽음과 십자가를 따름으로써 예수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권력과 성공의 우상은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수의 고통의 역사에서 우리는 신적인 사랑의 고통을 인식한다. 그의 고통에서

우리는 생명을 받는다.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피조물의 고통과 죽음, 폐기되는 것을 그의 사랑으로 품으심으로 최고의 방식으로 창조적으로 활동하고 계신다. 예수는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침묵하는 곳에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흔히 극복할 수 있는 고난과 극복할 수 없는 고난, 치료할 수 있는 질병과 치료할 수 없는 질병만을 안다. 우리는 말없이 그러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로 전가한다. 우리는 우리의 배고픔을 극복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굶주리게 한다. 우리는 자연의 질병에 대해서는 면역이 되어가고 문명이라는 질병에 걸리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고통의 짐을 다른 사람에게나 우리 육체의 다른 부분으로 전가시키고는 고통을 극복했다고 생각한다. 구원의 메시아적 비밀은 고통을 배제하는 것과는 정반대가 된다. 그것은 기꺼이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위해 고통을 감당하려는 것이다. 고통과 실패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통을 기꺼이 담당하는 것은 고통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즉 우리가 고통을 파괴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고통과 하나 되게 한다. 더이상 우리 자신을 고통으로부터 분리하지 않고 고통과 결합한다. 신앙 안에서, 십자가상에서 예수의 고난과 죽음은 항상 유일하게 구원을 행하는 고난으로 간주된다.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은 화해의 고난이고, 그의 죽음은 속죄하며, 칭의하는 재물이었다. 메시아로서 파송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의 십자가와 그의 죽음을 스스로 받아들이도록 요구되지 않았다. 세계의 화해를 위해서 하나님은 혼자서 충분히 행하셨다. 그러나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는 그들에게 십자가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십자가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육체를 따르게 되며 그들이 생활에서 공동으로 감당하고 대처해야 할 고통을 의미한다.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고, 고통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제거하려는 자는 설령 그가 그러한 일로 죽는다고 해도 그는 치유하며 평화를 널리 실현하며, 가장 근원적인 의미에서 '건강한 사람'이다.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도 건강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와 같이 자발적으로 병약함을 감당하려는 힘을 어디에서 얻어야 하는가?

본 연구자는 여기에서 봉사적 고통 그 지체에 대해서 더이상 말하고 싶지 않고, 오히려 봉사의 또 다른 요소, 즉 봉사의 기초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이러한 기초가 없다면, 죽음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와 명상이다. 그 자신

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못한 채 사회적 혹은 봉사적 실천에 투신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될 뿐이다. 사회적 실천과 봉사는 자기의 약점을 치료하는 수단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만이 스스로를 헌신할 수 있다.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만이 의미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 이기심과 자신의 약점, 인생의 불안에서 진정 내적으로 벗어난 자만이 고통을 나눌 수 있고, 고통을 감당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예수와 함께 하는 공동체는 우리를 사랑과 기도로 인도해 드리고, 사랑과 기도는 서로를 심화시킨다. 이 세상을 더욱 더 강렬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병든 사람, 의지할 곳 없는 사람, 그리고 파탄한 사람의 곤궁을 더욱 더 강하게 자신의 곤궁으로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사랑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방관할 수 없게 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더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게 한다. 그러한 고통에 길들여질 수는 없다. 오히려 사랑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기도하도록 이끈다. 우리는 고통을 가지고 있는 자와 더불어 간구하고, 상처받는 사람들과 더불어 부르짖는다. 성령 안에서 기도와 병든 자의 삶의 고통에 동참하는 사랑은 서로를 강화시키고 성령의 경험을 심화시킨다.³⁰⁾

십자가 아래에서의 봉사는 고통을 나누는 것이고,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고통을 떠맡는 것이다. 그것은 불안을 가진 자아를 매일 죽이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서의 봉사는 부활하신 분의 현존과 권능에서 일어난다. 부활의 소망만이 비로소 이기적이지 않는 사랑과 죽음을 준비시킨다.

마. 성령의 힘 안에서의 봉사

봉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근거를 두고 있다. 바울에게서 교회공동체는 상이한 성령의 은사들로 다채롭게 채워진 성령이 계시되는 장이다. 교회공동체는 모든 인간들이 경험하는 성령의 공동체적인 운동일 뿐이다. 예언자, 제사장, 왕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들은 메시아적 시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생명력과 그의 창조적인 에너지에 의해서 충전된다. 요엘의 계약의 실현은 성령 강림의 사건에서 시작된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새로운 창조의 힘과 과제에 대해

30) 이삼열 편, 사회봉사의 실천과 신학, 80-81.

서 직제, 혹은 역할과 같은 표현은 쓰지 않았다. 그는 봉사라는 표현을 선택한다. 이것은 빌립보서 2장에 따른 예수의 모습과 부합된다. 모든 만물의 가장 높이 계신 주인이 모든 사람들의 아래에 있는 종인 것이다.

마태복음 20장 25-2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되어 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바로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마찬가지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교회 공동체는 그 자체가 봉사적인 공동체이어야 한다. 교회공동체는 이미 자신을 낮추는 봉사적인 공동체로서,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교회공동체가 아니다. 은사가 총만한 공동체는 봉사적인 공동체요, 그 역도 역시 성립한다. 한 사람이 다른 삶에게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하기 시작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예수의 봉사자로서 살게 되는 곳에서 지배의 법과 권력투쟁은 중지된다. 그래서 분열과 억압과 죽음의 지배하는 곳에서 교회공동체는 화해의 형태를 띤 새로운 창조로서 확실하게 나타나게 된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과 야만인,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 강자와 약자, 건강하고 병든 자로 이루어진 공동체로서 나타난다.³¹⁾ 봉사적 교회공동체는 여타의 단체에서처럼 자신의 타자와 동등해질 것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게 되는 분열적인 장벽을 깨부수게 되는 것이다. 교회의 사회적 봉사는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또한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 개교회가 사회적 봉사를 수행하며, 봉사를 수행할 때만이 비로소 교회의 공동체의 참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제 3 절 접촉점에 대한 신학적 해석

1. 코넬리우스밴 틸(Cornelius Van Til)의 변증학적 해석

그는 변증신학자적인 위치에 서서 신지식 외에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에 또는 신앙과 이성간에 어떤 공통점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로마 카톨릭 신학과 알

31) 갈 3:28; 롬 10:12; 14:9; 고전 1:26.

마니안 신학을 이성주의 신학이라고 규정짓고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말한 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모든 인간 속에 존재한다”는 진리에 입각하여 이성에서가 아니라 인간의 생득적인 신지식에서 불신자와의 접촉점을 모색하는 기독교적인 변증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성경과 이성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교회와 알마니안파의 합리주의적 성경관을 비판하고 성경은 영감된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성경을 이성의 조사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이성은 그 성격과 기능과 의의에 대해서 성경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경적 권위를 추호라도 이성적 사고와 타협하는 태도가 모든 자유주의의 시작을 의미한다”³²⁾고 말했다.

바울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든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함을 인정했다. 하나님의 객관적 계시는 인간들에게 완전하게 주어졌다. 그 계시는 너무나도 명료해서 그것에 직면하는 자들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 창조주시오,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직면하지 않은 곳에서 비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신다. 바울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들의 창조주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범죄하였다는 것을 마음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명백하게 주장한다. 바울은 인간들이 기독교의 사건들을 듣는 순간 진실된 것으로 믿게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사건을 선포할 때에 그 사건을 통하여 인자가 모든 사람에게 최종적인 심판날에 대해 확신을 줄 것이라고 말한다(행 17:31). 그러므로 그는 복음을 통해서 객관적인 진리가 인간들에게 도전한다고 하였다. 인간들은 그 사건에 대하여 회의적이거나 적대적일 수 없다. 그들은 그 사건을 받아들여야 한다. 혹은 그 사건을 억제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세상의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확한 판단을 거슬러 악한 양심을 따라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유신론에 대한 모든 사실과 기독교에 대한 모든 사실은 죄인을 보고 “당신은 계약 위반자이다. 회개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한다. 바울이 전한 진리는 회개의 반응을 요구한다. 그 회개는 전인의 사업이다. 바울의 진리는 실존적이다. 그 진리를 거역하는 것은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자살행위이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지적 그리고 도덕적으로

32) Charles Van Til, 복음과 지성의 도전, 박아론 역 (서울: 신태양사, 1985), 95-98.

로 자살하는 행위의 본성은 죄라는 것을 안다. 회개는 재판의 인식을 의미한다. 회개는 애원하는 태도를 포함한다. 즉, 긍휼과 용서와 생명에 대한 애원이다. 회개는 멸망으로부터의 도피를 의미하며 세상 지식인과 그의 동료들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에라도 천성을 향해 전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회개는 죄를 십자가에 전가함을 의미한다. 세상의 지식인이 그의 복음을 받기를 원하며 회개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이것이다. 그들은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울은 그 사실에 대하여 아주 진지하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성안에 많은 사람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던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전 9:1).

이제 예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그의 영은 그의 백성들에게 값없이 임할 것이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취하실 것이며, 그 취하신 것들을 그의 백성들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 성령은 돌 같은 마음 대신에 새로운 마음을 인간들에게 주실 것이다.

바울을 하늘의 빛으로 둘러싸고 핏박자로부터 사도로 전환시킨 성령은 인간들의 세상 지혜를 전환시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으며 또 원하고 있다는 확신에서 바울은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나아갔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지혜에 직면할 때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의 객관적 진리를 의심 없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의 편에서 어리석다는 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을 어떻게 지켜나가며 전할 것인가가 우리의 관심이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기대가 무신론자들에게 인상을 남겼을 때 무신론자들의 마음과 정신 속에 어떤 접촉점이 있지 않은가? 양쪽 모두에게 알려지는 어떤 영역이 있지 않은가? 무신론자들에 알려지지 않은 것을 알릴 수 있는 공통의 영역이 있지 않은가?

가. 로마 카톨릭의 접촉점에 대한 해석

로마카톨릭의 신학은 혼합주의와 자연신학과 보편주의로 특징지을 수 있다. 로마 카톨릭은 자연질서 가운데 있는 세상 지혜에 도전하기를 거절한다. 로마 카톨릭은 인

간의 이성주의와 인간중심주의에서 시작된 신학을 바탕으로 하였다. 로마카톨릭은 일반적 존재에 대한 사상으로 그의 철학을 출발시킨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존재가 유추적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존재 유추에 대한 사상을 신인관계에 적용하는 것은 인간의 순수한 잠재성에서 시작하여 순수한 실재성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로마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와의 차이점은 신학에서 나타난다. 로마카톨릭은 구원론에 있어서 자연주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 프로테스탄트는 구원론에 있어서 초자연주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성직 존중론적인 주장을 따르는 로마교회는 “은혜는 교회의 사역을 통하여 그것에 의해 전달된다”고 하였다.

이 신학은 자연적 이성을 중시함으로 헬라철학에 근거한 이원론이며, 인간의 원죄가 지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설이 서 있으므로 잘못된 것이고 로마카톨릭은 불신자에게도 지식의 ‘공통 영역’(common area)이 있다는 관점에서 접촉점을 찾고 있다.³³⁾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 없이 세계의 사물과 인간의 의식이 인간의 지성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을 추구한다. 여기에 로마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이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프로테스탄트의 신학은 인간의 자의식과 세계의 사물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의식의 분별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것은 삼위일체적인 존재의 총만성에서 찾을 수 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무엇이 일어나든지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인간 이해의 가장 기본적이고 최종적인 준거의 틀은 하나님이다.

접촉점의 관점에서 보면 복음주의자들도 로마 카톨릭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 인간의 자의식과 사물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없이도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주의적인 신학의 바탕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복음주의자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제하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다.

나. 개혁자들의 접촉점에 대한 해석

로마카톨릭과 알마니안주의자들은 인간의 정신에 자기충족성과 궁극점을 두기

33) Charles Van Til, The Defense of the Faith (Phillipsburg: Presberterian and Reformed Pub. Co., 1967), 76-77.

때문에 불신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가설에 대해서 도전할 수가 없다.

칼빈(Calvin)에 의해서 이루어진 개혁주의 신학은 최근에 개혁주의 신학자들인 찰스 하지(Charles Hodge), 워필드(Warfield), 아브라함 카이퍼(A. Kuyper), 헤르만 바빙크(H. Bavinck)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인간의 정신은 파생된 것이다.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계시와 접촉된다. 인간의 정신 자체가 본래적으로 계시적이다. 인간의 정신의 창조됨에 대한 인식 없이 인간의 정신을 인식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기 인식은 하나님 인식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칼빈은 이것을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신인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여기에 창조론에 계약의 개념을 추가해야 한다. 인간은 역사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인간 자신에 대한 창조의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조언자(counsel)로서 재해석하는 일과 책임을 최초로 인간에게 맡기셨다. 그러므로 인간의 창조 인식은 더욱 더 현저하게 약속 인식으로서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나 낙원에서 인간에 대한 약속의 계시는 초자연적으로 전달되어졌다.

복음에 대한 접촉점은 자연적인 인간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만 한다. 모든 인간의 깊은 마음 안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하나님께 대한 책임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안다. 마음속으로 모든 인간은 약속을 파기한 자라는 것도 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다.

참된 성경적인 견해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각인되었다는 것이 접촉점에 대한 확신이다. 이런 사실은 접촉점의 문제에 대하여 확실한 여지를 남겨 놓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사실은 항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이미 모든 인간이 복음의 진리와 이미 접촉점을 가졌음을 확신케 한다. 그렇게 많이 복음의 진리와 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그런 사실을 감추려는 헛된 노력으로 써버린다. 이런 사실을 감추려는 노력은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게 된다. 인간의 신인식의 접촉점을 찾는 것은 성경의 진리 안에서와 자연적 인간에 관한 논의의 효력 안에서의 인간 자신의 자의식에 대한 개념에 달려 있다.³⁴⁾

기독교 변증학에서는 주권적 하나님을 가정하는 사상과 주권적 인간을 가정하는

34) Ibid., 90-95.

사상 사이에는 어떤 관련성도 있을 수 없다. 그들 사이에는 정면충돌밖에는 어떤 타협점도 있을 수 없다. 합리주의와 비합리주의의 뿌리는 인간의 궁극성의 개념이다.

더욱이 로마 카톨릭주의와 알마니안적 프로테스탄트는 현대인이 건드리지 않았던 가정을 그 뿌리에 남겨두고 있다. 그들이 이 뿌리에 도전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남겨놓았던 이유는 그들의 신학적 가정이 기독교에 대한 대적의 가정에 약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창조주보다 더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는 이교도에 도전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그들 자신이 전적으로 조물주를 섬기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혁주의의 신앙에서만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 전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사실은 자연에서나 성경에서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는 것이다. 이 모든 사실은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고 경배할 의무를 주장하고 있다.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은 최종적인 빛인 성경으로 돌아가서 도처에서 자기에게 직면하는 모든 사건들의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실한 프로테스탄트주의는 창조주와 피조물을 근본적으로 구별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편에 대한 초자연적이요, 적극적인 사상 교통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은 낙원에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다. 인간은 혼자서 자연 계시에 대한 연구를 쉬지 않았다. 자연 계시는 초자연적 계시에 의해서 성취되고 보충되며 역사의 시초부터 있었다. 두 계시는 피차 포함된다. 그리고 서로 보충적이요, 하나로만은 지적이 아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다. 인간의 삶의 목적을 생각하는 중에 본성의 위치와 기능을 알려고 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의 그 목적은 직접적이요 초자연적인 교통에 의하여 제시되었다. 이것은 성경의 교리에 의하여 제시된 것이 분명하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사상 교통의 빛 가운데서 걸었다. 초자연적인 사상 교통은 인간 고유의 것이다. 그 교통은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성에 포함된다. 그러한 교통이 없는 인간의 삶은 무의미한 것이다. 하나님과 영적, 사상적 교통이 없는 인간을 생각한다는 것은 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성경은 인간이 죄 가운데로 타락한 후에도 단순하게 이 교통을 전해 준다. 성경은 죄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상적 교통이다. 그러나 죄인들은 그러한 교통에 어떤 형태를 파괴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인들이 파괴할 수 없는 계시의 형태를 주셨다. 성경

에 있는 바와 같이 이 교통은 인간의 삶이 다만 지적이라는 말이다. 성경에서 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그 빛을 떠나서는 어떤 것이 대한 설명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³⁵⁾ 그러므로 개혁주의적 신학자들은 프로테스탄트들에게 현대인을 불러 그들의 삶을 성경의 하나님에 의해서 해석하게 하도록 강청하고 있다. 그때에 진정한 마음의 말씀이 있을 수 있고 복음을 위해 승리해야 할 자들과는 진정한 접촉점이 있을 수 있고 세상 지혜에 대한 진정한 도전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에 크리스찬들은 진리를 전해야 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긍휼과 동정을 인식케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진리를 듣노라면 그들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유일한 구세주인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될 것이다.

2. 목회학적 해석

가. 오늘의 교회의 목회적 위기

지난 선교 1세기 동안에 한국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계속해 왔다. 그 성장은 어떤 이들이 말처럼 세계 선교 사상 유래가 없는 과히 괄목할 만한 성장이었다. 이것은 세계교회의 관심과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였다. 이러한 성장은 한국교회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국가적인 경제개발과 발전의 기류에 의한 영향, 교역자들의 적극적인 믿음과 사교에 의한 목회, 그리고 성도들의 헌신적인 기도와 전도의 결과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한국교회가 요즘 정체 위기가 처해 있다. 전도는 점점 힘들어지고 교회의 성장이 급속하게 둔화되고 있다. 한국교회의 이러한 심각한 위기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1992년 휴거소동과 같은 기독교적 이단 사설의 허무맹랑한 교리와 반사회적 현상에서 나타나는 교회의 존재가치에 대한 평가절하, 그동안의 한국교회의 전도와 그에 따른 성장과 부흥이 교회의 이기적인 행위로 평가됨으로써 나타나는 사회적 불신감, 교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신앙과 행위가 일치하지 못하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생활로 인한 공신력의 상실, 경제발전과 가치관의 상실에서 오는 향락과 퇴폐적인 사회분위기와 그 유혹, 이런 것들이 전도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35) Ibid., 26-28.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의 한국 교회가 교회 본래의 기능과 사명을 다하지 못한 데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지나치게 성장 위주이며, 이기적이며, 기복적이며, 비윤리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러한 비난을 받게 된 것은 사회와 이웃에 대한 섬김과 나눔, 즉 교회가 사회에 대한 봉사적인 기능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에는 다섯 가지 사명이 있다. 즉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친교이다. 이 5대 사명을 교회로 하여금 감당하고 수행케 하는 것이 목회이다. 이 다섯 가지의 사명을 균형 있고 그리고 조화 있게 감당하는 것이 바른 목회이며 건강한 목회이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런 사명들 가운데 봉사적인 사명을 소홀히 해왔다. 교회 안에서의 구제와 봉사는 있어도 지역사회와 세상을 향한 대외봉사는 거의 형식적이거나 빈약한 상태였다. 그래서 교회가 교세확장과 시설확충, 교회성장에만 치중하고 급급한 나머지 지역과 이웃과 민족에게 봉사하는 일에는 등한히 하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회가 이렇게 되다보니 '교회가 사회에 존재할 가치가 있느냐'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이고 교회의 대사회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비판과 지적을 오히려 심각한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냉대 받는 교회가 되고 말 것이다.

농촌교회의 현실을 볼 때 교회가 사회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농촌 목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실감하게 된다. 교회가 왜 지역사회에 필요한 존재인지에 대한 생각이 없다. 교회는 지역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족의 유대관계를 깨뜨리고 조상에 대한 제례를 드리지 않는 그러한 단체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가 사회에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오늘의 이러한 목회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바르게 목회해 나갈 것인가가 목회적인 과제이다. 이러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회봉사이다. 이러한 교회의 사회봉사로 말미암아 교회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접속점이 되어 목회의 장을 사회로 확대해 나가며, 교회가 지역사회에 변화의 주체가 되고 사회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가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고 느끼게 해야 한다.

교회가 사회 봉사의 사명을 잘 수행하는 것은 전도가 단순히 교회의 이기적인

수단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될 뿐 아니라, 가장 강력한 전도의 무기가 될 것이다. 즉 교회가 이웃을 섬기고 그들과 더불어 나누는 공동체가 될 때, 교회가 결코 교인들만을 위한 이기적인 집단이 아님을 보여주며 주민들과 이웃의 비난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그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이제 목회적인 관점에서 예배, 선교, 교육, 친교와 함께 소홀히 여겨온 봉사 기능을 강화하여 균형 잡힌 목회, 건강한 목회, 성숙한 목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나. 지역사회 봉사에 대한 목회학적 해석

흔히들 교회의 사회 봉사적인 사명을 부차적이고 이차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고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요, 섬기러 오셨다고 했고 목숨까지도 바쳐서 섬기시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봉사가말로 주의 몸 된 교회의 본질 중의 본질이며, 사명 중의 사명이다. 오늘의 목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교회의 봉사에 대한 인식부터 달라져야 한다.

주의 몸 된 교회로서의 사명은 무엇인가? 교회와 사회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어떻게 관계하시는가? 또한 예수님은 세상을 어떻게 대하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이런 모든 질문들이 목회적인 관심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만이 아니라 이 세상 전부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람은 사랑과 구원의 대상이지 미움과 저주의 대상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동떨어져 계시면서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에 대한 구원을 베푸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세상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역사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향한 사랑이며, 세상 가운데서 행하신 사랑이며, 그 세상을 돕고 변화시키는 사랑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세상 가운데로 들어오셨다. 이 성육신이, 곧 사회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구원이며,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이다. 이러한 목회 신학적인 바탕에서 세상과

교회를 연결하는 접촉점의 고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목회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스승과 모범이신 예수께서는 세상과 봉사에 대하여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먼저 예수께서는 그의 오심이 우리를 섬기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신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변화산 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고통과 죄와 병과 슬픔과 절망의 아우성이 있는 변화산 아래로, 세상으로 내려오신 분이시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그를 따르고 섬기는 우리 안의 양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며, 또한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까지도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다(요 10:15-16).

그리고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4-15절에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고 했다. 또한 예수의 비유 가운데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의 이야기는 교회의 양면성을, 즉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가르치고 있다. 겨자씨 비유는 교회의 성장을 말한다.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듯이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해야 한다. 동시에 교회는 누룩의 역할을 해야 한다. 누룩 가루 서 말을 변화시키듯이 교회는 지역사회 속에서 선교와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여 그 사회를 변화시켜 천국을 건설해야 한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의 섬김의 모습이며 오늘날 교회의 목회가 지향해야 할 일이다.

이 땅에는 세 종류의 교회가 있다. 피안의 교회, 세속화된 교회, 변화의 교회가 그것이다. 첫 번째 교회는 세상과 유리된 교회로서 교회의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교회이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의 탁류 속에 침몰한 교회로서 교회의 거룩성과 생명력을 상실한 교회이다. 이 둘 모두 실패한 교회이다. 세 번째로 변화하는 교회는 자신의 발전과 갱신을 이루면서 동시에 세상까지 변화시켜 나가는 교회이다.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존재의 의미를 간직한 바람직한 교회이다. 그리고 목회자가 목회의 현장에서 이루어야 할 교회의 참된 모습이다. 이런 교회의 참된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세상 즉, 이웃과 지역과 사회에 관심을 갖고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나눔과 섬김의 봉사를 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교회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본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교회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예수께서 친히 이 세상 가운데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지역과 사회를 위하여 섬김과 나눔과 봉사의 삶을 감당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마땅한 사명이며 본질이다. 이러한 목회적인 비전을 갖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목회적인 접촉점을 찾는 것이 바로 목회자에게 주어진 실천적인 과제이다.

다. 접촉점 개발을 위한 목회 방향

사회봉사를 목회적인 입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실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통일된 해답은 없다. 개 교회가 처한 지역사회의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본 연구자가 목회하는 농촌지역은 농촌 실정에 맞는 목회적인 사회봉사활동을 목회적 차원에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회의 사회 봉사는 어디까지나 예수의 사랑의 정신으로 교회가 사회를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의 여건이나 지역사회의 구조와 성격에 따라서 그 성격과 방향이 크게 다를 수 있다. 봉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목회적 차원에서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한 선교를 위해서 접촉점을 개발하려면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적인 발상을 새롭게 하는 목회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흔히 교회의 사명을 예배, 교육, 전도, 봉사, 친교라고 한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다섯 가지가 골고루 강조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현실을 볼 때 지나치게 모이는 교회로서의 기능이 강조된 나머지 예배, 교육, 전도, 친교 중심의 교회구조로 정착된 감이 없지 않다. 봉사는 교회 내의 봉사를 강조하지만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는 기껏해야 일과성에 그치고 구제사업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목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프로그램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위한 어린이집 운

영, 신용협동조합운영, 경로잔치, 교도소 선교, 지역주민을 위한 근린체육공원 조성, 작은사랑나누기 운동, 청소년 공부방 운영, 무료컴퓨터실 운영, 주부교실 운영, 노인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목회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교회와 사회에 막혀있던 벽을 허물고 교회가 사회를 향하여 섬기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 줄 때 선교적인 접촉점이 이루어져서 지역을 복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3. 선교학적 해석

선교하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려고 할 때 하나님 나라는 시간적, 공간적, 영적 영향력 등 모든 면에 있어서 교회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교회는 늘 세상과 마주치게 되어 있다. 교회가 선교적인 본질을 발휘하여 밖으로 나가는 운동을 할 때 교회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로 보내어졌음을 알게 된다. 1960년대 중반에 요한네스 호켄다이크(J. C. Hoekendijk)와 세계교회협의회는 하나님, 교회, 하나님 나라 등 어느 것에 관해서 논할 때 모든 대화의 최전반부인 세상에 대하여 논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안건은 세상이 정한다”³⁶⁾고 하였다. 호켄다이크와 다른 사람들이 보여 준 교회에 대한 비관주의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거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했다.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성경적인 순서(하나님-교회-세상)를 새로운 순서(하나님-세상-교회)로 바꾼 것은 마침내 교회가 선교에 참여하는 것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과연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만이 중요한 일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행동주의를 선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행동주의는 교회, 영성, 교제, 제자도 등으로부터 우리의 등을 돌리게 하였다. 그 결과 목적도 불분명하고 영향력도 미미한 빈껍통과 같은 행동주의자가 되어버린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교회를 무시하고 오직 세상만을 선택함으로써 인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진정으로 참여하는 것을 상실해 버리고 말았다.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바로 이해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교회와 세상의 선교적 관계를 하나님 나라의 시공간 안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36) Charles Van Engen, 모이는교회, 흩어지는 교회, 임윤택 역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4), 156.

헤르만 리델보스(Herman N. Ridderbos)는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대하여 새롭게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첫째로, 교회는 기독교인의 자유를 위해서 부름 받았다. 즉 사회에서 '인간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의 요람'이 되는 각 개인의 올바른 위치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교회의 모든 생활과 봉사는 곧 세상을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 예배란 세상에서 우리의 은사들을 사용함으로 우리의 몸을 선교하는 일에 드리는 것이다. 지역 교회의 특수성은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지역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자유를 주는 것이다. 실제로 이것은 선교하는 교회가 교회로서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게 변화시키는 교회의 영적 생활을 의미한다. 지역교회는 그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제도화된 기관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제도적인 교회를 문화적 혹은 정치적 운동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교회와 세상 사이의 구분선을 지워버리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라도 교회는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사회적, 정치적 정의를 포함하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확실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러한 부르심은 결코 개인적인 영적 범주에 제한되거나 경제, 사회적인 자유의 범주에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모든 삶의 부분을 하나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아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것이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목적은 일시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리델보스가 말한 대로 지금의 세상에는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가 강하게 존재하며, 성령의 능력과 임재하심을 우리는 믿고 있다. 하나님 나라는 단지 하늘에 영광 중에 있는 나라가 아니다. 성령은 아직도 기다리시며 교회와 함께 기도한다. "오소서, 주 예수여." 하나님 나라의 일시적인 임재는, 지역 교회로 하여금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과 이 세상을 유평피아로 여기는 것을 부정하도록 계속 자신을 돌보는 것을 강권한다. 교회 모두의 왕이 되신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로 주님을 보내셨기에 교회는 이 세상에 그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선교하는 교회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강권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임재하심으로 성령은 그 능력을 발휘하신다.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는 것이 개인적인 일, 공동체인 교회, 몸 된 교회의 일이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를 세상으로 인도한다. 이 점은 선교하는 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

하나님 나라의 일시적 상징인 지역교회는 문화적 상황화 이상이요, 복음의 토착화 이상이다.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을 기다리면서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행정 조직을 갖고 있어야 한다. 찰스 크래프트(Charles H. Kraft)가 교회와 주변 문화의 관계를 깨우쳐 준 것처럼 기독교는 문화 속에 있다.

새로운 세대와 문화가 자신의 문화적 형태 안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전달할, 적절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책을 번역할 때 그 사회에 맞는 문장을 쓰는 것 같이, 다른 곳에서 수입하여 잘 맞지 않는 것 보다 교회는 현대문화와 상황에 맞는 독창적인 원 제품을 만들어 피동적 방관자들에게까지 영향을 주어야 한다. 우선 순위는 원래 문화 속에 의미하던 것과 동일한 의미를 수신자 문화에서 전달하는 것이어야 한다. 번역에서와 같이 교회의 문화를 바꾸는 데에도 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³⁷⁾

이러한 접근 방법은 선교학적 관점으로 아주 중요하고 인류학적인 관점을 보여 주며, 교회-하나님 나라-세상의 역동적 관계를 보는 실제적인 적용이 된다. 교회는 어느 특정한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 되는 여러 개인적인 방법들을 통해 그 의미를 분명히 한다. 세상은 타락했고 그 속에 완전한 문화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른 한 면을 강조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이다.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리신 것은 교회가 아닌 세상을 위함이다. 그리스도가 살아 있는 희생제물, 어린양으로서 보내진 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이었다. 지구 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과 교회를 둘러싼 수천의 다양한 문화들의 미래상을 그리면서 교회는 어느 곳에서든지 그 문화 상황에 맞는 교회가 되고, 왕의 언약 백성인 본연의 모습을 더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역 교회가 어떻게 자기 역할을 할 것인가는 교회가 속한 주변환경과 아주 깊은 관계를 갖는다. 이러한 상황화는 말씀이 갖는 모양과 형태 자체나 어떤 활동을 해 나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고려하게 된다. 상황화는 모양, 스타일, 생활 태도와 지역교회가 속한 특수 상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교회가 처한 상황에서 예언자적, 제사장적, 왕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과정이다. 교회 자체가 자신의

37) Charles H. Kraft, Christianity in Culture (New York: Orbis, 1979), 318-326.

문화 가운데서 역동적인 상호관계를 가지며 세상을 위한 예언자, 제사장, 왕으로 온전하고 확실하게 상황화가 되어야만 한다.

그리스도의 사역에는 '치유자'와 '자유케 하는 자'라는 두 개념을 더 포함하고 있다. 이 두 가지의 개념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위탁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치유자의 역할은 특별히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치유란 몸의 치유, 마음, 정신적 스트레스, 영적 질병 등을 치유하는 것을 말하며, 교회는 구속함을 받은 공동체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외치는 치유자의 역할을 성취한다.

더불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자유케 하는 자로서의 사역으로 죄의 삶에서, 죄의 결과에서, 악령의 놀림에서, 율법의 징벌에서, 깨어진 관계에서 자유케 하셨다. 그러므로 먼저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로써 세상에 엮매인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는 영적, 감정적, 개인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자유 등을 점점 더 중요한 교회 사역과 역할의 일부로 이해하여야 한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사역하지 않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나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성직자도 평신도도 같은 마음으로 조직체든 비조직체든 함께 교회의 선교적 본질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사역을 해야 한다.

예언자, 제사장, 왕, 치유자, 자유케 하는 자의 활동은 아주 중요하다. 이 용어들은 지역 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에게 교회가 어디에 목적과 목표를 두고 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안목을 제공하여 주며, 예수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서 교회가 무엇을 하는가로 교회의 본질을 바꾸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선교하는 교회를 세상 가운데로 몰아가서 교회가 신앙고백에 있는 그대로를 사실과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일깨우며,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케 한다. 세상에서 하는 사역들을 통하여 교회는 그의 본질을 찾는다. 이 점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마 25:45)고 말씀하셨다. 교회는 세상을 향한 사역을 계속하는 가운데 대사, 증인, 주님의 대행자라는 특성을 발견한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에 대해 갖는 비전은 우리로 세상이 교회를 필요로 하는 것과 같이 교회도 세상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교회가 창조세계와

인간 세상에서 선교적 역할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가질 수 없다. 교회는 영적인 교제의 장이며 동시에 세상 속에 있는 성도들의 육신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처럼 교회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리스도가 빛으로 비취시는 어둡고 사악한 세대에서 교회가 가진 구원을 이루어 간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에게 선교의 정신을 심어주고, 자라게 하고, 나아가게 하시는 강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선교하는 교회가 된다. 예수님 자신이 특별히 선택하신 제자들에게 주님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도록 가라고 명령하신다. 교회는 사람들을 소금통 속에 담아 놓고는 교회 안의 일만 생각하고, 교인들끼리만 늘 모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늘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과연 교회의 특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성도들을 훈련하고 보내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이 세상 모임과 같다면 소금은 짠맛을 잃을 것이고 길에 버리워 밟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성도의 교통함은 특별히 세상을 향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이 되지만 세상을 향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목적과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교회의 지도자는 교회가 세상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지도력을 잘 발휘해야 한다. 선교하는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 주위를 돌아보고 그들의 처한 상황을 도와서 진리와 정의, 믿음, 소망, 사랑을 전하고 선교적인 관점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한다.

현대 교회론의 변증법적 관점은 '위로부터'와 '아래로부터'의 관점을 좁히는데 도움을 주고 지역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돕는다.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를 시작으로 '성도의 교제'(communio sanctorum)를 교회론에서 강조했고, 칼 바르트(Karl Barth)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스스로 자라게 하지만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의 노력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한다는 사상을 계발하였다.³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부르심, 가르침, 소명, 명령, 목적을 순종할 때 그들은 교회가 물려받은 선교에 동참하게 된다. 이러한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교회로서의 구실을 잘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려면 교회의 본질을 잘 드러내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38) Ibid., 182-184.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신 선교적 본질이 실제 교회가 이루어져 가야 할 교회의 실제적인 목표가 된다.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에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성도들이 활동하며, 지도력을 발휘하고 행정을 한다.

요한네스 베크윌(Johannes Verkuyl)은 교회 선교사역의 궁극적인 이유와 어느 특정한 선교사역의 결과로 장기적인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만 설명한다. 그는 세상을 향해 선교하는 교회에 다음과 같은 우선 순위들을 제시한다.

1. 개개인의 영혼 구원을 위한 경건한 목표
2. 교회 개척
3. 삼자의 원칙
4. 교회의 수적 성장
5. 기독교 단체
6. 사회 복음(the social gospel)
7. 사회 구조들의 개선(improving macrostructures)
8. 하나님 나라의 건설³⁹⁾

교회의 사역과 생활에 있어서 우선 순위는 선교하는 교회의 본질에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교회의 문화적 특성과 주변 환경에 적절하고, 교회의 주변 환경 사이에 있는 상호 작용의 변화에 적절한 것이어야 함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것을 딘 길릴랜드(Dean Gilliland)는 '교회의 상황 참여성'(contextuality)이라고 하였다.⁴⁰⁾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교회 생활과 사역은 계속 변하게 된다. 교회의 우선 순위는 주변 문화와 환경이 갖고 있는 특성에 맞게 세워져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우선 순위들은 교회 공동체와 주변 문화의 변화에 따라 계속하여 재평가되고 새롭게 세워져야 한다. 이러한 재조정 과정은 선교 사역을 개인적으로나 상대적인 것으로 변질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우선 순위를 세움에 있어서 육신을 입으신 말씀 곧, 예수님의 유일하며 거룩하고 통일성이 있는, 본질적으로 선교하게 되는 교회의 우선 순위만 세울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때에야 이 둘의 관계가 어떠해야 함을 알게 되고 세상을 향하여 선교하는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

39) Johnnes Verkuyl, *Contemporary Missi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78), 176-197.

40) Dean Gilliland, *Pauline Theology and Mission Practice* (Grand Rapids: Baker, 1983), 209.

제 3 장

접촉점 개발을 위한 지역사회와 지역교회의 분석

제 1 절 제주 지역 사회의 상황 분석

제주도는 한반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섬으로서 예로부터 삼재의 섬으로 알려질 정도로 돌과 바람이 많고 토지는 척박하여 사람이 살기에는 어려운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수천 년 동안 한반도로부터 고립되어 독자적인 생활공간을 유지해 왔으며, 한반도와 중국 및 일본과의 중간지점에 있는 섬이어서 북방문화와 남방문화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북으로는 목포와는 141.6킬로미터, 부산과는 286,5킬로미터, 동으로는 일본 쓰시마섬(대마도)과는 255.1킬로미터이고 수리적으로는 동경 126도 08분에서 126도 58분까지이며, 북위 33도 06분부터 34도00분까지이다. 제주도는 7개의 유인도와 55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져있으며, 유인도는 우도, 상추자도, 하추자도, 비양도, 흰간도, 추포도, 가파도, 마라도이다. 남북간의 거리는 약 31km, 동서간의 거리는 약 73킬로미터이다.

제주의 명칭은 도이, 동영주, 주호, 탐모라, 섭라, 탁라, 탐라, 제주 등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불렸다. 1915년 도제 실시와 함께 제주도라 했으며 1946년 도제 실시로 전남의 관할하에서 벗어났으며 1955년 9월 1일 제주읍이 시로 승격되었으며 1981년 서귀읍과 중문면이 합쳐서 서귀포시로 승격되었다.

삼국시대까지는 반독립 상태를 유지해 오다가 고려에 예속되어서 간접 통치를 받게 되었으며 100년 동안 몽고의 지배를 받은 일도 있었다. 조선 초에는 강력한 중앙집권정책으로 일개의 군현으로 전락되어 독자성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중앙정부로부터 파견된 탐관오리들의 횡포와 착취가 심했으며 게다가 왜구의 침입도 자주 있었다. 그리고 거의 해마다 풍수해를 입었으며 흉년이 자주 들어서 생존하기에 매우 어

려운 버림받은 섬이었다. 또한 조선시대는 정치적인 유배인들이 유배지가 되어서 유배문화를 낳게 되었고 그들의 제주 사회에 입도 선조들이 되었다.

제주에 복음이 전파된 것은 1907년 대한예수교장로회 독노회에서 한국교회 최초의 목사 7인 가운데 이기풍 목사를 제주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하여 이루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1908년 4월경 이기풍 목사가 제주 땅을 밟음으로써 비로소 개신교 선교의 역사는 시작되었다.⁴¹⁾

일제식민지하에서의 수탈과 해방 이후에 좌우익의 소용돌이 속에 1948년에는 4·3사건이 일어나 좌우익과 양민을 포함하여 인구 27만 중 3만 명이나 희생을 당하여 죽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주도민의 겪었던 물질, 정신적 피해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 4·3 희생자들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들을 위한 피해보상은 물론 정부차원에서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6·25 사변으로 15만 여명 이상이 제주도에 유입됨으로서 제주 인구가 증가하게 되었고 제주 선교에 새로운 영적 운동이 일어났고 교회가 많이 세워지게 되었다.

이처럼 제주 사회는 독특한 자연환경과 역사적 배경과 지리적인 환경을 갖고 나름대로의 문화를 형성하며 오늘날까지 살아왔다. 이런 제주 지역사회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이런 모든 상황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영향들을 미치게 되었으며 어떻게 복음의 접촉점을 개발하여 복음을 증거 할 것인가가 제주 선교의 과제라고 하겠다.

1. 접촉점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종교 사회 문화적 요소들

제주의 땅은 척박함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어업이 제주도 사람들의 삶의 방편이었다. 자연 재해가 많은 지역에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고 바다의 풍어를 기원하는 마음에 여러 신들을 섬기게 되었고, 자신과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도 자연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무속신앙이 많아졌다. 그리고 이런 것들과 더불어 불교와 유교를 동시에 믿는 혼합주의적 종교의 양상을 띠고 있다.

그래서 제주를 '신들의 섬'이라고 할만큼 신들이 많은 섬이다. 제주에는 무려 18,000개가 넘는 신들이 있다. 친족의식과 조상제사가 강하며 현재까지도 사후 혼인이

41) 강문호, 문태선, 제주선교 70년사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1970), 30.

라는 풍습이 남을 정도로 토속적인 민간 신앙에 삶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교적인 배경은 제주를 복음화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무속적인 혼합종교를 어떻게 극복하고 기독교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가 선교의 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

가. 제주의 토속신앙

제주도는 섬이라는 자연적 한계성, 특히 거센 파도와 바람과 척박한 땅과 싸우며 살아야 하는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민간 신앙의 자취를 섬 전체에 남겼다. 이러한 무속신앙은 오늘날까지 행해지는 것도 있고, 자취를 감춘 것도 있지만 섬 주민들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의 신앙의 형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제주의 지리적, 사회적, 환경적인 영향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민간 토속신앙은 삶의 위로와 희망을 주는 수단이 되었다. 그 결과 무당이 성행하게 되었고 뱀신 등을 숭배하는 일가지 생겨나게 되었고 가는 곳마다 신목과 신당 등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부락수 187개, 신당수 248개, 심방수(무당)251개, 설화 507개로 나타나고 있다.⁴²⁾ 그러나 그 와중에도 무척이나 다행스러운 것은 이러한 신당수나 무당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토속신앙 가운데는 '신구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3일까지는 묵은 신은 올라가고 새로운 귀신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 기간에 이사도 해야 되고 화장실도 고쳐야 되고 집안 수리도 해야 제주도 말로 '동티'가 나지 않고 액땀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풍습은 아직까지도 민간 전래 신앙으로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무속신앙 의식들도 많다. 예를 들어 득남을 위한 의례, 질병 치료를 위한 의례, 사망 후의 무혼공양 의례, 가정에서의 신년제, 건축이나 조선 시 의례, 풍어제, 풍년제, 부락제(당굿) 등이다.

제주도에는 유교적인 의례가 있어서 이를 행하고 있는데 산제와 포제가 있다. 산제는 일명 토지신제인데 연초 구정이 되면 길일을 택하여 밤에 행하는 제로서 가정에서 행해지는 민간신앙의 한 형태이다. 그리고 포제는 도내의 각 부락마다 행해지는데

42) 한관용, "제주 지역에 있어서의 기독교 선교환경과 선교전략" (목회학박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풀러신학교, 1987), 69.

대상은 포신지령이며 제법은 향교의 석존제와 같다. 이 포제를 지낼 때에 협조자가 되지 않으면 파돌림을 당하기도 한다.⁴³⁾ 또한 집안에서 조상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는데 그 때에는 친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집안의 결속을 다지며 조상에게 제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 조상제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친족에서 제외시켜 애경사시에도 돌아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지역 가족공동체와의 인연을 끊고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희생과 어려움이 있다. 조상의 묘소에 벌초를 하는 것도 가족공동체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벌초 행사에 함께 참여하지 않게 될 때도 친족에게서 파돌림을 당하게 된다. 이러한 행사들을 통하여 씨족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하며 공동체의 일원임을 깨닫게 하고 관계 형성을 보다 더 친밀하게 유지시켜 나가고 있다.

방사탑은 말 그대로 풍수지리상 지세가 허한 곳에 세운 탑으로 사악한 기운을 방지하는 주술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 보통 농어촌의 부락의 어느 한 쪽에서 불길한 징조가 비치거나 아니면 어느 한 지형이 비고 허전하다면 그러한 허한 방위를 보강해야 부락민이 부하고 평안하게 된다고 믿는데서 짚아올린 것이 곧 방사탑이다. 본래 이러한 탑을 짚아올릴 때는 반드시 그 속에 누금(밥주걱)이나 솔을 묻어놓고 그 위에 돌담으로 사람의 키 높이 이상 짚아 올렸다. 밥주걱과 솔을 묻는 이유는 솔의 밥을 굽어 담듯이 외부의 재물을 그 부락으로 굽어 담으라는 뜻에서이고, 솔은 무서운 불에서도 끄덕 없이 이겨내는 것이니, 그 부락민의 재난을 막아달라는 뜻에서라고 한다.

이러한 제주의 민간신앙은 현재 남아있는 것도 있고 없어진 것도 있지만 제주인의 마음 속에 자라 잡고 있는 하나의 신앙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무속적인 사고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은 진정한 삶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나. 제주의 불교

제주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동국여지승람, 남사록, 고려대장경 법주기에 보면 석가모니 제자 16존자 중 발타라 존자가 탐몰라주에 불도를 전파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제주가 부처 당시에 불교가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⁴⁴⁾ 이곳이 바로 한라산 영실 내에 있는 불래오름 존자암으로 당시 태국안민을 기원했던 국성제를 지냈다는 기록과

43) Ibid., 71.

44) 조승철, 제주의 종교 (제주: 도서출판 사월, 1993), 15.

제단이 현재 남아 있다. 제주도에 대대적으로 사찰을 건립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 11대 문종왕 11년 가을부터이다. 이때에 화원에 법화사가 세워진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려시대에 흥왕했던 불교는 이조시대에 들어와서는 척불정책에 의해서 수난을 받았는데 제주도의 불교도 탄압을 받았는데 숙종 때는 130여 개의 절이 소각을 당하였다. 그러나 1895년 4월 고종 32년에 서울에 승려입성금지령이 해제되면서 승려들이 포교가 시작되어 평양 영명사가 본사이며 금강산 석왕사 등에서 수행한 회명이라는 승려가 내도하였다. 회명은 관음사를 창건하였다.⁴⁵⁾ 그리고 화북출신인 안봉로관이 해남 대흥사에서 수계한 후 한라산에 대흥포교소를 건립하였다. 이때부터 불교가 중흥하였다.

제주 불교의 사찰현황을 살펴보면, 조계종 사찰수가 55개, 태고종 사찰수가 72개, 일불선교종 사찰수가 38개, 법화종 사찰수가 22개 그 외에도 원효종과 천태종 등 25개의 사찰이 있다. 신도수 약 13,200명이다. 그외에도 원불교 10개, 천도교 2개, 대종교 1개, 기타종교 70개 등 많은 종교들이 있고 사이비 신흥종교들도 있다. 이렇게 제주도 지역사회는 다양한 종교들이 합쳐져 있는 종교 다원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기독교 249개, 천주교 36개, 불교 242개, 원불교 10개, 기타 종교 70개 등 다양한 분포를 이루고 있다.⁴⁶⁾

이런 종교 사회 문화적인 영향 때문에 제주도는 복음전도가 매우 어려운 지역적인 여건을 갖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방법은 교회가 적극적인 대사회봉사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교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한 접촉점을 개발하고 복음을 전할 때 제주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2. 접촉점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회 문화 환경적인 요소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새로운 발돋움을 하면서 동북아의 물류중심지가 되며 금융유통중심지로 부상하게 되면 패쇄적이었던 제주지역 사회가 개방화의 바람을 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종교 사회 문화적인 다방면에서 관습적으로 행해졌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의식개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개방화와 세계화로 말미암아 많은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세계화 개방화는 제주지역사회를 복음

45) Ibid., 16.

46) Ibid., 9-237.

화 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제주는 천혜의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갖고 있다. 이러한 관광 자원을 잘 활용하여 가꾸어서 세계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제주를 찾게 함으로서 제주가 세계에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서 부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평화는 복음을 전파하여 기독교적인 평화를 이 땅에 실현함으로서 진정한 평화의 섬이 될 수가 있다.

제 2 절 제주 지역 교회의 상황분석

1. 제주선교의 역사

한국 최초의 목사 7인 중 한 사람인 이기풍 목사가 1907년 9월 17일 대한 예수교 장로회 독노회의 결정으로 최초의 한국인 선교사로서 제주에 파송을 받음으로서 제주 선교는 시작되었다. 그 다음 해인 1908년 이른 봄 이기풍 목사는 바다항해를 하는 중에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들을 넘기며 천신만고 끝에 제주도에 상륙하여 성내교회(현재 성안교회)를 설립한 것이 제주 선교의 출발점이다.

제주도 선교사업은 1907년 독노회에서 결의하고 총회가 주관해 오다가 1913년 전라노회가 총회로부터 인수받아 주관했으며 1917년 전남노회가 전라노회로부터 분리되면서 주로 전남노회가 주역을 맡아 제주 선교에 전력하였다. 그후에 제주노회가 조직된 것은 1930년 11월 14일이었다. 1948년에 일어난 4·3사건으로 말미암아 제주출신 최초의 목사였던 이도종 목사와 17명의 성도가 순교하였고 5개 교회가 소실되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다.

감리교는 6·25전쟁 중인 1950년 12월말 경에 명제영 목사가 들어와 1951년 1월 14일 제주동부교회에서 처음 주일 예배를 드린 후 17일 저녁예배에 교인들이 따로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현재 제주 중앙교회이다. 이후로 여러교단들이 제주 선교에 기여하게 되었다.

현재 제주도 기독교인의 현황을 보면 총인구 534,715명 중에 42,235명으로 복음화률이 8퍼센트에 이르고 있다. 교회수로는 제주시가 110교회, 서귀포시 54교회, 북제주군 61교회, 남제주군 48교회로 총 273개 교회가 제주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⁴⁷⁾

제주선교의 특징을 보면 이기풍 목사의 선교방법에 잘 나타나 있다. 먼저 인간관계를 잘 맺은 후에 복음을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사랑의 섬김과 성령의 감화 감동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복음을 전했다. 또한 귀신을 쫓아내며 미치광이들을 치유함으로써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일제 강점기에는 애국 애족의 독립운동을 실천하였고 3·1 운동 당시에 독립군을 위한 자금을 모금하기도 하였다. 1919년 5월 김창규 목사가 독립운동의 군자금을 모금하기 위하여 상해임시정부의 독립운동에 관한 문서와 해외 통신문을 가지고 서울에 돌아와서 기독교 계통을 통하여 모금하였다. 이 때 김창규는 제주교계의 인사인 김창국 목사, 조봉호 전도사, 최정식, 김창언 등과 접촉하면서 독립희생회 지방조직에 착수하였으며, 교회를 연락망으로 삼고 기독교인들과 지방 인사들의 호응을 얻어 독립군 자금 일만원을 모금하여 송금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동년 7월에 탄로나 조봉호, 최정식, 김창국, 이도종, 문창래, 김창언 등 관련자 60명이 구속되기도 하였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고를 치른 기독교인들도 있었다.⁴⁷⁾

4·3 사건의 혼란기도 있었다. 이도종 목사가 순교를 당하였고, 모슬포교회 허성재 장로도 순교를 당하였고 그외에도 공비에게 피살을 당한 성도가 12명이나 되었다. 국군에 의하여 3명의 성도가 희생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교인들의 재산상의 피해도 많았다. 공비에 의하여 5개의 교회가 소실되었고 40동 가옥이 소각을 당하였다. 공비에 의하여 약탈을 당한 기독교인 호수가 16호에 이르며 군작전상 소개령으로 인하여 소각당한 가옥 수도, 67동이나 된다. 이런 사회적인 혼란기에도 교회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1949년에는 전도대를 조직하여 전도적인 전도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때 전도운동의 결실들이 1951년 이후 피난교인들과 연결이 되어서 마침내 제주에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다.⁴⁸⁾

2. 제주선교의 특징

일제강점기에는 애국 애족의 독립운동을 이끌어 갔으며,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순교의 희생정신이 있었다. 4·3혼란기에는 마을 주민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순

47) 한국컴퓨터선교회, 대한민국 복음화 현황 (1998), 1

48) 강문호, 문태선, 제주 선교 70년사, 43-46.

49) Ibid., 66-67.

교자들이 있었고 교회당이 소실되는 등 시련기였다고 할 수 있다. 민족적 혼란기였던 6·25전쟁은 피난교인들의 제주도에 유입됨으로 말미암아 제주교회가 부흥하는 전도의 열기가 고조되었다. 그리고 피난민 교인들의 교육선교에 기여함으로써 제주 지역 사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일반학문을 가르침으로서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게 되었다.

제주 선교의 특징은 우선 교육선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1910년 영흥학교를 통한 문맹퇴치, 민족주의를 함양 고취시켜 나갔고 1924년 제주도내 에서는 처음으로 제주중앙유치원이 설립됨으로서 일반인들에게 교회를 홍보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1951년에는 송죽학원이 세워졌고, 1972년 제주영락고등공민학교의 설립으로 성인교육이 이루어짐으로 일반인들에게 교회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일제시대 때는 민족정신을 일깨우게 되었고, 경제적인 빈곤기에는 사회교육차원에서 공헌하는 바가 컸다. 최근에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제주상업학교가 선교의 장을 넓혀가고 있고, 제주기독교학교 설립기획단이 발족되어서 제주 선교를 향한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둘째로 영성훈련의 장으로서 사경회를 극대화하였다. 1939년 제주시 성안교회의 사경회 때는 남쪽인 모슬포 지역의 교인들도 짚과 짚신을 준비하고 걸어와서 참석하여 일주일간씩 숙식하였으며 이런 가운데 집회에 참여한 자들이 방언이 나오고 신유 기적이 일어나며 귀신들을 내어 쫓는 일들도 있었다.

셋째로 관광개발과 외지인들의 제주도에 들어옴으로서 교회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컸다.

이러한 제주선교의 결실은 제주선교 93년 만에 300여 교회와 4만여 성도들을 갖게 되었다. 전국복음화를 25퍼센트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지만 사회 선교가 약한 가운데서도 오로지 교회를 통한 선교로서 제주 도민의 약 7-8퍼센트는 큰 열매가 아닐 수 없다.

제 3 절 위미지역 사회의 상황 분석

1. 지리적인 특성

위미리는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 서부에 위치해 있는 '리' 단위의 마을이다. 서

쪽으로는 신례리, 동쪽으로는 남원리, 북쪽으로는 한남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일주도로변의 해안마을로 중심 위치는 동경 126도 40분, 북위 33도 16분에 위치해 있다. 위미리는 '상감머치 동산'(현재 위미교회 위치)을 경계로 하여 1리와 2리로 나뉘지는데, 1리에는 명륜동, 대화동, 서성동, 상위미의 4개 동과 2리에는 상원동, 대원상동, 대원하동, 세천동, 대성동의 5개 동으로 이루어졌고 위미 3리인 종정동으로 10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사회, 문화 인류학적인 특성

가. 마을의 유래

위미리에 처음 들어와 살았던 사람은 지금부터 약 400년 전 고좌수라는 사람이었다. 고좌수는 상위미 속칭 '큰터왓'에 터를 정하여 살았는데 현재 이곳에는 당시의 사실을 입증하는 유물인 토기와 유기그릇 파편들이 많이 출토되고 있다. 그러나 고좌수의 후손들이 절손되면서 현재 위미리와는 혈연적 유대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어서 성씨가 현재 위미교회 서북쪽의 속칭 '신세기 모루'에 살았으나 동쪽으로 이주해 버렸다고 한다. '셋피미'에는 한좌수가 살았으며 '안가름'에는 허씨와 홍씨, 강씨가 살았으나 이들도 역시 다른 마을로 떠났거나 절손됨으로써 현재 위미리와의 혈연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미리에 정착하여 그 뿌리가 지금도 이어지는 사람들은 약 350년전 위미 1리 속칭 '가운디 썰'에 정착한 '연안 김씨'이다. 그 후 몇 년을 앞뒤로 하면서 위미 2리 군위 오씨 그리고 위미 1리 연안김씨의 사위가 되어서 정착한 고씨가 위미리에 처음부터 터를 정하여 정착한 사람들이다.⁵⁰⁾

이런 결과로 인하여 위미리는 촌락 단위로 집성촌이 되는 경향이 생겨나기 되었다. 특히 위미리에 '군위 오씨'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나. 민간신앙

위미리에 본향당은 '마매기당'이다. 마매기당은 위미리 수호신이 자리하는 곳으로 보기 때문에 매년 정월 초이틀 날 전 부락 규모의 당 굿을 지냈다. 한편 마매기당 신은 관운과 재운에 영험하다고 하여 마을 사람들이 자주 찾아가는 곳이 되었다. 성왕

50) 위미신용협동조합, 위미리지 (제주: 일신인쇄사, 1991), 54-55.

당은 해안가에 설치되어 바다를 관장하는 선왕을 모시는 무속의 의식을 장소였다. 선왕은 여자 선왕인 애기씨 선왕과 남자 선왕인 도령선왕, 참봉 선왕등의 있는데 위미리의 성왕당은 애기씨 선왕과 도령 왕을 모신다. 위미 1리에 2곳, 위미 2리에 3곳이 있었다. 아직도 어부와 해녀들과 마을의 부인들이 풍어와 가정의 안녕을 기원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포제가 천신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공동의식이었다면 산신제는 마을 사람들의 원시신앙이었다. 즉 땅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땅을 관장하는 신의 소유로 여겼기에 땅의 사용을 사람들의 마음대로 해서는 자신의 노여움을 사서 재앙을 당한다는 의식에 젖어 있었다. 그러므로 인간의 법으로는 자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땅을 사용할 때는 땅의 신에게 사용허가를 밟는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이것이 바로 토신제이다. 토신제에는 묘자리에 관한 토신제가 있고, 집터에 관한 토신제가 있고, 소와 말을 키우는 사람들이 좋은 날을 받아서 목장에 가서 드리는 산신제가 있었다.

다. 세시 풍속

세시 풍속은 오래도록 생활에 뿌리를 내렸던 전통적인 문화이다. 해마다 일정한 시기에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특별한 생활 행위로서 문회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정월 초하루에 설날에 제사를 드리는데 특이한 것은 일가 친족 집을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다. 그리고 차례를 다 지내면 친족 어른들과 마을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세배를 드린다. 정초에는 마을 사람들의 토정비결을 보아서 당년의 운수를 점쳤다. 정월 초이틀 날은 마매기당에 가서 한해동안의 가족들의 안녕과 복을 빌었다. 정월 첫 정일에는 포제동산에서 포제를 지냈다. 포제는 마을 사람들의 안녕을 비는 유교식 제사이다. 그리고 정월 보름날에는 이른바 '방취'라는 재앙의 액을 막는 액막이를 하였다. 정초에 토정비결의 운수가 나쁜 사람들은 남의 가져갈 만한 돈이나 물건 등을 집밖에 놓아두어서 가져가게 함으로서 액운이 다른 사람에게 가도록 하였다.

입춘일을 '새철드는 날'이라고 하여 여자들은 이웃집에 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친구간이라는 풍습과 2월 초하루에는 '영등 할망'이 오는 날이라고 하여 해녀들과 어부들은 영등제를 지낸다. 동지 날에 팔죽을 먹는데 일년 내내 액땀을 할 수 있다고 믿었다.⁵¹⁾

혼례 잔치는 삼일씩 한다. 잔치를 준비하는 돼지 잡는 날 하루, 친족들과 동네 사람들이 잔치를 먹는 가문 잔치 하루, 결혼식 당일에 행해지는 흰잔치 날이 있다. 아직도 민간전통신앙이나 풍습들을 버리지 못하고 여러 신에게 얽매서 자유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집을 조금 수리하는 것조차도 날을 봐서 해야 되는 풍습이 지켜지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액운이 온다고 하여 무서워하고 있다.

라. 제사문제

교회를 나오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교식 제사문화가 가족공동체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조상제례의식을 통하여 가족구성원간에 공동체의식을 강화하며 친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가족임을 확인하며 이러한 제사 제도를 통하여 가족들간에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3. 농업, 관광자원적 특성

위미리 지역은 옛날로부터 땅에 척박하여 농사가 잘 되지 않는 지역이다. 그러나 제주도에 7, 80년대 굴 농사가 시작되면서 많은 부를 창출하여 부자 마을로 소문 날 정도로 부촌으로 자리 매김을 하였다. 주민의 90퍼센트가 굴농사에 종사하고 있다. 어업은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렇게 볼 때 위미리 지역은 지역공동체의 문화가 발달한 전형적인 제주 농촌 공동체로서 오랜 세월 동안 가족 중심의 문화권이 형성되었다.

제주도가 관광지로 알려졌지만 위미리 지역은 관광 자원이 없기 때문에 관광문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위미리 앞 바다에 위치해 있는 지귀도가 낚시터로 유명해져서 위미항을 해양 낚시항으로 개발하려는 계획이 있지만 그렇게 발전적으로 관광 산업이 발달할 만한 여건은 갖고 있지 못하다.

4. 종교적인 여건들

제주도는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기독교 교세보다도 불교 교세가 강하고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제사의식을 함께 행하므로 불교와 유교가 혼합된 종교 형태를

51) Ibid., 177-199.

피고 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불교와 유교는 서로가 거부 반응 없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위미리 지역에도 사찰이 셋이나 있어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불교와 유교의 영향권 아래 있다.

5. 기타 여건들

위미리 지역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출장소, 우체국, 농협, 수협, 신용협동조합, 위미의원, 약국, 위미항 등 사회적인 기반들은 잘 조성된 마을이다. 인구분포를 보면 위미 1리는 605세대, 남 1,031명, 여 950명이며, 위미 2리는 854세대, 남 1,437명, 여 1,405명이며, 위미 3리는 101세대, 남 180명, 여 170명으로 총 1,560세대, 5,17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⁵²⁾

이러한 인구 분포를 볼 때 농촌지역이 다 떠나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희망적인 요소이다. 서귀포시와는 승용차로 1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생활권은 서귀포시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편리성 때문에 농촌이면서도 인구 이동이 적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굴 농사로 말미암아 그동안 많은 부를 축적하여 잘 사는 농촌으로 소문이 났지만 근래에 들어와서는 밀감 값이 폭락함으로써 농민들이 실의에 잠겨 있다. 앞으로도 굴 농사는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의식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더욱 더 제공될 것이다.

제 4 절 위미교회의 현재의 상황

1. 교회의 위치

위미교회는 위미 1리와 2리의 경계에 위치해 있으며 마을 중심부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좋은 지리적인 여건을 갖고 있다. 일주도로변에서 100미터 정도 들어와 있다. 그리고 교회의 주변에 주택들이 있고 전형적인 농촌형 교회이다.

2. 교회의 구성원

교회의 구성원은 총 450명으로 담임목사, 전도사 1명, 교육전도사 1명, 장로 9명,

52) 통계연보 2000 (서귀포: 남제주군, 2000), 63.

안수집사 17명, 은퇴권사 2명, 권사 18명, 서리집사 남자 46명, 여자 69명으로 총 164명의 제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치부 35명, 아동부 70명, 중고등부 50명 청년부 35명, 장년 260명으로 총 교인수는 450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인들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10대 이하 82명, 10대 50명, 20대 80명, 30대 70명, 40대 70명, 50대 45명, 60대 48명, 70대 이상 17명으로 교인들이 구성되었다. 노년층보다는 50대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60대, 70대의 노령층 교인들보다는 40대 이하의 교인들이 약 80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전형적인 농촌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도시교회의 연령층 보다 더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앞으로 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교회의 상황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국 농촌 교회가 노령화현상이 심각한데 반하여 위미교회는 교인들이 구성비율이 젊은 세대들을 중심 축으로 이루어져서 앞으로 교회가 이러한 젊은 평신도 사역자들을 잘 훈련하여 젊고 힘차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더욱 더 열심히 매진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교회의 기구조직은 당회, 제직회(예배부, 재정부, 교육부, 관리부, 전도부, 사회부, 봉사부, 새신자부), 위원회(교육위원회, 선교위원회, 장학위원회, 교회모지관리위원회, 교회성장위원회, 음영위원회, 어린이집이사회), 교회학교(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성가대(할렐루야, 마리아, 임마누엘, 호산나), 찬양사역팀인 열출비파와 부부 중창단인 아이네오 중창단, 자치단체(1, 2, 3, 4 남선교회, 1, 2, 3 여전도회, 청년회, 학생회), 성경공부(기초교리반, 새신자성경공부반), 교사대학, 전도학교 등으로 조직되었다. 구역조직은 8교구 19구역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위미리지역 복음화률을 보면 1,560가구 5,173명 중 450명의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복음화률 8.7퍼센트는 아직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주는 수치이다.

위미교회는 제주도에 있는 다른 농촌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복음화률이 높은 편이며 지역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도 좋은 편이다. 교회가 그동안 지역을 위해서 많은 사회봉사적인 일들을 행하였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주민들이 생각이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 지역 주민들이 교회가 지역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교회는 교회다운 참된 모습을 지역 주민들에게 보여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제 4 장

위미교회 성장을 위한 목회철학과 접촉점 개발의 관계

제 1 절 목회철학

1. 위미교회의 목회전략

목회의 참된 목적은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그리스도의 뜻과 생명을 주시는 성령,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선교에서 찾아야 한다.

교회의 목회전략은 교회의 본질과 목적이 무엇이며,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의 목회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대로 되어야 하고 우리는 성경에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목회의 전략이 세워져야 한다. 존 맥케이(John MacKay)는 교회를 공동체로 이해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교회를 예수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공동체로 본다. 우리는 교회의 중요한 실체는 공동체이며, 이것은 교회의 조직이나 구조보다 더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이다.” 그러면 목회 철학적인 입장에서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를 밝혀주는 성경적인 용어들을 살펴보겠다.

가. 코이노니아(koinonia)

교회를 향한 가장 간단하면서도 복잡한 예수님의 명령은 ‘사랑’이다. 제자들은 아가페의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최고의 덕목으로 이해하였을 뿐 아니라, 초대 교회로부터 이 사랑은 교회의 의무로 여겨져 왔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구약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성경의 가르침이다(레 19:18; 잠 20:22; 24:29).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외에 더 큰 계명은 없다(막 12:29-31).

그러나 예수님은 이 구약의 가르침에 놀랍고 새로운 면을 첨가하셨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하라”(요 13:34). 찰스 바렛(Charles K. Barret)은 이 계명은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드러내는 계명(요 10:18, 12:49-50, 15:10)이므로 새로운 계명이며, 서로 사랑하는 제자들은 서로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성부와 성자를 드러내게 된다”고 말한다.⁵³⁾

여기서 예수님은 혁명적 요소를 주입시키셨다. 물론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계속된 것이지만 이러한 사랑은 새로운 종류의 사랑이다. 이 사랑은 삶의 질이 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밖으로 나가는 질적인 면에서 자기를 희생하여 내어주는 면이 새롭다. 찰스 도드(Charles Dodd)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성자를 보내신 사랑, 성자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버리기까지 보여 주신 사랑, 서로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제자를 삼는 재생산 사역을 해야 한다”⁵⁴⁾고 말한다.

새 계명은 성육신적이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요 14:23). 그리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약속은 사랑으로 성취되고, 주님의 재림과 초림 사이에 존재하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한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은 하나님 나라의 ‘이미’(already)와 ‘아직’(not yet) 사이를 잇는 교량 역할을 한다. 제자들의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함께 사귀는 가질 때 초림 후 재림 전일지라도 그리스도가 그곳에 찾아오신다. 제자들과 그들의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새로운 그리스도의 임재하심 안에서 눈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생생한 주님의 숨결을 느끼게 되며, 그들의 사랑하는 코이노니아로 모인 그곳에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것이다.

제자들의 사랑하는 사귀는 가운데 새롭게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신다. 이런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다. 교회의 생명은 항상 제자들이 주님과 다른 제자들을 서로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목회를 할 때가 있지 않은가?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한 사랑이 목회에 적용되어야 한다. 만일 교회가 유일하고, 성결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목회도 이러한 사랑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53) Charles K. Barrett,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John (Philadelphia: Westminster, 1978), 451

54) Charles H. Dodd, The Interpretation of the Fourth Gospe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3), 405.

백성을 목양하는 일은 사랑이라는 고귀한 특성에서 시작된다. 교회에서 무엇보다도 사랑이 없으면 말씀과 성례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에 불과하다. 이러한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에 교회의 목회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 13:34-35).

사랑이 함께 하지 않는 세상을 위한 존재, 억눌린 자들과 함께 함, 선포하는 증거, 수적 성장을 갈망함 등은 아무 의미가 없다.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가 가지는 코이노니아는 디아코니아(diakonia), 케리그마(kerygma), 말투리아(martyria)의 기초가 된다. 그러나 교회에 봉사와 말씀 선포, 증거하는 속성이 없다면 교회의 내부적인 일에만 매달려 예수님이 말씀하신 코이노니아도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밖으로 펼쳐 나가는 사랑이기에, 제자들이 교회 안에서만 서로 사랑한다면 모든 사람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밖으로 표현되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피터 와그너(C. Peter Wagner)가 ‘사قم병’이라고 부르는 병든 상태에 빠지게 된다.

사قم은 인간 관계들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알고 서로를 좋아하게 되고, 서로를 아끼게 될 때 이 사قم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병이 들면 사قم은 사قم병이 되고 서로 좋아하는 관계에만 너무 깊이 빠져들어 교회의 거의 모든 활동들이 사قم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리하여 교회내의 모든 활동들과 인간관계는 내향적이 되고 만다.

성도의 사قم의 존재하는 이유를 상실했을 때 사قم은 사قم병이 되고 만다. 즉 교회는 왜 주일학교 교육을 하고, 기도회로 모이고, 이웃을 초대하는가에 대한 목적의식을 잃게 된다. 성도의 사قم과 봉사, 자기 희생에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모든 일이 안으로 움츠러들게 된다. 성도들간에 사قم을 잃어버린 목회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과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그리스도와의 사قم마저도 잃어버리게 된다.

나. 케리그마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체험한 제자들은 벅찬 감격을 견딜 수 없어서 즉시 밖으로 뛰쳐나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진리를 선포하였다. 이렇게 사권의 공동체는 나사렛 예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무리들이 되었다. 신약시대의 교회는 “예수님의 주님이시다”라는 신앙고백을 했는데 교회는 이것을 선포하는 목회를 하였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은 교회로 하여금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도록 한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은 교회 안에서만 주가 되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주와 우주적 권세자들에게까지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행 4:25-30).

복음은 이 신앙고백을 강조함으로 시작된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마 3:2)라고 하였다. 예수님은 자신의 보내심을 받은 이유를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라”(눅 4:43)고 하셨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후 제자들은 길로 나갔고,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행 2:36)라고 선포하였다. 바울의 첫 번째 설교도 그 부분을 반복하여 강조한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행 13:38-39).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행 28:31).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주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목적을 가진 교회공동체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이 세상 사람들과 모든 창조물을 주님의 통치하심 안으로 들어오도록 인도하는 사명을 가진 공동체이다. 이러한 우주적 교회론은 그리스도의 주되심, 하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권을 세우시는 모든 일들을 인식함과 동시에 초대 교회의 신앙고백을 보여 준다. 지금도 세상과 교회를 친히 다시리시는 주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왕권을 성취와 완성 사이에 있는 구원의 시대를 현재에도 인식하도록 한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케리그마적 신앙고백은 필연적으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밖으로 나아가는 운동을 포함한다. 교회는 화목케 하고, 구속하고, 새롭게 하는 주님의 나라를 곧 모든 민족을 포함하는 우주적인 나라라고 인정한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은 “주님은 온 세상의 주님이시다”라는 뜻이다. 교회가 예수님을 주

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확실히 교회를 온 민족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선교적이며 목회적인 사명을 갖게 한다. 이 사실은 마태복음 28장 18-20절에 선명하게 보인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모든 사람들과 모든 만물의 주, 교회의 주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루어진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교회는 본연의 모습, 예수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인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어진다.

이 예수님의 선교는 모든 제자들을 확실히 묶어주게 되고 제자들은 주님의 선교의 사명을 피할 수 없게 한다. 온 세상에 예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일과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하는 일을 동시에 하지 않으면 바른 제자라고 할 수 없다. 신앙 고백과 선교 사명과 목회는 서로가 떨어져 떨어 수 없는 관계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주인이신 세상에서 선교적 사명을 완수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선교하는 교회의 표징이 된다.

선교하는 교회가 교회의 목회적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도 예배와 성찬 등은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세상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나타내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바울은 성찬까지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고전 11:26). 목회에서 복음을 말로 선포하는 것과 가시적으로 선포하는 일은 교회의 신앙 고백인 예수님이 주되심을 더욱 확실하게 한다. 하지만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것은 이런 복음 선포가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들만을 대상으로 선포된다면 케리그마의 참된 의미를 상실한다는 사실이다. 복음 선포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포될 때에만 케리그마적(kerygmatic)이라고 할 수 있다. 목회적인 차원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의 증거되는 선교 지향적인 목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모든 인류와 모든 창조물, 교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들고 나가도록 그의 제자들을 보내신다. 이러한 복음 선포를 힘있게 하는 목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확실한 신앙고백과 세상 밖으로 표출되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것을 디아코니아라는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게 해야 한다.

다. 디아코니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랑의 사권이 있는 교회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공동체이다. 종은 결코 주인보다 높을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제자들은 주인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서 주인보다 높은 종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이렇듯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를 목회자들은 본을 받아야 한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택하심, 예수님과 친구처럼 하나됨,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동행할 때 당하는 핍박들과 연결되어 있다. 종의 된다는 참된 의미를 보여주는 제자도의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면 증거 서로 돕는 봉사,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 있다. 신약에서 섬김에 대한 부분을 디아코니아로 다루고 있다(마 25:31-36). 예수님은 마지막 날 종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제자들을 심판하실 때 선한 행동, 희생, 경건한 생활, 예식 신학 등에 기준을 둔다고 하지 않으셨다. 종들은 그들의 필요로 하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심판된다. 제자들은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 주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으로서 어떤 섬김의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제자인가 아닌가를 알게 하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의 확실한 의미를 알게 해 준다.

이처럼 초대교회의 생활 가운데 섬김이라는 계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하였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오순절 이후 제자들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어려운 자들이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제자들의 이런 봉사와 섬김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집사직이라는 새로운 사역형태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제자의 정신은 속히 퍼져 나갔다.

누가가 기록한 도르가는 그녀의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아온 선행으로 옫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그녀가 죽었을 때 룻다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행 9:36-42). 가난한 사람들은 도르가가 지어준 파스한 옷을 자랑하였다. 바울은 디아코니아(diakonia)를 온전한 여러 종류의 사역으로 보여 주는데,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를 보면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제자로서의 사역을 하게 하신다고 하였다(고전 12:5). 집사직은 교회의 공식적인 직분이 되었고, 교회의 공식 사역인 봉사하는 사역을 통하여 교회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보여

준다. 교회가 하는 디아코니아(diakonia) 사역은 교회의 참 모습을 보여주며,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사랑하는 섬김의 공동체를 보여 준다.

더 나아가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섬기는 사역을 더욱 강조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자유스럽게 헌금하도록 독려했다. 이러한 사역을 바울은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고후 8:4)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바울은 섬기는 일에 참여함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급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제자들의 생활과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고후 9:10-15) 바울은 사랑의 사قم인 교회의 본질을 섬김의 사역과 연결하여 하나로 보았는데 이 사역은 고난받는 사람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일로, 바울이 편지를 보낸 헌금을 모아 그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한 일이다.

야고보서는 오랜 전통을 가진 유대적 신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의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것이니라”(약 1:27)고 하였다.

예수님의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을 읽으심으로 공포하신 예수 자신의 메시아적인 선교는 구약의 희년(레 25:8-55)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목회신학에도 이러한 것들이 잘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섬김의 사역이 교회의 핵심적인 본질을 나타내는 데 꼭 있어야 할 사역이라는 사실을 자주 망각해 버린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이 지극한 작은 자 하나에게라도 예수님이 주신 섬기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 그것은 구세주의 얼굴을 대하는 것이며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만 우리는 정의, 의로움, 평화를 실현하는 교회의 역할을 심도 있게 논할 수 있다.

신약성경에 따르면 섬기는 사역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 이상을 말한다. 디아코니아는 예수님의 주권하에서 평화, 정의, 자비 등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형성하는데 교회가 참여하고 공헌하라는 부르심이다. 디아코니아는 무슨 간단한 선행 정도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돕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누구나 섬겨야 하는 교회의 핵심적 본질이다. 선교하는 교회에 이런 섬김이 없다면 그 교회

는 교회가 가져야 할 선교적 본질을 상실한 교회가 된다.

라. 말투리아

승천하시기 직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증인의 되리라”(행 1:8)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땅 끝까지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퍼져 나갈 것을 말씀하셨다.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교회가 확장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핵심 부분인 “나의 증인이 되리라”를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교회의 존재 목적은 모든 문화와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어야만 한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기록하고 있다. 그들의 나누었던 사랑의 사귄, 공동생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선포하던 복음 증거, 핍절한 사람이 없도록 서로를 돌아보아 섬기는 사역 등 모두가 증인된 교회의 본질을 분명하게 밝혀 주고 있다. 허버트 케인(Herbert Kane)은 말하기를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의 본질은 선교와 교회 존재의 부분들로서 진리와 능력을 선포하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martyrs)은 여러 가지로 사용된다. 법적으로 사실을 증거하는 것으로, 신앙고백으로 사실을 증거하는 것으로, 사건의 목격자로서 사실을 선포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본성과 중요성을 전도하는 복음 증거로, 순교로 사용되었다.⁵⁵⁾

이런 여러 의미들이 가진 의미상의 범주 안에서 교회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실제로 보여지고 만져지는 역사적 사실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임재(presence), 선포(proclamation), 강권(persuasion)하는 교회의 말씀 사역을 통하여 주님을 알게 된다. 선교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고 몸 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사실들을, 사랑의 사귄, 예수님은 주님이라는 신앙 고백, 섬기는 봉사 사역들을 통하여 증거한다. 하나님의 선교하는 백성들은 화목하게 된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나쁜 세상 안에서 화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거한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화목케 하며 섬기는 직책을 통하여 대사들이 되었다고 강조한다.

선교하는 교회는 스스로 화해하는 직책을 잘 감당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55) Kittel and Friedrich, *Theological Dictionary* : s. v. , "μαρτυρ."

의 의'가 된다.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심을 세상에 전하는 일은 교회가 하는 복음 증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복음과 섬김을 믿는 믿음의 표현인 사랑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는 세상에 이렇게 증거한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것이 목회전략이 되어야 한다.

지역교회 차원에서 선교하는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사랑의 사역을 이룰 때, 말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온 세대 최고의 사건을 증거할 때, 비로소 세상에서의 존재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목회하는 전략은 목회를 더욱 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마. 예언자, 제사장, 왕, 치유자, 자유케 하는 목회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갖고 목회적인 사역을 이룬 것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셨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오늘도 목회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어느 지역 교회에서든지 목회를 하도록 하셨다.

지역교회가 어떻게 자기 역할을 할 것인가는 교회가 속한 주변 환경과 아주 깊은 관계를 갖는다. 이것을 상황화라고 말할 수 있다. 목회는 이러한 상황화를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상황화는 말씀이 갖는 모양과 형태 자체나 어떤 활동을 해 나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 보다 더 많이 고려해야 한다. 상황화는 모양, 스타일, 생활 태도와 지역교회가 속한 특수 상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교회가 처한 상황에서 예언자적, 제사장적, 왕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과정이다. 교회가 자체가 자신의 문화 가운데서 역동적인 상호관계를 가지며 세상을 위한 예언자, 제사장, 왕으로 온전하고 확실하게 상황화되어야 한다.

예언자의 역할은 교회로 하여금 인간 사랑과 인간 정의를 실현케 하는 메시지가 포함되어서 도전을 주고 경고를 줄 수 있는 목회가 필요하다.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교회가 가능한 최고의 영적인 상태를 갖게 함으로서 위로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함으로서 이러한 일들이 목회활동에 분명히 나타나도록 한다. 성례전을 집행하며 상담하며 여러 목회적인 활동들을 이루어 나간다. 왕의 역할은 목회적인 호라동들을 조직화하는 데서 분명하게 나타나야 한다. 관리하는 것, 계획을 세우는 것, 훈련 활동을 하

도록 하는 것들을 포함한다. 치유자의 역할은 특별히 예수님의 초기 사역 중심으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다. 치유란 몸의 치유, 마음의 치유, 정신적 스트레스, 영적 질병등을 치유하는 것을 말한다. 교회는 구속함을 받은 공동체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외치는 치유자로서의 역할을 목회에서 이루어야 한다. 자유케 하는 자로서의 역할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죄의 삯에서, 죄의 결과에서, 악령의 놀림에서, 율법의 징벌에서, 깨어진 관계에서 자유케 하는 사역을 이루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로써 세상에 얽매인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목회적인 사역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교회는 영적, 감정적, 개인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자유 등을 교회의 목회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나가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성경적 목회 차원에서 교회의 존재의 근거를 코이노니아, 케리그마, 디아코니아, 말투리아에 근거하여 목회의 철학을 세워나가며 목회의 방침을 정하여 목회적인 비전을 이루어 나가려고 한다. 이러한 목회적인 철학을 근거로 하여 “어떻게 하면 지역 사회를 복음화시켜나갈 것인가”가 목회적인 관심사이다. 우리 지역에 교회가 있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교회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만들어 가는 목회가 필요하다. 교회가 지역사회에 주민들을 위한 목회적인 대안들을 갖고 접근함으로써 목회적인 접촉점을 만들어가고 지역 주민들이 교회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될 때에 비로소 교회가 지역 사회를 섬기는 목회가 될 수 있다.

2. 위미교회 목회 방침

가. 예배하는 공동체(요 4:22-24)

교인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주일을 성수하게 하고 정규예배에 함께 동참하게 함으로서 예배를 생활화하게 한다.

나. 가르치는 공동체(마 28:18-20)

교육 부서를 통한 신앙의 훈련을 잘 받을 수 있게 하고 교육 부서를 활성화 시켜 나간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전담 사역자를 둬서 농촌교회가 소

홀히 할 수 있는 교회 교육을 활성화시켜 나간다.

다. 선교하는 공동체(행 1:8)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한 전도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며 농촌교회의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어려운 교회를 지원하는 선교를 계속해서 감당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세계선교에도 이바지하는 교회가 되도록 힘쓴다.

라. 섬기는 공동체(막 10:45; 행 20:35)

교회내의 봉사에 모든 교인의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며 사회적인 봉사 활동에 노력을 기울임으로 교회가 사회에 필요한 기관임을 알게 하고 교회와 사회의 접촉점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목회표어의 설정 및 실천사항들

최근 4년간의 목회 표어를 통하여 목회에 대한 교회의 방향을 세워나가며 실천하고 있다.

가. 1999년도 교회목회 표어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행 1:8) 주제 찬송: 268장(온 세상 위하여)

구체적인 실천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기도에 열심을 다하는 공동체, ② 배우고 실천하는 공동체, ③성령의 능력을 받아 전하는 공동체

나. 2000년도 교회목회 표어

‘희년의 은혜를 나누는 교회’(레 25:10)

구체적인 실천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희년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눔공동체, ② 기도하며 배우며 실천하는 성장공동체, ③ 새천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선교 공동체

다. 2001년도 교회목회 표어

‘장막터를 넓히는 교회’(사 54:2)

구체적인 실천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성공동체, ②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성장공동체, ③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선교공동체

라. 2002년도 목회표어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막 10:45)

구체적인 실천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나눔공동체

작은 사랑나누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게 한다.

지역 어려운 이웃에게 봉사의 삶을 실천하게 한다.

②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섬김공동체

전교인 성경읽기 200독 행진

성경퀴즈대회를 갖는다

성경쓰기운동을 전개한다.

③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공동체

새벽기도회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매일 기도케 한다. 월별 기도제목은 유인물로 전달한다.

연 2회 특별새벽기도회: 고난주간특별새벽기도회, 종교개혁주일 신앙개혁을 위한 특별새벽기도회

금요구역연합기도회: 한달에 한번 구역예배를 연합으로 드리며 기도회를 갖는다.

총회전도학교 수료자들을 중심으로 재교육 후 전도대를 만들어서 운영한다.

계속적으로 선교를 지원한다: 농어촌미자립교회, 창립 50 기념 개척교회, 해외선교, 교도소선교, 학원선교, 전경초소, 방송선교

제 2 절 접촉점의 목회적 실천과 교회 위상 높이기

목회자가 목회적인 관심을 봉사하는 교회에 두게 되면 지역사회와 교회와의 접촉점의 관계가 형성되며 교회의 위상이 제고된다.

첫째, 그리스도의 교회가 참 교회가 된다. 예수께서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이를 사양하자 “네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요 12:6)고 하였다. 발을 씻기는 봉사의 의미를 모르고 또한 남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섬김을 행할 줄 모르면 그리스도의 제자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교회도 아니라는 뜻이다.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섬기며 봉사할 때 이루어진다. 이러한 섬김을 위한 목회 봉사를 위한 목회가 이루어질 때 교회는 사회로부터 필요한 존재로 인정을 받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접촉점을 만들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

둘째, 으뜸되는 교회가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마 20:26-27)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큰 교회는 교세나 시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김에 있다는 것이다. 이웃을 섬기고 종의 도리를 감당하는 교회가 큰 교회이며 으뜸가는 교회라는 것이다. 교회를 판단하는 예수님의 기준은 물량적인 것이 아니라 나눔과 섬김과 봉사의 자세와 실천에 있다는 뜻이다.

셋째, 인정받는 교회가 된다. 봉사하는 교회가 되면 지역사회에서 인정을 받게 된다. 안으로도 교인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된다. 그리고 지역에 많은 교회들에게도 목회적인 귀감이 되어서 목회자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넷째, 성장하는 교회가 된다. 지역사회 봉사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이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 또한 교회의 봉사 사업을 통해서 교회의 좋은 소문이 퍼지고 복음이 직접, 간접적으로 전파되어 교회의 성장에 도움을 주게 된다. 이런 목회적인 사회봉사활동은 목회자가 얼마나 목회적인 관심을 기울이느냐에 달려 있다.

다섯째, 복된 교회가 된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자기만 아는 염소와 같은 사람

들은 저주를 받아 지옥 불에 떨어지고 주린 자, 목마른 자, 벗은 자, 나그네 된 자, 병든 자들을 돌보아 준 양으로 취급된 사람들은 천국을 차지하는 축복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봉사하는 목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교회의 접촉점을 개발하고 지역을 선교하는 기회를 만들게 됨으로서 주님의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 나갈 수 있고, 으뜸가는 교회, 인정받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복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회봉사를 지향하는 목회의 장점이다.

제 5 장

접촉점을 위한 목회전략

제 1 절 지역 주민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한 목회적인 전략

1. 구역예배를 통한 접촉점 개발

가. 구역의 의미

구역은 교회에 속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교회의 작은 지체로서 지역 속에 속하여 있는 성도들을 구역단위로 결속시키는 하나의 신앙훈련의 장이다.

나. 구역의 중요성

성도들은 정기적인 예배장소인 교회에 모일뿐만 아니라 구역식구의 가정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나누며 신앙생활의 증진과 성장을 도모하며 지역을 선교하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 우선 구역원의 성경공부, 친교, 전도의 기회가 주어진다. 둘째, 믿지 않는 이웃들과 함께(가족, 친척, 친구, 이웃)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셋째, 초신자의 신앙 증진과 훈련의 기회가 된다. 그러므로 구역은 지역 사회에서 믿지 않는 이웃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접촉점의 역할을 감당하는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 구역의 성장 원리

구역의 부흥되고 성장하는 것은 곧 교회의 부흥을 뜻한다. 그렇다면 교회의 부흥의 원리는 무엇인가?

첫째로, 구역장과 구역 식구들의 확신된 목표의식이 강해야 한다. 구역 식구들이 성장 목표와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간에 공동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 둘째로, 구역원 모두가 구역에 대한 사명의식이 투철해야 한다. 구역은, 곧 작은 교회라는 인식

과 더불어 구역 식구간에 서로 지체의식을 갖고 구역에 대한 사명의식이 투철해야 한다. 셋째로, 구역장의 영성이 풍성해야 한다. 구역장으로서 철저한 사명과 책임의식이 강해야 하며, 이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경건생활(성경 묵상, 기도, 신앙 생활의 본)이 지속되어야만 한다. 무엇보다 더 구역장이 성령 충만해야 한다. 구역원의 신앙도 구역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볼 수 있다. 넷째로, 구역원들의 철저한 순종과 섬김 의식이 강해야 한다. 구역장의 지도에 대하여 구역원은 순종해야 하며, 또한 구역 식구들 간에 섬김의 훈련을 통하여 서로 간에 친교가 이루어지게 된다. 다섯째로, 구역원 모두가 다 모이는데 열심을 다해야 한다. 말세의 교회의 특징은 모이지 않는 것이다(히 10:25). 그러므로 구역 예배 때 모이는 훈련이 곧 교회의 신앙 생활의 연장이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여섯째로, 구역의 기능의 활성화되어야 한다. 구역예배는 성경 공부를 배우는 것을 비롯하여 구역원 간에 성도의 교제를 이룬 후에 밖에 나가서 증거하는 것이어야 한다. 일곱째로, 구역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접촉점이어야 한다. 교회에 처음 나오기가 어색한 자들을 가정예배인 구역예배를 통하여 예배에 익숙하게 만들고 어느 정도 예배생활과 교회생활에 대하여 알게 된 후에 교회로 인도하여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고리 역할을 해야 하며 복음을 전하는 접촉점이 되어야 한다.

라. 구역을 통한 심방

(1) 심방의 뜻

심장은 유고한 가정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기뻐하는 집에서는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집에서는 같이 슬퍼하고, 낙심된 집에서는 위로와 격려를 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심방이란 위와 같은 분명한 목적 하에서 이루어지는 가정방문으로서 성도의 교제와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적절한 기회인 것이다. 김도빈은 “심방이란 어떤 목적을 위하여 방문하고, 방문을 받는 인간관계를 뜻한다”라고 하였다.⁵⁶⁾ 이와 같이 목사의 심방이든 구역장의 심방이든 유고한 가정에 위로와 격려와 더불어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또한 심방의 중요성에 대하여 조병창은 첫째, 일반교인들의

56) 김도빈, 목회자 핸드북 (서울: 성광문화사, 1977), 19.

신앙적인 인격을 조성하고 성장시키는 교육적 기회이며, 둘째는 성도간에 서로 위로, 봉사, 협력하는 교제의 기회가 되며, 셋째는 불신자 가족들과 자연스러운 접촉을 통하여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였다.⁵⁷⁾

이와 같이 구역 심방은 구역원 서로 간에 마음이 열리고 친교하며 위로하고 전도하는 접촉점의 수단이 되고 있다.

2. 남성교구장과 남성 구역장 제도

위미교회는 전형적인 농촌 교회로서 도시지역의 교회의 구역과는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 도시지역 교회들은 구역장 권찰들이 여자 성도들로 구성되어서 거의 가다 낮에 구역예배를 드리는 것이 통례이지만 위미교회는 교구장과 구역장들이 모두가 다 남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저녁에 온 가족이 함께 저녁에 예배를 드린다. 구역장, 권찰들이 남자 성도들로 이루어짐으로서 구역에 대한 관심이 더욱 더 크다. 특히 교구장은 장로들로 이루어져서 평신도 신앙 지도에 앞장서고 있고 교구장 한 분이 자기가 맡은 교구에서 두 세 구역을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리고 남성 구역장들은 구역을 돌보는데 열심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남성들로 구역의 운영되기 때문에 성도들 모두가 다 구역예배에 참여하여 교제를 나누게 되고 구역원 상호 간에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앞장서 나가고 있다. 그리고 지역에 믿지 않는 남자들을 접촉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

3. 불신자를 교회로 인도하기 위한 고리 역할

구역예배가 저녁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도시지역에서는 구역예배를 낮에 드리기 때문에 구역 전체 식구들이 구역예배에 참여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위미교회는 모든 가족들이 구역예배에 참여하게 됨으로 구역예배의 참뜻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구역원 상호간에 교제가 어느 교회보다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믿지 않는 자들을 구역예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접촉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 특히 짝 믿음의 가정에 남편들이 구역예배에는 꼭 참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구역이 열심히 모이기에 교회가 지역에 믿지 않는 이웃에게 전도하는 데 힘을

57) 조병창, "농도신학에 대한 연구" (학위논문, 성결교신학대학원, 1994), 69.

기울이는 고리 역할을 잘 하고 있다.

제 2 절 기도 지원 그룹

1.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에 교인들이 20-30명이 모여서 교회를 이끌어 가는 기도지원그룹으로 활동하고 있다.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지역의 복음화와 사랑의 실천을 위한 제목들로 기도하고 있다.

2. 금요구역연합기도회

한 달에 한번은 구역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에서 구역연합금요기도회를 갖는다. 제1부 찬양의 시간, 제2부 경건회, 제3부 기도회를 갖는다. 철야기도회나 심야기도회는 농촌 현실에 맞지 않음으로 인하여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다. 구역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모두가 참여하여 함께 기도에 동참함으로써 기도회가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다.

3. 중보기도 그룹

월초에 한달 기도 제목을 유인물로 나누어주어서 전 교인이 기도하는데 열심을 다하도록 하고 있다. 오전시간이나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개인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도록 함으로서 전교인을 기도의 동역자로 삼고 중보기도를 하는데 열심을 다하고 있다.

4. 특별새벽기도회

일년에 두 차례 실시하고 있다.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훈련을 하고 있고 종교개혁주일을 앞두고 신앙개혁을 위한 특별새벽기도회를 매년마다 갖고 있다.

5. 전도요원 기도훈련

총회전도학교 전도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교인들이 전도요원훈련을 받고 기

도하며 지역의 전도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다. 전도요원들이 전도훈련을 받고 나서 계속적으로 태신자들을 품어 기도케 함으로서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

6. 여전도회와 남선교회를 통한 축호전도 기도훈련

남녀선교회가 한 달에 한번 모임을 갖고 난 다음에는 교회지역을 선교회별로 담당하여 기도케 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고 있다.

7. 교역자와 권사 축호전도 기도훈련

교역자와 권사들이 조를 편성하여 평일에 모여서 지역을 불신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호전도를 한다.

제 3 절 교회창립 주일 이웃 주민 초청예배

이웃 주민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접촉점이 형성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실제적으로 교회로 끌어들이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창립 주일에 이웃 주님을 초청하여 예배를 드리는 일로 열매를 맺어지고 있다. 교회창립주일을 맞이하여 지역 기관장들과 이웃 주민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며 복음을 전함으로써 지역에 불신자들을 구원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일례로 교회창립 기념주일에 교회 본당에 300석 규모인데 지역주민들로 가득 채워서 예배를 드린 경우도 있을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기도 하였다. 이웃에 있는 불신자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날을 정하여 함께 예배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전도하는데 열심을 다하고 있다.

제 4 절 새신자 양육프로그램

1. 새신자 양육의 중요성

세상에 갓 태어난 아이가 성숙한 어른으로 자라는 것이 결코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갓난아이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 아이에게 무엇을 먹어야 하며, 어떠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며,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 젖을 먹어야 할 때

가 있는가 하면 밥이나 고기를 먹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한글이나 산수를 가르칠 때가 있고 좋은 습관을 몸에 배이도록 훈련할 때도 있는 것이다. 또한 배워야 할 학문의 수준과 내용도 나이에 따라서 다른 것이다. 갓난아이가 만일 이러한 양육의 과정을 제대로 밟지 못할 때 그 아이는 결코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

처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신자도 영적으로 보면 '갓난 아이'와 같다. 영적으로 갓 태어난 새신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갓난 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은 세밀한 양육의 과정이 필요하다. 새신자가 만일 이러한 양육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을 경우 그 새신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지 못한 채 명목사의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문제성이 있는 병든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교회의 실정을 보면 전도에 비해서 양육을 소홀히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해마다 교회에 출석하는 새신자의 40퍼센트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그리스도인들도 20퍼센트는 기도하지 않고, 25퍼센트는 성경을 읽지 않으며, 30퍼센트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50퍼센트는 교회학교에 출석하지 않으며, 60퍼센트는 저녁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며, 70퍼센트는 선교헌금을 하지 않으며, 80퍼센트는 수요기도회에 참여하지 않으며, 90퍼센트는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으며, 95퍼센트는 전도하지 않고, 99퍼센트는 새신자 양육에 무관심한 실정이다.⁵⁸⁾ 성도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결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육신에 속한 자로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의 기본적인 교리에 무지할 뿐 아니라 신앙을 생활화하지 못한 채,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새신자를 양육하지 않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20)고 명령하시면서 전도와 함께 양육을 강조하신 것이다. 여기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분부는 새로운 제자, 즉 새신자를 양육하라는 양육의 명령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비롯한 여러 사도들이 기록한 대부분의 서신들도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골 1:28) 위한 양육을 위한 서신들이었던 것이다. 새신자 양육은 이와 같이 전도와

58)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전도부 편, 개인전도훈련교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20-21.

함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될 선교의 중요한 요소이다.

2. 양육의 정의

새신자 양육이란 예수를 갓 믿은 새신자를 신앙과 생호라과 사역에 있어서, 성숙한 성도로 자라게 하기 위하여 사랑으로 먹이고 보호하며 훈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3. 양육의 목표

양육의 목표는 우선 새신자는 먼저 신앙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신앙적으로 자란다는 것은 지속적인 말씀훈련과 기도훈련(영성훈련)에 의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고후 5:17)이 된 '하나님의 자녀'(롬 8:16)로서, '성령 충만한 성도'(엡 5:18)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새신자는 생활에 있어서 성숙해져야 한다. 생활에 있어서 성숙해진다는 것은 예수 믿기 이전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나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데 있다"(엡 4:13; 17-32). 이것은 새신자의 의식과 성품과 생활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오로지 버릴 것은 버리고 입을 것을 입기 위한 구체적이고 끊임없는 경건의 연습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딤후 4:7). 생활이 변화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마땅히 성도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새신자는 청지기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한다. 청지기의 사역이란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명하시고 위탁하신 특별한 임무나 역할을 의미한다(고전 4:1; 뵤전 4:10).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청지기 사역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 각양 은사(롬 12:6-13; 고전 12:8-11)와 달란트를 이미 주셨는데 교회는 마땅히 성도들 한 사람 한사람에게 청지기 의식을 일깨워 주고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확인하고 개발하여 이를 나에게 맡겨 주신 청지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활용하도록 도전하고 훈련하며 지도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성도는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성공적으로 달려가서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성도들에게 청지기의 사역

을 감당하도록 도전하고 훈련하며 강권하는 것은 곧 성도들의 금생과 내생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믿음과 생활과 사역, 이 세 가지 영역 중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부족한 면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교회는 모름지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과 생활과 사역이 있어서 성숙한 성도로 성장시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이를 목표로 삼아 계획적이고 치밀한 교육과정으로 양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4. 양육의 기본 요소

한 사람을 새신자로 양육하는 것은 갓난아기를 키우는 일과 같다. 갓난아기를 양육할 때 부모는 핏줄이 당기는 사랑을 가지고 때를 따라 먹이고 보호하며 좋은 습관을 익히도록 훈련시켜야 하는 것처럼 처음 예수를 믿은 새신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자상한 보살핌과 지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전도해서 얻은 결실로 교회에 등록된 새신자들을 너무 무심하게 방치해 두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새신자들은 영적인 부모의 새심한 배려를 받지 못한 채 제멋대로 성장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영적인 고아처럼 살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영적인 고아원 같은 교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개혁자 칼빈이 말한 것처럼 '성도의 어머니'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로 그 모습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교회는 새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갓난아기처럼 양육하는 영적인 부모가 필요한 것이다. 영적인 부모가 새신자를 양육하는 데에도 갓난아기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가 필요하다.

첫째로 사랑이 필요하다. 갓난아기가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란다. 아무리 잘 먹이고 잘 입혀도 사랑을 받지 못한 아기는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를 처음 믿는 새신자들도 영적인 부모의 정성 어린 사랑 안에서 양육 받을 때 구김살 없고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새신자는 영적인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이다.

둘째로 영양이 필요하다. 유아기의 영양상태가 그 아기의 평생의 건강과 지능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벧전 2:2)을 때를 따라 먹여 주어야 한다. 여기에서 ‘신령하고 순전한 젖’이란 성경 말씀을 의미하며, 새신자는 매일 매일 일용할 양식을 때를 따라 공급받아야 하는데 처음 믿는 새신자가 스스로 성경을 읽도록 권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갓난아기에게 때를 따라 젖을 먹여주듯 처음 얼마 동안은 새신자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그때그때 억지로라도 먹여주어야 한다. 그후에야 새신자는 스스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에 뿌리를 박은 건강한 성도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새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것이다.

셋째로 보호가 필요하다. 갓난아기를 키우는 부모는 갓난아기에게 닥칠 수 있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아기를 지키기 위하여 잠시라도 긴장을 풀지 않고 가까이에서 보살피는 것이다. 이러한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갓난아기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어른으로 점차 성장해 가는 것이다.

예수를 처음 믿는 새신자에게도 이러한 보호가 필요하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사단에게 새신자는 가장 좋은 공격 목표가 되기 때문이다.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새신자를 공격하고 있다. 영적으로 공격해 오기도 하며 생각과 관념을 통하여 공격해 오기도 하며 세상 풍조와 각종 유혹으로, 이단의 미혹 등으로 성도들을 공격하는데, 특히 믿은 지 오래되지 않은 새신자가 이러한 사단에 쉽게 굴복하게 된다.

새신자가 신앙생활에 연륜이 더해 가면서 훈련과 경험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스스로를 지켜 나갈 수 있게 되기까지 새신자는 교회의 영적인 부모의 세밀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넷째로 훈련이 필요하다. 새신자가 한 사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신앙과 생활과 사역에 관하여 훈련받지 못한 사람이 하루 아침에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자랄 수는 없는 것이다. 많은 성도들은 새신자가 성령받으면 순식간에 신령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러한 생각이야말로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성경에 밝히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성도의 생각과 사고방식, 성격과 삶의 자세, 심지어는 주님을 위한 봉사와 헌신과 은사의 활용, 그리고 기도와 전도에 이르기

까지 모든 면에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딤후전 4:7). 한 사람의 신앙 성장은 단 기간의 훈련으로 완성되는 것도 아니며, 평생에 걸쳐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훈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5. 양육의 유형

한 사람의 새신자가 신앙과 생활과 사역에 있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일은 평생에 걸친 훈련과 성화의 과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새로 등록하는 새신자들을 평생 양육과정에 묶어 놓을 수만도 없는 실정을 감안하여 새신자 양육을 단기양육과 장기양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가. 단기양육

단기 양육이란 새신자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방편들을 제공할 뿐 아니라 신앙성장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습관들을 읽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능한 단기간 내에 이수할 수 있도록 준비된 양육과정을 의미한다. 단기 양육 기간은 8주이고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경 읽는 생활로 새신자가 가장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부터 읽도록 하며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도록 지도한다. 둘째, 기도생활로 새신자로 하여금 기도는 성도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성도의 호흡이며,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한 대화의 수단임을 인식시킬 뿐 아니라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기도의 실재를 훈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셋째, 예배생활로 예배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경축이며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며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행위이며 예배를 통하여 인간은 교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것이다. 예배에 의해 교회는 살아나고 예배를 드림으로 성도는 그 신앙이 자라나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름지기 새신자로 하여금 처음부터 교회의 각종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넷째, 전도생활로 전도는 모든 성도에게 명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므로 새신자라고 해서 이 명령에 제외될 수는 없다. 갓 믿기 시작하는 새신자들도 전도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도전을 주고 지도해야 한다. 다섯째, 성도의 교제로 새신자는 다른 성도와의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야 한다. 그래서

사도 신경에도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도의 교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는 모름지기 새신자가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성도와의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연결시켜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신앙의 방편들을 8주에 걸쳐서 한 주일에 1회씩 교육시킨다고 해서 그 기간 내에 새신자가 신앙의 기초가 다져져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신앙성장의 방편들을 익힘으로 단기 양육을 마친 뒤에도 스스로 신앙의 물을 길어먹을 수 있을 때까지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석하고, 전도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일을 계속하도록 도전하며 지도하는 것이 곧 단기 양육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성과이다.

단기 양육을 통하여 갑자기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단기양육을 통하여 새신자로 하여금 신앙성장을 열망하게 하며, 신앙성장의 방편들을 통하여 스스로 신앙성장의 과정을 밟아 나가는 가운데 성령이 주도하심을 따라 어느 날엔 가는 반드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나. 장기양육

단기양육을 통하여 새신자는 신앙성장의 기본적인 방편들을 배우고 익히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편들은 어디까지나 신앙성장의 기본적인 방편일 뿐 단기 양육과정을 이수했다고 해서 새신자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신비로운 도약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점진적인 신앙의 과정이 필요하며 거쳐야 할 많은 신앙성장의 과정과 단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마땅히 모든 성도들이 신앙성장 과정에 따라 알맞은 내용의 배움의 양을 일정기간 동안 배우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계획된 평생 교육의 과정을 마련하고 성도들의 평생에 걸쳐 이 과정을 이수해 나가도록 도전하고 지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다. 단기양육을 마친 후에도 계속해서 장기교육의 과정을 밟아 나가도록 새신자를 인도해야 한다.

장기교육은 신앙의 기초와 생활의 변화와 사역을 위한 훈련 등 단계적으로 마련된 교육프로그램으로 꾸준히 교육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교회에서 실시하는 교인들을 위한 장기교육프로그램은 기초교리공부반, 벨렐성경공부반, 교사대학, 총회전도학

교, 주보성경공부, 중보기도학교를 실시하고 있다.

새신자들을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에 빨리 적응하며 교회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나가느냐는 새신자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새신자에 대한 관심을 보다 더 폭넓게 갖고 새신자교육에 충실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의 일꾼으로 성장시켜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제 6 장

접촉점 개발을 통한 선교전략

제 1 절 신용협동조합의 활동을 통한 접촉점 개발

신용협동조합은 도시서민이나 농어민, 근로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경제·사회적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자조, 자립, 협동의 정신을 갖고 자발적으로 모여 근검절약 정신으로 푼돈을 저축하고 간편 신속하게 자금을 대출해 주고 영세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해 주는 한편 교육활동을 통한 국민의식의 개발 및 농산물 유통사업을 지원하며 조합의 잉여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지역사회를 개발을 실천하여 국민경제발전과 건전한 국민정신을 함양하고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비영리 협동조합이다.

이러한 신용조합운동은 140년 전 1849년에 독일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독일은 계속되는 흉작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말미암아 사회, 정치, 경제의 격동기에 있었으며 이에 따라서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였다. 불신풍조와 고리채가 만연하여 농민과 영세수공업자들이 극심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발적이고 자조적인 조직에 의하여 이들을 구제하고자 노력한 것이 바로 신용협동조합 운동의 효시가 되었다. 1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탈리아와 미국으로 신용협동조합 운동이 확산되었고 우리나라에는 1950년대 후반 전후 복구사업이 한창인 때에 외국의 원조에 의한 구호나 구제보다는 자립과 자조 협동의 정신을 갖고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폐한 사회풍조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으로 근검절약을 통한 협동조합을 메리가브리엘라 수녀회(Sister Mary Gabriella Mulherin)가 구상하게 되었고 오늘까지 성장하고 발전해 왔다.

신용협동조합의 운동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공동경제활동을 통하여 스

스로의 복리와 사회적 지지를 향상시키는 민주적 민간협동조직으로 자조, 자립, 협동의 정신으로 복지사회 건설을 지상의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운동은 잘 사기 위한 운동이다. 생활과 직결되는 협동 경제 활동으로서 이것은 곧 검역과 근면한 생활을 실천, 저축의 생활화를 통하여 조합원 개개인이 경제적 자립을 이룩하고 나아가 건전한 중산계층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운동은 사회를 밝히는 교육운동이다. 건전한 국민 정신을 함양하고 경제에 대한 바른 지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한 협동의식을 갖도록 의식을 개발하며 건전한 사회의식을 갖는 국민을 양성하는 데 있다. 또한 이 운동은 더불어 사는 윤리운동이다. 협동사회 구현을 위한 상부상조의 활동으로 조합원간에 연대의식을 고취하고 신뢰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여 협동을 생활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여 이웃과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도덕사회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는 운동이다.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1980년 11월 30일 위미교회 교육관에서 가칭 “위미신용협동조합”설립을 위한 발기인회를 위미교회 18명의 교인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었다. 그리고 1980년 12월 7일에는 조합원 39명에 출자금 538,000원으로 위미신용협조합 창립총회를 위미교회에서 개최하였다. 초대 이사장에는 위미교회 오동연장로가 취임하게 되었다. 초창기에는 총회 시마다 믿지 않는 마을 주민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는 일로 인하여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들을 많이 제거할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가교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교회에서 시작된 신용조합운동은 지역사회 사람들의 협조로 계속적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제는 명실상부한 마을의 서민 금융기관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이러한 신용조합운동을 계기로 하여 마을 주민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변하게 되었다. 교회에서 시작된 신용협동조합운동이 마을에 환원됨으로써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한 선교의 장을 열어 놓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는 접촉점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제 2 절 어린이집을 통한 접촉점 개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가부장적인 가족제도가 무너지고 핵가족화 하는 경향

이 농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부부가 맞벌이하는 하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자녀를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곳을 필요로하고 있다. 농촌에서도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부가 밭에 나가서 함께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가정에 자녀들을 보육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농촌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농촌지역에 어린이들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사회 복지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온종일 어린이를 맡겨 두고서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어린이집의 역할은 중요한 것이다. 또한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자녀 보육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위미교회는 지역 사회를 위한 어린이 보육프로그램으로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었다.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고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교회는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 지역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된다.

위미교회 부설 위미어린이집은 현재 정원 52명을 인가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교사 4명, 목사 원장 1명이 교육에 종사하고 있다. 위미어린이집은 사회 봉사적 차원에서 이익의 전부를 교육에 재투자함으로써 신앙교육을 통한 미래의 신앙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어린이들도 모두가 함께 신앙교육을 받고 있다. 매주 수요일에는 전체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리고 학부모들을 초청하여 발표회를 갖기도 하고 학부모교육을 시키면서 불신 학부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참여함으로써 교회의 문턱을 낮아지고 있고 전도하는데 좋은 접착점이 되고 있다.

제 3 절 경로잔치를 통한 접착점 개발

농촌 인구들의 고령화됨으로 인하여 노인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노인들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교회가 2년에 한번 씩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노인들을 초청하여 경로잔치를 열어 교회와 지역 주민과의 관계를 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노인들이 교회에 한번 두 번 나오게 됨으로서 교회에 대한 거부 반응이 사라지고 있으며 교회가 조상숭배를 하지 않

은 것에 대한 편견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

부모가 살아 있을 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임을 알게 하고 교회가 이런 일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지역에 어른들에게 보여줌으로서 기독교가 효도하는 종교임을 알게 하고 있다. 이런 일로 인하여 동네 노인들이 교회에 나오지는 않지만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가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일이 마을 주민들과 교회와의 벽을 허물고 가까이 하는 좋은 접착점이 되고 있다.

제 4 절 지역 주민을 위한 근린 체육공원 조성 개방을 통한 접착점 개발

요즘은 농촌에 사는 분들도 건강에 관심이 많고 운동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 이런 지역적인 요구들을 교회가 먼저 알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준비하게 되었다.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에 있다. 교회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갖추고 공간을 마련하여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개방한다. 현재 교회주변에 2,300평의 땅을 마련하였고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 지역 주민을 위한 수영장을 마련하고 노인들을 위한 케이트볼장, 배구장, 베드민턴장, 기타 체육시설들을 준비하여 개방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체육시설을 만들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의 뜰에 거하게 될 것이요, 자연스럽게 교회의 시설을 이용하게 되며 교회와 지역 사회가 유기적인 결합을 유지시켜 나감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도 좋은 접착점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제 5 절 마을 공용 주차장 설치를 통한 접착점 개발

교회가 주차장을 만들면서 군의 협조를 얻어서 500평 규모의 마을 공용 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교회 주변은 마을중심상업 지역임으로 마을 사람들이 통행이 많은 지역이다. 일주도로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차함으로서 교통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불편했는데 교회가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마을 공용주차장을 만들어서 개방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편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러한 사회봉사활동은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교회가 마을을 위해서 편의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는 좋은 예가 되며 교회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좋은 접촉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제 6 절 병원선교를 통한 접촉점 개발

지역에 속해 있는 서귀의료원에 주일 날 예배를 드림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신자들은 물론 믿다가 낙심한 자들과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접촉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은 심령과 육체가 연약해져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더라도 마음을 더 열게 되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병에 걸렸을 때는 절대자를 의지하려는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데 좋은 접촉점이 되고 있다.

제 7 절 교도소선교를 통한 접촉점 개발

주님께서는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는 말씀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께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주께 아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마 25:35 이하).

옥에 갇힌 자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선교의 대상이다. 또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보더라도 신도의 감옥생활이 많이 있었는데 베드로, 바울, 존 번연, 본 회퍼 등이 있었고 일제 하에서 많은 성도들이 옥에 갇혔었다. 비록 그들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도소에 이런 저런 모양으로 수감되어 있다. 이런 곳도 다른 사회의 장소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활용되어야 한다.

특히 교도소 안에는 사회의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한 장소에서 사회의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좋은 접촉점이 된다. 또한 수감중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불행, 고통, 고난을 동정하고 돌보아 줄 때 느껴지는 감사와 감동은 평소 때보다 더 큰 것이다. 그러므로 교도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교회 선교의 중요한 한 분야가 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위미교회는 교도소를 두 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자매 결연을 맺은 재소자들과 신앙상담을 하고 있고 일년에 두 차례씩 전체예배에 참여하고 있다. 매 예배 시마다 간식과 영치금을 지원하고 있고 교회의 선교위원회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봉사활동과 선교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좋은 일이 되고 있고 감춰있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좋은 접촉점이 되고 있다.

제 7 장

21세기 미래 지향적인 접촉점 개발을 위한 전략

제 1 절 21세기 지역 사회의 접촉점 요청

21세기는 다원화시대이다. 그만큼 사회가 복잡하고 다원화될 것이다. 그리고 첨단 기술사회가 될 뿐만 아니라 자동화와 정보화, 지식화가 가속화될 것이며, 유전공학이 발달로 인하여 인간에게 유익한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요소도 많이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정이 급속도로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핵가족화와 이혼율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교육이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되면 될수록 인간의 정신문명은 더욱 더 위축될 것이며 복잡하고 다원화된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생존 전략은 더욱 더 치열해질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교회가 지역 사회를 위하여 어떻게 섬기고 봉사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1. 가정 사역을 위한 요청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품이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운영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다.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도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고 가정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다. 경제적인 이유에서이든지, 아니면 성격 때문이든지, 외도로 말미암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자정이 깨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가정이 하나님의 세운 건전한 가정이 되려면 가정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고치고 바른 성경적인 기독교 가정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을 교회 안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불신 가정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어린이집 부모교육을 통해 불신 가정을 위한 부부 학교를 세우고 어린이집 아버지 학교를 세우며 마을 공공장소에 유명 강사를 초청하여 부부초청교실을 만들고 금연 금주학교를 만드는 일도 좋은 접촉점이 될 수 있다.

2. 영성적 요청

지난 세기를 뒤돌아보면 급격한 산업의 발달로 말미암아 인간의 물질적인 삶의 풍요로워졌고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의 편리해졌다.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인간의 행복과 만족한 삶을 얻을 줄 알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의 삶의 타락하게 되었고 삶의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기갈을 경험하게 되었다. 20세기의 물질 문명의 발달은 인간에게 비영성적인 삶을 살도록 강요하였다.

21세기는 이러한 과학적이고 물질적인 삶에 대한 회의를 갖고 영성적인 방향에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교회는 물질적인 축복을 받거나 과학적인 기술을 추구하는 장소가 아니라 영성에 대한 굶주림을 해결하는 장소로 받아들여지고 영성적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곳이 되어야 한다.

우리 지역에서만 보더라도 그동안 많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린 지역이다. 감귤 생산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감귤산업이 위기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시점에서 종교적 영성이 그들의 삶을 위로해 주고 구원해 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교회가 이러한 영성적인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성적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하여 지역에 불신자들에게 영성적인 요구를 채워주는 교회가 될 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것이다.

제 2 절 지역사회를 위한 종합 복지관 건립

지역 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려면 지역 주민들과 아주 밀접한 관

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 농촌 지역에 위치한 교회로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 시설을 갖춘 복지관이 매우 필요하다.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뿐 만 아니라 지역을 위한 교회의 복음전파의 접촉점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1.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적인 공간으로 활용

교회에 문화적인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부담을 갖지 않고 언제나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무료로 결혼식장을 제공하고 장례식장까지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2.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역청소년들을 위한 공부방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에 속한 청소년들이 교회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복음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 컴퓨터 교실 운영

지역 주민과 청소년들을 상대로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과 청소년들이 컴퓨터를 숙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뿐 만 아니라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도록 유도한다.

4.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무료 상담실 운영

교회에 상담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무료로 신앙상담은 물론 정신상담, 자녀교육상담, 청소년 상담, 가족치료상담 등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이 아픔을 치료하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한다.

5. 노인복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지역에 노인 연령층이 계속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이들을 위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한다. 노인대학을 개설하여 지역 노인들을 위한 무료한글 교실, 교양강좌, 단체 소풍 등을 통하여 노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건전한 노후 생활을 도와주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여생을 지내도록 보살피려 준다.

제 8 장

결 론

본 연구자가 이 논문을 쓰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어떻게 하면 농촌지역 사회를 복음화시켜 하나님의 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농촌지역일수록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음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장애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주민들이 조상숭배와 토속신앙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연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이러한 복음에 대한 부정적인 환경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혀서 예수그리스도의 구원에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본인이 목회를 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문제로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와 지역사회에 대한 막힌 담을 헐고 그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교회가 지역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지역 주민들에게 인식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지역사회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해 나감으로써 선교의 접촉점을 개발하고 지역 주민들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제거하고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시켰고 지역주민들을 복음화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교회가 지역사회를 어떻게 섬겨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사회봉사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게 될 때 많은 지역 주민들이 교회가 하는 일에 협조가 이루어졌고 특별히 신용조합의 활동을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해서 항상 교회에 대한 고마움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인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회복지향상에 노력하게 됨으로써 많은 부모들이 마음놓고 일터에서 일하게 되

었다. 또한 농번기에 많은 주민들이 일손이 부족한 때에 일손을 도와주는 큰 일이 되고 있다. 노인들이 소외되고 가정에서조차도 효도를 못 받고 있는데 교회에서 경로잔치를 베풀어서 교회가 노인들을 잘 대접함으로써 기독교가 효도의 종교임을 삶들에게 알리는데도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여 병원선교를 하고 있고 특히 교도소선교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앞으로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희년을 선포하면서 도시지역에 개척교회를 세웠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근린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이 일이 완성되면 동네 주민들이 교회를 자주 오가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전도를 위한 접촉점이 형성될 것이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위한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이 부족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 주민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생활 문화공간으로 복지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여 사회봉사를 통한 접촉점을 개발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나가게 될 것이다.

이제 위미교회는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지역 주민들에게 보여주게 되었고 교회가 사회의 빛과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었다. 그래서 농촌교회치고는 비교적 복음화가 잘되었고 교회도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선교의 접촉점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며 지역주민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참 고 문 헌

1. 국문서적

- 강문호, 문태선, 제주선교 70년사,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육부, 1970.
- 김광식, 선교의 토착화,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75.
- 김기원, 기독교사회복지론, 서울: 대학출판사, 1998.
- 김도빈, 목회자 핸드북, 서울: 성광문화사, 1977.
- 김명혁, 선교의 성서적 기초, 서울: 성광문화사, 1992.
- 김연택, 21세기 건강한 교회, 서울: 도서출판 제자, 1990.
- _____, 목회와 교회성장,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6.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전도부 편, 개인전도훈련교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 명성훈, 당신의 교회를 진단하라,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1996.
- 민정웅, “농촌교회의 성장과 자립의 길.” 월간목회, 1991년 3월호, 104-111.
- 박근원, 교회와 선교, 서울: 종로서적, 1988.
- 박삼수, 선교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서울: 기문, 1987.
- 박창빈, “한국교회의 사회봉사의 실태와 전망.” 기독교사상, 1993년 10월호, 18-26.
- 서정운, 교회와 선교,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88.
- 송실대기독교사회연구소 편,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 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2.
- 이광규, 한국의 가정과 종족, 서울: 민음사, 1990.
- 이광순, 이용원, 선교학 개론, 재판;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 이성희, 미래사회와 미래교회, 서울: 기독교서회, 1996.
- _____,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위한 교회 조직.” 기독교사상, 1995년 5월호, 31-39.
- 이종윤, 전호진, 나일선, 교회성장론,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83.
- 위미신용협동조합, 위미리지, 제주: 일신인쇄사, 1991.
- 유의웅, 한국교회와 사회전도,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1996.
- _____, 한국교회와 사회봉사,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1997.
- 조병창, “농도신학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결교신학대학원, 1994.

조승철. 제주의 종교. 제주: 도서출판 사월, 1993.

채수일. "세계화 지방화 시대의 선교정책." 기독교사상. 1995년 5월호, 21-30.

통계연보 2000. 서귀포: 남제주군, 2000.

한관용. "제주지역에 있어서의 기독교 선교 환경과 선교전략." 목회학박사학원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풀러신학교, 1987.

한국컴퓨터선교회. 대한민국 복음화현황. 1998.

한응수. 농어촌 목회와 선교. 서울: 기독교교문사, 1993.

2. 번역서적

Bavinck, J. H. 선교학 개론. 전호진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8.

Drucker, Peter F. 비영리단체의 경영. 현영하 역.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5.

Engend, Charles Van.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임운택 역.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4.

Stott, John R. W. 복음전파와 사회적 책임. 한하룡 역.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86.
_____. 현대의 기독교 선교. 서정운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2.

Til, Charles Van. 복음과 지성의 도전. 박아론 역. 서울: 신태양사, 1985.

Vaux, Roland De. 구약시대의 생활풍속. 이양구 역. 서울: 기독교서회, 1983.

Wagner, C. Peter. 기독교선교전략. 전호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8.

3. 외국서적

Barret, Charles K.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John. Philadelphia: Westminster, 1978.

Dodd, Charles H. The Interpretation of the Fourth Gospe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3.

Glasser, Arthur F. and Donald A. McGavran. Contemporary Theologies on Mission. Michigan: Baker Book House, 1983.

Gilliand, Dean. Pauline Theology and Mission Practice. Grand Rapids: Baker, 1983.

Harris, R. Laird, Gleason L. Archer, Bruce K. Waltke. Theological Dictionary of

- the Old Testament. Chicago: The Moody Bible Institute, 1980.
- Kraft, Charles H. Christianity in Culture. New York: Orbis, 1979.
- Til, Charles Van. The Defense of the Faith. Phillipsburg: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Co., 1967.
- Verkuyl, Johnnes. Contemporary Missi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78.

1/1989 to 12/1990 Full-time Ministry

of Young Nak Presbyterian Church, Seoul, Korea